

2025년  
개서 15주년을 맞은  
횡성소방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다

횡성소방사  
이야기를 담다

발간등록번호  
72-6530221-100001-01

횡성소방서 개서 15주년 기념

# 횡성소방史 이야기를 담다



횡성소방서 개서 15주년 기념

# 횡성소방史 이야기를 담다



**횡성소방서**  
Hoengseong Fire Station

# INTRO

## I . Since 2010, 횡성소방서

발간사	.....	004
축사	.....	005
횡성군 소개	.....	008
1. 역사	횡성소방서 개서	012
	연혁	013
	횡성소방서 주요 활동	016
2. 조직 안내	주요 업무 및 조직도(소방서)	074
	- 소방행정과	075
	- 대응총괄과	076
	- 현장대응단	077
	- 안전센터 · 횡성119안전센터	078
	- 지역대 · 갑천119지역대	080
	- 안전센터 · 둔내119안전센터	081
	- 지역대 · 청일119지역대	082
	- 안전센터 · 우천119안전센터	083
	- 지역대 · 안흥119지역대	084
	- 지역대 · 강림119지역대	085
	- 안전센터 · 공근119안전센터	086
	- 지역대 · 서원119지역대	087
	- 119구조대	088
	주요 업무 및 조직도(의용소방대)	090
	-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	094
	- 횡성여성의용소방대	095
	- 갑천남/여의용소방대	096
	- 산악전문의용소방대	098
	- 둔내여성의용소방대	099
	- 청일남/여의용소방대	100
	- 우천남/여의용소방대	102
	- 안흥남/여의용소방대	104
	- 강림남/여의용소방대	106
	- 공근남/여의용소방대	108
	- 서원남/여의용소방대	110
	- 유현지대의용소방대	112
	의용소방대 주요 활동	113
3. 일반 현황	예산	144
	관할	145
	주요 장비 및 시설	146
4. 횡성군 주요 사건·사고	.....	154
5. 지역사회 공헌 활동	.....	168

## II . 출동, 사람들

1. 인터뷰	인터뷰1 -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182
	인터뷰2 - 횡성소방서 소방교 전상희	188
2. 나도,한마디	.....	194
3. 기고문	김민혁 <화재 예방,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려로부터>	201
	김수영 <소방관을 살리는 소방관>	202
	김창민 <생명과사의 사투, 그리고 구급대원의 사명>	204
	설경수 <혼자가 아니다>	206
	오명준 <2021년 봄, 나의 첫걸음>	207
	이상훈 <감사합니다>	208
	이수정 <횡성소방서, 군민의 곁에서>	210
	장현우 <소방관 되는 중>	211
	지성진 <불꽃 속에서도 지켜야 할 이름>	212
4. 칭찬합니다	.....	214
5. 자랑합니다	.....	224
6. 횡성소방서 이모저모	상장	232
	트로피	236
	MOU 현황	239
7. 사랑하는 우리 가족	김대경 <삼부자 이야기>	240
	조영우 <퇴직소방관의 아들>	241
	오유경 <소방관이자 엄마로 산다는 것>	242
	김민기 <엄마가 바라본 소방관 아들>	243

# OUTRO

## 8. 편집후기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사랑하는 횡성소방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횡성소방史 이야기를 담다』라는  
이름으로, 횡성소방서의 발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며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 우리 소방서 구성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군민의 곁에서 묵묵히  
걸어온 날들의 생생한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수많은 재난현장에서 보여준 헌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낸  
책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지난 15년 동안 ‘도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  
앞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우리는 현장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소방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더 이상  
과거의 형태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현장 경험과  
기술을 융합한 '과학 기반 소방', '선제적  
예방 중심 소방'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횡성소방史 이야기를 담다』는  
횡성소방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자  
다짐의 기록입니다. 이 책이 우리  
구성원에게는 자긍심이 되고,  
군민 여러분께는 신뢰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언제나 든든한 소방으로  
군민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횡성소방서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김승룡


트윈 등 4차 산업 기술을 소방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재난의  
예측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횡성소방서가 축적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탄탄한 조직 역량이 이러한  
기술 기반의 과학적 소방체계와  
결합될 때,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한층 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역시  
횡성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백서가 횡성소방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큰 도약을 향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횡성소방서 모든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존경하는 횡성소방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횡성소방史 이야기를 담다』 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백서는 지난 15년간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명을 다해온  
횡성소방서의 역사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한  
기록을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여정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성찰하고 준비하는  
귀중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수많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거센 불길 앞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켜온 여러분의 땀과 헌신은  
강원소방의 자긍심이자,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오늘날 재난의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초고층·지하공간의 확장, 고령화 사회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소방의 대응도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기반 소방’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디지털

## 축사



황성군수  
김명기

황성소방서 개서 15주년 역사를 담은 『황성소방사이야기를 담다』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백서는 그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빛나는 소방 영웅들의 지난 시간, 그리고 숨겨진 땀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매 순간 뜨거운 사명감과 넘치는 열정으로 황성을 지켜오신 박순걸 황성소방서장님을 비롯한 황성소방서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숭고한 헌신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기후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선제적 예방조치와 안전대책 마련, 강도 높은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수한 위험 상황 속에도 의연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이 모든 어려운 현실에도 황성소방서는 변함없이 든든하게 황성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더 큰 신뢰와 감동을 안겨주고 소방 가족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리 소방의 미래 비전 또한 그려낼 것입니다.

황성군도 발맞춰 걸겠습니다. 요즘 같은 복합재난 상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결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으로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향상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성소방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군민과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황성군수 김명기

## 축사



황성군의회의장  
표한상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황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소방조직이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 가족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그 기본권을 지키는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황성소방사이야기를 담다』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성소방서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소방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군의회의장 표한상

존경하는 황성소방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황성군민 여러분. 『황성소방사이야기를 담다』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군민의 안전을 위해 흘린 소방 가족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묵묵한 헌신이 담긴 살아 있는 이야기의 집합체입니다. 위험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가 오롯이 담긴 이 백서가 발간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관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불길 속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안전하고 평온한 황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 수 있는 이 든든한 배경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황성소방서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백서는 그동안의 걸음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선배 소방인들의 헌신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전통으로 남게 될 것이며, 군민에게는 소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이 심어주는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면적 998km<sup>2</sup>  
인구 46,111명 (2024.12월 기준)  
읍면동 1읍 8면  
행정리(178) 법정리(110) 반(804)



## 대표 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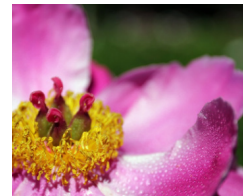
마스코트 | 한우리

횡성의 한우는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축산물로서 상품화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마스코트의 조형적 형태 개발은 전국 최고 품질을 암시하는 뜻으로 엄지 손가락을 펴 일등 한우를 상징하였으며, 활짝 웃는 표정은 밝고 건강한 횡성군민의 미래상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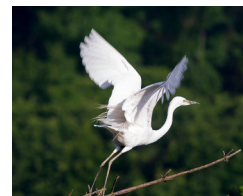
군목 |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쌍떡잎식물 뽕나무과 느티나무과의 활엽목이다. 횡성군 관내에 느티나무의 고령수목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여건에 잘 맞아 도로변 가로수 또는 조경수로 많이 애호되고 있는 횡성의 대표적 인 수목이다.



군화 | 함박꽃

꽃말 "순박"은 군민의 순결하고 고운 마음씨를 상징하고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고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용기 밝은 미래를 기원 밝고 넓은 꽃잎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표현, 강한 번식력은 즐기게 뻗어 가는 군민의 강인한 정신력을 뜻한다.



군조 | 백로

백로는 예로부터 희고 깨끗하여 군민의 청렴성을 상징한다. 특히,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백로는 매년 3월 중순경 이곳을 찾아와 동지를 틀고 번식한 후 10월 중순경 월동지인 남지나쪽으로 이동한다.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으로, 태백산맥의 웅장한 산세와 더불어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동쪽으로는 평창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원주와 인접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도심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횡성은 넓은 들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횡성 한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청태산자연휴양림, 주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 등이 있으며, 매년 횡성한우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다양한 조류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큼니다. 횡성군은 고유의 전통과 자연, 그리고 현대적 발전이 어우러진, 강원특별자치도의 숨겨진 보석과 같은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읍면 안내



횡성읍	둔내면	갑천면
우천면	청일면	서원면
안흥면	공근면	강림면

# I

## I . Since 2010, 횡성소방서



1. 역사	횡성소방서 개서		
	연혁		
	횡성소방서 주요 활동		
2. 조직안내	개요	전체 기구도	
		인력 현황	
	주요 업무 및 조직도 (2과 1단 4센터 1구조대 5지역대)	소방행정과	
		대응총괄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횡성119안전센터	
		지역대 · 갑천119지역대	
		안전센터 · 둔내119안전센터	
		지역대 · 청일119지역대	
		안전센터 · 우천119안전센터	
		지역대 · 안흥119지역대	
		지역대 · 강림119지역대	
		안전센터 · 공근119안전센터	
		지역대 · 서원119지역대	
		119구조대	
		의용소방대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
		횡성여성의용소방대	
갑천남/여의용소방대			
산악전문의용소방대			
둔내여성의용소방대			
청일남/여의용소방대			
우천남/여의용소방대			
안흥남/여의용소방대			
강림남/여의용소방대			
공근남/여의용소방대			
서원남/여의용소방대			
유현지대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주요 활동			
3. 일반현황	예산		
	관할		
	주요 장비 및 시설		
4. 횡성군 주요사건·사고			
5. 지역사회 공헌 활동			

# 01. 역사

## 1992년 원주소방서 산하 횡성파출소 신설 ~ 2010년 횡성소방서 개서

횡성소방서는 1992년 7월 15일 원주소방서 산하 횡성파출소로 신설되어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0년 4월 2일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에 신축 청사를 완공하여 정식으로 개서되었습니다. 개서 당시, 횡성119안전센터와 둔내119안전센터가 원주소방서로부터 이관되었으며, 우천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가 새롭게 신설되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횡성소방서는 횡성군 전역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횡성파출소 전경



둔내파출소 전경



우천파출소 전경



공군119지역대 전경



횡성소방서 개서 단체사진



횡성소방서 식목



횡성소방서 개서식



횡성소방서 현판식



92.7.1 원주 횡성파출소 신설



00.7.25 원주 둔내파출소 신설



10.4.2 횡성소방서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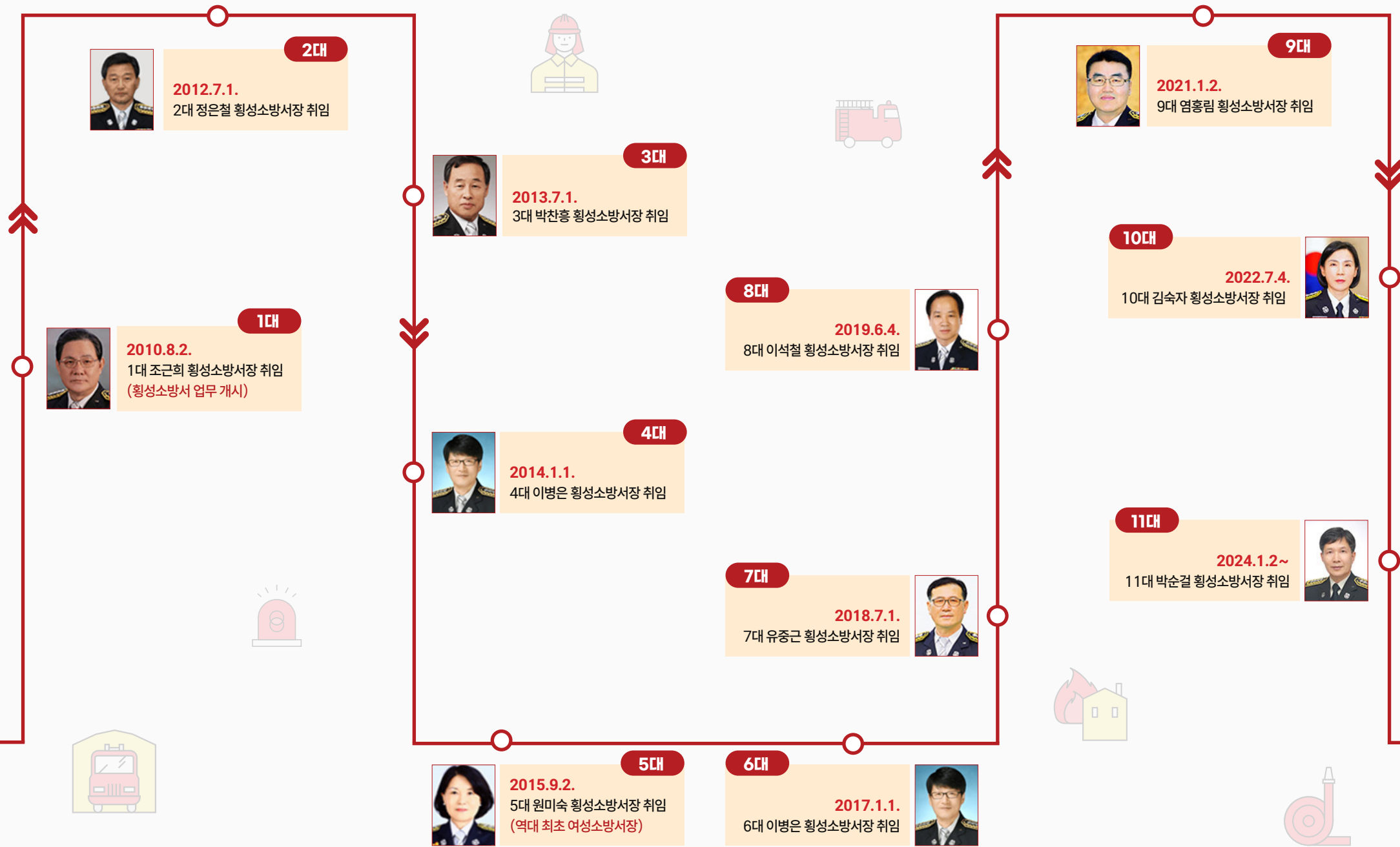
19.4.26 공군119안전센터 신설

### 1992년 원주소방서 산하 횡성파출소 신설 ~ 2010년 횡성소방서 개서

- 1992.07.01. 원주 횡성파출소(현 횡성소방서) 신설
- 2000.07.25. 원주 둔내파출소(현 둔내119안전센터) 신설
- 2010.04.02. 119구조대, 우천119안전센터 신설, 횡성소방서 신설
- 2010.08.02. 1대 조근희 횡성소방서장 취임(횡성소방서 업무 개시)
- 2012.07.01. 2대 정은철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13.07.01. 3대 박찬흥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14.01.01. 4대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15.09.02. 5대 원미숙 횡성소방서장 취임(역대 최초 여성소방서장)
- 2017.01.01. 6대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18.07.01. 7대 유종근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19.04.26. 공군119안전센터 신설
- 2019.06.04. 8대 이석철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21.01.02. 9대 염홍림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22.07.04. 10대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취임
- 2024.01.02. 11대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취임

# 역대 횡성소방서장

2010년 개서 이후, 2025년 기준 총 11명의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횡성소방서 개서 이전

대민지원  
농촌 일손돕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소방차  
동승 실습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 홍보



신규  
소방차량  
안전 기원제



횡성소방  
파출소  
청일출장소  
준공식



제32주년  
소방의 날 행사



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준공식



청일면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



청일면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



소방차량  
(횡성1호)



소방차량  
(횡성2호)



소방차량  
(청일1호)



소방차량  
(안흥1호)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횡성소방서 개서 이전



횡성소방서 개서 이전

서원지역대  
(개서이전)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의용소방대  
활동



안흥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대회



의용소방대  
예방활동



의용소방대  
산불예방 활동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 최우선

횡성소방서 개서 이전



소방훈련



2010  
코레스코  
치악산 콘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2010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2010  
화재  
가상훈련





소방훈련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소방훈련

2010  
황성웰리힐리  
소방훈련



2010  
수난구조훈련



2011  
공군  
제8전투비행단  
대형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소방훈련



2011  
위험물 누출  
대응 훈련



2011  
웰리힐리  
리프트  
훈련



2011  
운암정  
문화재  
훈련



2012  
무인방수로봇  
시연회



2012  
해빙기 수난  
인명 구조 훈련



2011  
풍수해  
대비 훈련



2012  
황성휴게소  
화재 진압 훈련



2013  
맨홀사고  
구조 훈련



2011  
치악산  
국립공원,  
구룡사  
산불진화  
모의훈련



2011  
황성우체국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2013  
황성군청  
소방 훈련



2013  
황성휴게소  
소방 훈련





소방훈련

2014 동계수난구조 훈련



2014 황성향교 합동 소방 훈련



2014 리프트 구조 훈련



2014 실물 대응 훈련



2014 로프활용 인명 구조 훈련



2014 한국골프대 합동 소방 훈련



2015 긴급구조 종합 훈련



2016 금계천 수난 인명 구조 훈련



2014 철도건설 공사장 비상사태 모의훈련



2014 파괴장비 실습훈련



2016 긴급 구조 종합 훈련



2017 청태산 등산로 119 구조·구급함 설치



2014 황성문화 체육공원 긴급 구조 종합훈련



2014 청일119 지역대 청사 준공식



2017 금계천 동계 아이스 다이빙 훈련



2017 산악사고 대비 산악 구조 훈련





소방훈련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업선

소방훈련

2017  
파스퇴르공장  
긴급 구조  
종합훈련



2018  
긴급 구조  
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



2020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교육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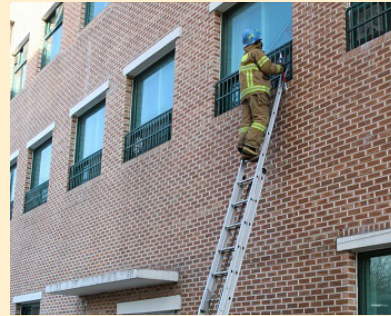
2021  
황성시장  
야간 훈련



2018  
불철 산악  
긴급구조 대비  
특별 구조 훈련



2019  
노인요양시설  
화재 신속  
대응 훈련



2021  
지하층  
화재발생  
대비 훈련



2022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2019  
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특별 구조 훈련



2020  
이동식 방수층  
활용 화재  
진압 훈련



2022  
교통사고 특별  
구조 훈련



2022  
인명구조사  
훈련



유관기관  
합동 소방 훈련



2023  
동계 수난 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



2023  
해빙기  
수난구조 훈련





소방훈련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23 소방 전술 훈련 평가



2023 산악사고 특별 구조 훈련



2024 다수상상자 발생 대비 관계기관 합동 구급 대응 훈련



2024 신속동료 구조 팀(RIT) 훈련



2023 질식포 소화 훈련



2023 긴급구조 종합 훈련



2024 수난사고 특별 구조훈련



2024 여름철 대비 계곡 특별 구조 훈련



2023 여름철 수난 사고 대비 특별 구조 훈련



2024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2024 구조대 특별 수중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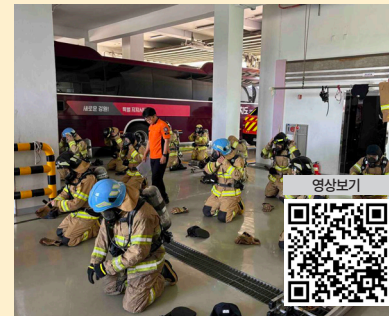
2023 집라인·리프트 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



2024 소방통로 확보 훈련



2025 소방전술훈련 평가



2025 동계수난구조 훈련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25  
ISAR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 시연회



2010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10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차



2025  
목조문화재  
화재대응훈련



2025  
긴급구조  
종합훈련



2010  
어린이  
소방 안전 교육



2010  
횡성소방서  
견학 & 어린이  
소방 안전 교육



2010  
강원도 119  
소방 동요제



2010  
다문화가정  
초청 소방  
안전 체험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11 어린이 소방 안전 교육



2011 전통시장 안전 캠페인



2012 큰빛어린이집 119 동요대회 연습



2012 성북초 119 동요대회 연습



2011 성북초 한국 119 소년단 발대식



2011 둔내 수백초 병설유치원 소방 안전 교육



2012 일일 소방관 직업 체험 교실



2012 물놀이 안전 캠페인



2011 예원어린이집 소방 안전 체험



2011 춘당초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 안전 체험



2012 일일 소방관 직업 체험 교실



2012 횡성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



2011 녹지어린이집 소방 안전 교육



2012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불조심 사생대회 우수작 전시



2012 어린이 소방안전 문화 체험



2012 성북초 소방상식 퀴즈 대회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업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캠페인 및 안전 교육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약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12 장애인복지관 소방 안전 체험 교육



2013 태기산 산악 안전지킴이 캠페인



2014 민족사관 고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2014 둔내초 소소심 체험장 운영



2013 황성 여성 유권자 연맹 심폐소생술 교육



2013 어린이날 맞이 119 소방 안전 캠프



2014 119소년단 발대식



2014 119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 안전 교육



2013 황성초 병설유치원 소방 안전 교육



2013 성북초 119소년단 발대식



2014 안전점검의 날, 비상구 캠페인



2014 소방상식 날말퍼즐 이벤트 추첨



2013 성모유치원 강원 119 동요제 대상



2013 농협 황성군지부 심폐소생술 교육



2015 원주공항 소소심 체험장 운영



2015 119소년단 발대식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15  
독거노인  
대상  
가스타이머  
설치



2015  
119소년단  
하계 안전캠프



2018  
어린이날  
119 소방 안전  
체험장 운영



2018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시연



2016  
이안애  
어린이집  
화재 예방 교육



2016  
119 소년단  
발대식



2018  
진성어린이집  
소방서 견학 및  
소방 안전 교육



2018  
제11회  
평생학습축제  
소방 안전 체험  
부스 운영



2016  
갑천초  
미래소방관  
체험 교육



2016  
안흥면  
파스퇴르 공장  
직장 안전  
지킴이  
경연대회 개최



2019  
어린이날 맞이  
119 소방 안전  
체험장 운영



2019  
119 소년단  
발대식



2016  
119  
안전체험장  
운영



2018  
119 소년단  
발대식



2020  
가수 추가열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2020  
119 소년단  
발대식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업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20 자우림과 함께 하는 설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2021 영웅이와 함께하는 소방 안전 교육



2022 찾아가는 소방 안전 교육



2023 횡성휴게소 심폐소생술 버스킹



2022 둔내 토마토축제 체험장 소방안전 체험 부스 운영



2023 횡성군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23 어린이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2022 더덕 축제 안전 체험 부스 운영



2022 미래소방관 체험 교실



2023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안전 캠페인



2023 119 청소년단 (큰빛어린이집) 소방서 견학



2022 횡성군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23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입상



2023 한국 119 청소년단 발대식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업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23  
황성군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소방 안전 교육



2023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  
교육



2024  
응원물품  
전달식 및 소방  
안전 체험 교육



2024  
어린이날  
소방 안전 체험  
부스 운영



2023  
외국인  
소방 안전 체험  
교육



2023  
어린이 소방서  
견학



2024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2023  
한국119  
청소년단  
안전 체험 마을  
견학



2024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24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24  
한국  
119청소년단  
발대식



2024  
성모유치원  
황성소방서  
견학



2024  
국제  
소방관의 날  
기념  
응원물품  
전달식



2024  
찾아가는  
소방 안전 교육



2024  
황성어린이집  
소방서 견학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약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캠페인 및 안전 교육

2024  
횡성한우축제  
체험부스 운영



2024  
숙박시설  
관계인  
안전 교육



2025  
한국119  
청소년단  
발대식



2025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24  
평생학습축제  
소방부스 운영



2024  
불조심  
강조의 달  
포스터 우수작  
시상식



2025  
어린이날 맞이  
119안전체험  
부스 운영



2024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한마당



2024  
상지대학교  
횡성소방서  
견학



2025  
설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2025  
겨울철  
화재안전  
#safe챌린지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캠페인 및 안전 교육



각종 행사

2010  
횡성소방서  
개서



2010  
제48주년  
소방의 날 표창  
전수



2010  
제48주년  
소방의 날  
다과회



2010  
제48주년  
소방의 날  
체육행사



2010  
제48주년  
소방의 날  
체육행사  
경품 추첨



2010  
1대 조근희  
횡성소방서장  
취임식

2010  
사랑나눔  
연탄 봉사



2010  
갑천민물고기  
축제



2010  
제48주년  
소방의 날  
개회식

2010  
함종국 도의원  
명예서장 위촉



2010  
이관형 도의원  
명예  
횡성소방서장  
위촉





각종 행사

2011  
6.25  
건강달리기  
대회



2011  
제24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  
대회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우선

각종 행사



2011  
개서 1주년  
기념 행사





각종 행사

2011  
농촌 일손돕기  
봉사



2011  
춘계 체육대회



2011  
추계 체육대회



2011  
상지영서대  
학생 현장실습



2011  
축구동호회  
발대



2011  
제10회  
119  
여울한마당



2011  
반부패  
결의 대회



2011  
제주도유적  
문화탐방



2011  
횡성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업무 협약



2011  
횡성소방서-  
음식업중앙회  
화재와의  
전쟁 정책  
목표달성 위한  
업무 협정





각종 행사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각종 행사

2011  
횡성을 내지리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식



2011  
시민수상  
구조대  
발대식



2011  
직원가족  
체력증진  
스키캠프



2011  
횡성소방서-  
상지영서대  
산학 협약



2011  
횡성소방서-  
우체국  
화재사망자  
줄이기  
업무 협약



2012  
우천면  
하궁1리  
마을회관  
화재없는  
안전마을



2012  
소방시설  
설치 강화  
간담회



2011  
횡성소방서  
108연대  
2대대  
업무 협약



2011  
대화제약  
김운장 회장  
명예서장 위촉



2012  
횡성시민안전  
관리협의회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



2012  
발교산 등반  
대회



2011  
종무식 행사



2012  
시무식 행사





각종 행사

2012  
우천  
119 안전센터  
준공식



2012  
운암정 일대 등  
산로 환경정화



2012  
제5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11  
제25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승



2011  
태양광  
발전설비  
제막식



2012  
관내 초·중  
교장 소방 체험



2012  
종무식 행사



2012  
조근희 서장님  
퇴임식



2013  
오대희  
본부장  
횡성소방서  
방문





각종 행사

2013 '오늘은 내가 주인공' 직원 격려 행사



2013 공근리 봉하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2013 횡성 다문화 가정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 전달식



2013 횡성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협약



2013 구급지도의사 박찬우 소화기 20대 기증



2013 상반기 호수길 직장 체육 행사



2013 정은철 서장님 퇴임식



2013 제51주년 소방의 날



2014 4대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취임식



2014 김성곤 강원소방본부장 방문



2013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2014 농협 횡성군 지부 119소년단 단복 기증



2014 신규 소방차량 안전지원제





각종 행사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각종 행사

2014 송호대 관·학·협력 증진 협약



2014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15 개서 5주년 기념 행사



2015 5대 원미숙 횡성소방서장 취임식



2015 시무식 행사



2015 이강일 강원소방본부장 초도 방문



2015 둔내면 삼교1리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2015 강원 119 어울 한마당



2015 횡성소방서-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안전문화 구축 업무 협약



2015 강원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2015 제53주년 소방의 날



2015 둔내구급차 신규 소방차량 안전지원제



2015 세족식





각종 행사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체우선

각종 행사

2015  
진기엽  
강원도의원  
명예소방서장  
위촉



2015  
횡성소방서-  
우체국  
업무 협약



2016  
소방기술  
경연대회  
선수단  
시연회



2016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종합우승



2015  
화학차  
신규 소방 차량  
안전 기원제



2016  
횡성소방서-  
CJ헬로비전  
영서 방송  
업무 협약



2016  
횡성군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2016  
개서 6주년  
소방의 밤 개최



2016  
우천농공단지  
공단화재  
공동대응 위한  
업무 협약



2016  
다문화 가정  
안전 코디 위촉



2016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선수단 발대식



2016  
농협  
횡성군지부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2016  
조승래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서 방문



2016  
54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



2016  
불용 펌프차  
상지영서대학교  
기증





각종 행사

2017 6대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취임식



2017 굴절차 도입  
안전 기원제



2018 국제라이온스  
협회 소방시설 기증



2018 횡성군  
이장협의회 간담회



2017 횡성군  
커피연구회 초청 커피  
내리기 특강



2017 행정부지사  
횡성소방서  
격려 방문



2018 여직원 소동  
간담회



2018 춘당1리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식



2017 의무소방원  
멘토·멘티  
만남의 장  
운영



2017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



2018 강원도 의회  
한창수 의원  
횡성소방서  
방문



2018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2017 종무식 행사



2018 시무식



2018 횡성군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2018 종무식



각종 행사



각종 행사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취업선

각종 행사

2019  
시무식



2019  
차량화재 진압  
민간인  
유공자 표창



2020  
횡성펌프차  
시연회



2020  
김충식  
강원소방  
본부장  
방문



2019  
중무식



2020  
코로나 방역



2020  
찾아가는  
음악회



2020  
시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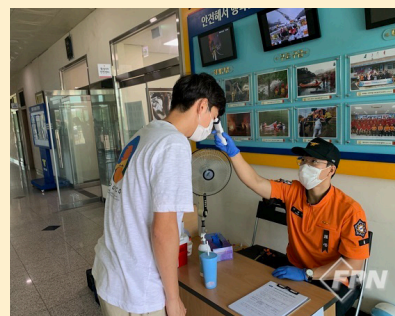
2020  
3.1.  
건강달리기



2020  
영월의료원  
mou 체결



2020  
횡성군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2020  
119  
시민수상  
구조대  
발대식



2020  
직장협의회  
출범식



2020  
신규 물탱크차  
안전 기원제





각종 행사

2020  
한전 횡성시장  
mou 체결



2020  
제58주년  
소방의 날 행사



2022  
화재취약 가구  
붙이는 소화기  
기증식



2022  
화재출동  
현장  
민간단체 표창  
전수식



2021  
전국  
소방기술경연  
대회  
시연회



2021  
소방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2022  
제69기  
임무소방원  
전역식



2022  
10대  
횡성소방서장  
취임 기념  
현장 부서  
격려 방문



2021  
소방서장  
사랑나눔  
버킷 챌린지



2021  
갑천지역대  
청사  
준공식



2022  
시민수상  
구조대  
발대식



2022  
하트·브레인  
세이버  
전수식



2022  
안전 1번지  
횡성 추진 협약



2022  
하트·브레인  
세이버  
전수식



2022  
제6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22  
119 성금 기탁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각종 행사



각종 행사

2023 제2회 의용소방대의날 기념식



2023 119청소년단 (큰빛어린이집) 부활절 기념 감사 방문



2023 도 최강소방관 2,3,4위 차지

2023 일반인 심폐소생술 참가자 표창장 수여



2023 전기차 화재진압 시연회

2023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협의회



2023 횡성 양계장 계란 기증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각종 행사

2023 119 시민수상 구조대 발대식



2023 기자간담회



2023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장 횡성소방서 방문



2023 추석명절 소외계층 기금 전달



2023 제61주년 소방의 날 행사



2023 빼빼로데이 어린이집 깜짝 소방서 방문



2023 일산화탄소 경보기 기증식



2023 종무식





각종 행사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각종 행사

2024  
관서장  
초도 순시



2024  
공감소통관  
위촉장  
수여식



2024  
의용소방대원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24  
선후배  
소통 창구  
쌍방향  
멘토링



2024  
시민안전관리  
협의회  
차량용 소화기  
기증



2024  
하트세이버  
수여식



2024  
상반기  
직장 체육 행사



2024  
군의회  
횡성소방서  
방문



2024  
사랑의 헌혈  
캠페인



2024  
소방-경찰  
공동대응  
유공 표창장  
수여



2024  
119  
시민수상  
구조대  
발대식



2024  
공감소통관  
위촉장  
수여식



2024  
큰빛어린이집  
부활절 기념  
소방서 방문



2024  
식목 행사



2024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  
관계자 컨설팅



2024  
브레인 세이버  
수여식





각종 행사

정교한 대응! 도민안전최우선

각종 행사

2024  
쌀 소비 촉진  
업무협약



2024  
강원특별  
자치도의회  
안전위 업무  
보고회



2025  
시무식



2024  
강원특별  
자치도의회  
안전위 시연회



2024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025  
임용장  
수여식



2025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방문



2024  
제62주년  
소방의 날  
체육 행사



2025  
제26회  
황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2024  
종무식



2025  
신규  
소방펌프차  
시연회





각종 행사

2025  
신규 소방차량  
안전기원제



2025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2024  
봄맞이  
식목행사



20245  
전기차  
화재대응  
시연회



2025  
강원특별  
자치도지사  
김진태 방문



2025  
상반기  
직장체육행사



소방 복제

제복의 차림

출처 : 국립소방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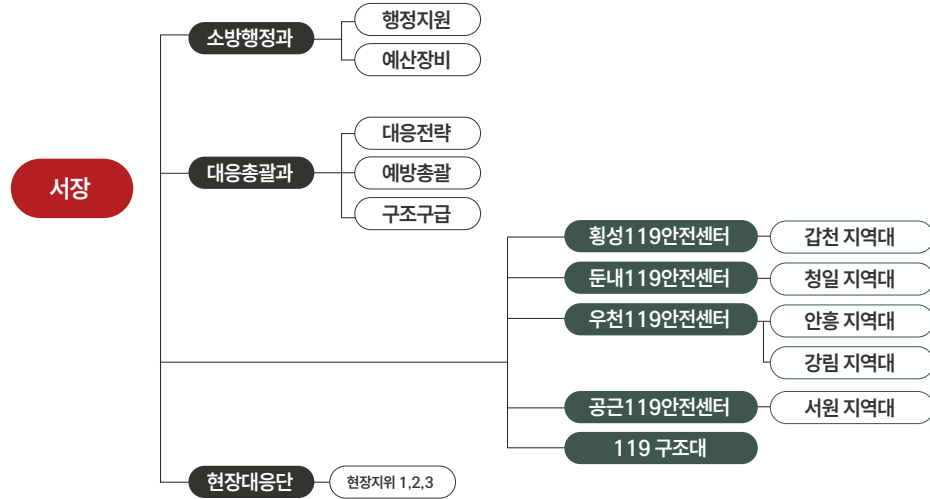
제복의 종류



## 02. 조직 안내

개요

### 전체 기구도



### 인력 현황

○ 소방공무원 228명 ○ 의용소방대 439명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228	1	5	13	18	39	89	63
현원	226	1	5	22	48	76	46	28
대비	△2	-	-	9	30	37	△43	△35

구분	계	소방행정과	대응총괄과	현장대응단	횡성센터	둔내센터	우천센터	공근센터	구조대
정원	228	10	15	16	53	34	47	37	16
현원	226	13	15	16	51	34	47	34	16
대비	△2	3	-	-	△2	-	-	△3	-

○ 의용소방대 정현원 : 19개 대 439명 (남성대 : 238, 여성대 : 181)

주요 업무 & 조직도

### 소방청사 & 안전센터/지역대 및 구조대

횡성소방서

안전센터/지역대 및 구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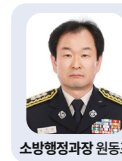
주요업무

### 1. 소방행정과



- 인사관리, 징계, 복무감찰, 보건·안전·복지에 관한 사항
-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지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소방행정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 청사 신·증축 및 공유재산·장비물품 수급관리
- 소방통신, 전산망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집행 운영
- 그 밖에 소방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직도



행정지원팀



예산장비팀



주요업무 »

2. 대응총괄과



- 화재예방업무 지도·감독
- 소방관련 홍보활동 및 대민교육에 관한 사항
- 소방민원사무 처리
-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완공 지도·감독
-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지도·감독
- 의용소방대 등 소방 보조조직 운영관리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구조구급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 업무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홍보·지원·단속

조직도 »



주요업무 »

3. 현장대응단



- 각종 재난 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 소방자료조사 수집 및 활용
- 출동대 편성·화재진압 및 현장조사·보존
-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서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조직도 »



### 주요 업무 & 조직도

### 소방청사 & 안전센터/지역대 및 구조대



### 주요 업무 >>

### 1. 횡성 119 안전센터



안공일	2003.12.07. (설치일자:1992.7.1.)	관할	횡성읍, 갑천면
규모	연면적 2,706.88㎡, 3층	인구	23,728명(횡성 21,249 /갑천 2,479)
위치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현원	39명(센터장, 1팀12, 2팀13, 3팀13)
소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비	9대 (펌프, 물탱크, 경형, 구급, 배연, 버스, 고사다리, 순찰, 화물)



### 조직도 >>



주요업무 »

2. 갑천119지역대



완공일	2021.11.29. (설치일자: 1996.10.30.)	관할	갑천면
규모	연면적 391.20m <sup>2</sup> , 2층	인구	2,479명
위치	황성군 갑천면 갑천로 41	현원	9명(팀별 3명)
소유	황성군	장비	2대(펌프, 구급)

조직도 »



주요업무 »

3. 둔내119안전센터



완공일	2007.07.15. (건축일자: 2000.07.15.)	관할	둔내면, 청일면
규모	연면적 560.53m <sup>2</sup> , 2층	인구	8,482명 (둔내 6,064 / 청일 2,418)
위치	황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	현원	25명(센터장, 1팀8, 2팀8, 3팀8)
소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비	4대(펌프, 물탱크, 구급, 행정)

조직도 »



주요업무 »

4. 청일119지역대



완공일	2014.10.10. (설치일자:1998.09.19.)	관할	청일면
규모	연면적 312m <sup>2</sup> , 2층	인구	2,418명
위치	황성군 청일면 청정로 813	현원	9명(팀별 3명)
소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비	2대(펌프, 구급)

조직도 »



주요업무 »

5. 우천119안전센터



완공일	2012.06.20.(설치일자:2010.04.02.)	관할	우천면, 안흥면, 강림면
규모	연면적 641.7m <sup>2</sup> , 2층	인구	9,631명(우천4,628/안흥3,208/강림1,795)
위치	황성군 우천면 서동로 199	현원	28명(센터장, 1팀9, 2팀9, 3팀9)
소유	황성군	장비	8대(펌프, 물탱크, 구급, 굴절차, 행정)

조직도 »



주요업무 »

6. 안흥119지역대



안공일	1997.12.12.(설치일자:1997.12.12.)	관할	안흥면
규모	연면적 210m <sup>2</sup> , 2층	인구	3,208명
위치	황성군 안흥면 안흥로 33-1	현원	9명(팀별 3명)
소유	황성군	장비	2대(펌프, 구급)

조직도 »



주요업무 »

7. 강림119지역대



안공일	2017.08.27.(설치일자:1994.11.18.)	관할	강림면
규모	연면적 372.94m <sup>2</sup> , 2층	인구	1,795명
위치	황성군 강림면 태종로42	현원	9명(팀별 3명)
소유	황성군	장비	2대(펌프, 구급)

조직도 »



주요업무 »

8. 공군119안전센터



완공일	1994.08.06.	관할	공군면, 서원면
규모	연면적 499m <sup>2</sup> , 2층	인구	5,598명 (공군3,507/서원2,091)
위치	황성군 공군면 영서로 130-5	현원	25명(센터장, 1팀8, 2팀8, 3팀8)
소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비	4대(펌프, 화학, 구급, 행정)

조직도 »



주요업무 »

9. 서원119지역대



완공일	2009.02.12.(설치일자:1998.12.18.)	관할	서원면
규모	연면적 322m <sup>2</sup> , 2층	인구	2,091명
위치	황성군 서원면 서원로 164	현원	9명(팀별 3명)
소유	황성군	장비	2대(펌프, 구급)

조직도 »



10. 119구조대



안공일	1994.08.06.	관할	공근면, 서원면
규모	연면적 499m <sup>2</sup> , 2층	인구	5,598명 (공근3,507/서원2,091)
위치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30-5	현원	25명(센터장, 1팀8, 2팀8, 3팀8)
소유	강원특별자치도	장비	4대(펌프, 화학, 구급, 행정)

별도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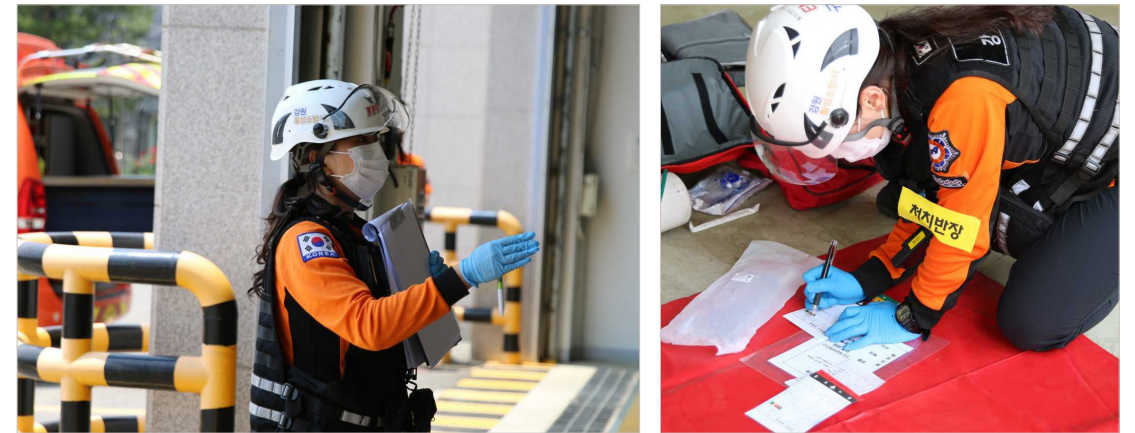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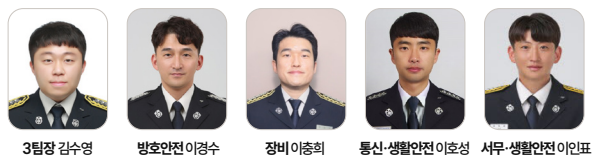
I 팀



II 팀



III 팀



■ **횡성군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횡성군 의용소방대 :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횡성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농업, 그리고 특히 한우의 고장이라는 별칭답게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면적 대비 주민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정비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화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력이 현장까지 도착하기까지 도시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화재 등 여러 재난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용소방대이다.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소방관들의 활동을 보조하고 다양한 재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지역축제에의 봉사활동, 기부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조직**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지역 내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조직된 자발적 봉사단체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횡성소방서 개서 이전부터 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다.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횡성군 관내 9개 읍·면에 걸쳐 19개의 대. 432명의 대원이 참여하고 있다. 대원들은 소방 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실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의용소방대의 주요 임무는 화재 예방 홍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지원, 재난 복구 활동 참여, 지역 주민 대상 안전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원들은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겨울철에는 대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설 작업도 수행한다.

■ **주요 활동 및 역할**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예방 및 진압 활동**

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장대원과 협력하여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해 초기 진압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대원의 체력회복을 돕기 위한 물자지원, 부족한 인력에 대한 현장활동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2.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

횡성군은 겨울철 폭설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의용소방대는 이러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에 나서며, 주민 대피 지원, 피해 지역 복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지진 발생 시 건물 안전 점검 및 응급 구조 활동도 병행하고, 화재 피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복구지원 활동,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3. 지역사회 봉사 활동**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단순히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봉사, 반찬나눔봉사, 독거노인 말벗 및 이미용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행사나 축제 시 축제장 인근 환경정리, 체험부스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부스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사를 즐기며 소방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많은 부분에 공헌하며,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횡성군의 안전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의용소방대의 중요성**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지역 내에서 소방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지역 특성상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의 존재는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지역 주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의용소방대는 단순히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소방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과 소방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홍보하며 안전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횡성군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으로,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으로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횡성군은 더욱 안전한 지역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현황  
& 조직 현황

2025년 의용소방대 현황

총 19개대 439명

☞ 횡성센터(4개대 121명), 둔내센터(4개대 82명), 우천센터(6개대 126명), 공근센터(5개대 110명)

지역	대명	인원	담당지역
합계		439	
횡성군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	42	횡성읍, 복천, 내지, 마옥, 궁천, 옥동, 영영포, 개전, 마산, 조곡, 생운, 남산, 교항, 입석, 청용, 목계, 곡교, 모평, 반곡, 갈풍, 학곡, 추동, 정암(리)
	횡성여성의용소방대	39	횡성읍, 복천, 내지, 마옥, 궁천, 옥동, 영영포, 개전, 마산, 조곡, 생운, 남산, 교항, 입석, 청용, 목계, 곡교, 모평, 반곡, 갈풍, 학곡, 추동, 정암(리)
갑천면	갑천남성의용소방대	22	중금, 부동, 화전, 구방, 포동, 매일, 하대, 울동, 전촌, 추동, 대린대, 병지방, 삼거(리)
	갑천여성의용소방대	18	중금, 부동, 화전, 구방, 포동, 매일, 하대, 울동, 전촌, 추동, 대린대, 병지방, 삼거(리)
공근면	공근남성의용소방대	26	상동, 부창, 어둔, 공근, 가곡, 삼배, 청곡, 행정, 상창봉, 창봉, 도곡, 초원, 학담, 매곡, 오산, 수백, 덕촌, 신촌(리)
	공근여성의용소방대	17	상동, 부창, 어둔, 공근, 가곡, 삼배, 청곡, 행정, 상창봉, 창봉, 도곡, 초원, 학담, 매곡, 오산, 수백, 덕촌, 신촌(리)
서원면	서원남성의용소방대	29	창촌, 압곡, 옥계, 석화, 금대(리)
	서원여성의용소방대	18	창촌, 압곡, 옥계, 석화, 금대(리)
	서원의용소방대 유현지역대	20	유현1, 2, 3(리)
우천면	우천남성의용소방대	30	두곡, 용둔, 산전, 상하가, 정금, 하궁, 상대, 하대, 오원, 백달, 우항, 양적, 법주, 문암(리)
	우천여성의용소방대	18	두곡, 용둔, 산전, 상하가, 정금, 하궁, 상대, 하대, 오원, 백달, 우항, 양적, 법주, 문암(리)
안흥면	안흥남성의용소방대	22	안흥, 가천, 송한상안, 지구, 소사, 성산(리)
	안흥여성의용소방대	11	안흥, 가천, 송한상안, 지구, 소사, 성산(리)
강림면	강림남성의용소방대	23	강림, 부곡, 월현(리)
	강림여성의용소방대	22	강림, 부곡, 월현(리)
	강림여성의용소방대	24	현천, 둔방내, 영랑, 조항, 우용, 두원, 자포곡, 석문, 삼교, 마암, 화동, 궁중(리)
둔내면	둔내여성의용소방대	21	현천, 둔방내, 영랑, 조항, 우용, 두원, 자포곡, 석문, 삼교, 마암, 화동, 궁중(리)
청일면	청일남성의용소방대	20	봉명, 속실, 춘당, 유동, 초현, 유평, 갑천, 고시, 신대(리)
	청일여성의용소방대	17	봉명, 속실, 춘당, 유동, 초현, 유평, 갑천, 고시, 신대(리)

의용소방대별 정원 현황(2025. 4월 현재)

구분	계		남성대		여성대		지역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600	439	290	238	290	181	20	20
횡성	100	81	50	42	50	39		
갑천	60	40	30	22	30	18		
둔내	60	45	30	24	30	21		
청일	60	37	30	20	30	17		
우천	60	48	30	30	30	18		
안흥	60	33	30	22	30	11		
강림	60	45	30	23	30	22		
공근	60	43	30	26	30	17		
서원	80	67	30	29	30	18	20	20



■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

1.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



대장 진범식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42	1	1	3	6	31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탁희성	1943 ~ 1953	30
2대	이창근	1953 ~ 1960	30
3대	한복수	1961 ~ 1970	30
4대	변규성	1971 ~ 1975	30
5대	정상철	1976 ~ 1980	30
6대	우원흥	1981 ~ 1985	30
7대	한달준	1985 ~ 1988	30
8대	김용표	1988 ~ 1990	30
9대	송인호	1991.01.01. ~ 1993.12.31.	30
10대	서창하	1994.01.01. ~ 1996.12.31.	30
11대	이병재	1997.01.01. ~ 1999.12.31.	30
12대	김응열	2000.01.01. ~ 2001.12.31.	30
13대	김기철	2002.01.01. ~ 2003.10.01.	30
14대,15대	정재혁	2003.12.01. ~ 2009.12.31.	50
16대	이주혁	2010.01.01. ~ 2012.12.31.	50
17대	이병동	2013.01.01 ~ 2015.12.31.	50
18대	김동성	2016.01.01. ~ 2017.12.31.	50
19대	정두화	2018.01.01. ~ 2020.12.31.	52
20대	이종원	2021.01.01. ~ 2024.01.01.	48
21대	진범식	2024.01.02. ~ 현재	42

2. 횡성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이해자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39	1	1	3	6	28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권혁욱	1998.01.01. ~ 2000.12.31.	30
2대	우월용	2001.01.01. ~ 2003.12.31.	30
3대	김순자	2004.01.01. ~ 2009.01.01.	30
4대	박선숙	2010.01.01. ~ 2015.12.31.	35
5대	이명란	2016.01.01. ~ 2021.12.31.	39
6대	장희선	2022.01.01. ~ 2024.12.31.	35
7대	이혜자	2025.01.01. ~ 현재	39

### 3. 갑천남성의용소방대



대장 김석환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2	1	1	3	6	11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갑천면 갑천로 41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이달성	1954. 02. 01. ~ 1962. 01. 31.	30
2대	박준모	1962. 02. 01. ~ 1967. 01. 31.	30
3대	조완식	1967. 02. 01. ~ 1975. 01. 31.	30
4대	김무정	1975. 02. 01. ~ 1985. 12. 31.	30
5대	안병락	1986. 01. 01. ~ 1994. 12. 31.	30
6대	박양선	1995. 01. 01. ~ 1996. 12. 31.	30
7대	권오국	1997. 01. 01. ~ 2000. 12. 31.	30
8대	안중호	2001. 01. 01. ~ 2004. 12. 31.	30
9대	박영배	2005. 01. 01. ~ 2007. 12. 31.	30
10대	김범식	2008. 01. 01. ~ 2010. 12. 31.	30
11대	최동희	2011. 01. 01. ~ 2016. 12. 31.	30
12대	태원민	2017. 01. 01. ~ 2019. 12. 31.	27
13대	권혁세	2020. 01. 01. ~ 2022. 12. 31.	24
14대	김석환	2023. 01. 01. ~ 현재	22

### 4. 갑천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군자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18	1	1	3	6	7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갑천면 갑천로 41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김향자	2009. 01. 01. ~ 2014. 12. 31.	21
2대	김숙자	2015. 01. 01. ~ 2020. 12. 31.	20
3대	김영순	2021. 01. 01. ~ 2023. 06. 30.	19
4대	김군자	2023. 07. 01. ~ 현재	18

### 5. 산악전문의용소방대



대장 김진선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4	1	1	3	6	13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김창수	1978 ~ 1979	30
2대	김갑용	1980 ~ 1982	30
3대	전명규	1983 ~ 1985	30
4대	라천득	1986 ~ 1988	30
5대	박복수	1989 ~ 1991	30
6대	오정섭	1992 ~ 1994	30
7대	이갑조	1995 ~ 1997	30
8대	이창서	1998 ~ 2003	30
9대	전덕윤	2004 ~ 2006	30
10대	김인덕	2007 ~ 2008	30
11대	최순석	2009. 01. 29. ~ 2014. 01. 28.	30
12대	이권형	2015. 02. 01. ~ 2020. 12. 31.	30
13대	전영길	2021. 02. 05. ~ 2023. 12. 31.	25
14대	김진선	2024. 1. 1. ~ 현재	24

### 6. 둔내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박상희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1	1	1	3	6	10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홍말금	2007. 01. 11. ~ 2010. 01. 11.	25
2대	고복란	2012. 01. 10. ~ 2015. 12. 31.	25
3대	조규순	2015. 01. 01. ~ 2017. 12. 31.	22
4대	안윤정	2018. 01. 01. ~ 2020. 12. 31.	25
5대	박상희	2021. 02. 05. ~ 현재	19

### 7. 청일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안동국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0	1	1	3	6	9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청일면 청정로 813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정기춘	1945 ~ 1950	30
2대	이은병	1951 ~ 1955	30
3대	김재창	1956 ~ 1960	30
4대	이강선	1961 ~ 1963	30
5대	이순희	1963 ~ 1967	30
6대	윤승영	1968 ~ 1980	30
7대	김치호	1981 ~ 1995	30
8대	김봉한	1996 ~ 2008	30
9대	김남훈	2009. 01. 01. ~ 2011. 12. 31.	30
10대	이재훈	2012. 01. 01. ~ 2014. 12. 31.	30
11대	김재진	2015. 01. 01. ~ 2017. 12. 31.	30
12대	이상호	2018. 01. 01. ~ 2020. 12. 31.	25
13대	박원서	2021. 01. 01. ~ 2023. 12. 31.	21
14대	안동국	2024. 01. 01. ~ 현재	20

### 8. 청일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다카무라 나오키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17	1	1	3	6	6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청일면 청정로 813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이명순	2009.2.4. ~ 2014.12.31.	14
2대	김연옥	2015.1.1. ~ 2020.12.31.	17
3대	다카무라 나오키	2021.1.1. ~ 현재	15

### 9. 우천남성의용소방대



대장 김기성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30	1	1	3	6	19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우천면 서동로 199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이종규	1946 ~ 1971	30
2대	최병권	1971 ~ 1973	30
3대	이창원	1973 ~ 1990	30
4대	차완철	1990 ~ 1996	30
5대	김진태	1996 ~ 2001.01.16.	30
6대	한근희	2001.01.16 ~ 2004.01.15.	30
7대	고증열	2004.01.16 ~ 2007.01.15.	30
8대	서상우	2007.01.16 ~ 2010.01.15.	30
9대	이과연	2010.01.16 ~ 2013.01.15.	30
10대	김제화	2013.01.16. ~ 2015.12.31.	29
11대	서홍화	2016.01.01. ~ 2018.12.31.	30
12대	배성문	2019.01.01. ~ 2024.12.31.	28
13대	김기성	2025.01.01. ~ 현재	30

### 10. 우천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영숙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18	1	1	3	6	7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우천면 서동로 199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신동자	2008.01.16. ~ 2011.01.15.	30
2대	원정숙	2011.01.16 ~ 2017.01.15.	27
3대	홍정숙	2017.01.16 ~ 2019.12.31.	23
4대	김영숙	2020.01.01. ~ 현재	18

### 11. 안흥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오세웅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2	1	1	3	6	11
사무실	관설	사실	주소	황성군 안흥면 안흥로 33-1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김근수	2010 ~ 2011.01.10.	30
2대	최동영	2011.01.11. ~ 2014.01.24.	30
3대	신재만	2014.01.25. ~ 2016.12.31.	29
4대	이현일	2017.01.01. ~ 2019.12.31.	29
5대	삼재호	2020.01.01. ~ 2022.12.31.	22
6대	오세웅	2023.01.01. ~ 현재	22

### 12. 안흥여성의용소방대



대장 박미선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11	1	0	0	1	9
사무실	관설	사실	주소	황성군 안흥면 안흥로 33-1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김정자	2010. ~ 2011. 12. 31.	30
2대	전옥화	2012.01.01. ~ 2017. 12. 31.	25
3대	최미향	2018.01.01. ~ 2022. 12. 26.	21
4대	김옥화	2024.01.01. ~ 2024.02.06.	10
	공석	2024.02.07. ~ 2025.03.31.	
5대	박미선	2025.04.01. ~ 현재	11

### 13. 강림남성의용소방대



대장 이철호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3	1	1	3	6	12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강림면 태종로 50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정하식	1953 ~ 1964	30
2대	이세희	1964 ~ 1971	30
3대	김상억	1971 ~ 1978	30
4대	함재구	1978 ~ 1981	30
5대	한경수	1981 ~ 1983	30
6대	맹준섭	1983 ~ 1988	30
7대	손호선	1988 ~ 1995	30
8대	고금출	1995 ~ 1998	30
9대	오인환	1998 ~ 2001. 12. 31.	30
10대	정영길	2002. 01. 01. ~ 2008. 01. 31.	30
11대	장상욱	2008. 02. 01. ~ 2014. 01. 21.	25
12대	전찬수	2014. 01. 22. ~ 2019. 12. 31.	22
13대	이철호	2020. 01. 01. ~ 현재	23

### 14. 강림여성의용소방대



대장 허정민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2	1	1	3	5	12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강림면 태종로 50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장주옥	2009 ~ 2014	30
2대	정성자	2015. 01. 01. ~ 2017. 12. 31.	30
3대	김성미	2018. 01. 01. ~ 2024. 01. 01.	25
4대	허정민	2024. 01. 01. ~ 현재	22

### 15. 공근남성의용소방대



대장 김대섭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6	1	1	3	6	15
사무실	관설 ○	사실	주소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30-5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김용배	1945 ~ 1981	30
2대	이인영	1981 ~ 1987	30
3대	리상혁	1987 ~ 1993	30
4대	우재걸	1993 ~ 1996	30
5대	이승태	1997 ~ 2001	30
6대	이창규	2001 ~ 2005	30
7대	최삼규	2005 ~ 2008	30
8대	정창섭	2009. 01. 01. ~ 2011. 02. 28.	30
9대	허승	2012. 01. 01. ~ 2013. 12. 31.	30
10대	경규훈	2015. 01. 01. ~ 2020. 12. 31.	29
11대	이용기	2021. 01. 01. ~ 2023. 12. 31.	27
12대	김대섭	2024. 01. 01. ~ 현재	26

### 16. 공근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윤순희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17	1	1	3	6	6
사무실	관설 ○	사실	주소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30-5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이재완	2008. 01. 01. ~ 2010. 12. 31.	30
2대	이재완	2011. 01. 01. ~ 2013. 12. 31.	28
3대	이상순	2014. 01. 01. ~ 2016. 12. 31.	22
4대	이종란	2017. 01. 01. ~ 2019. 12. 31.	23
5대	이종란	2020. 01. 01. ~ 2022. 12. 31.	23
6대	윤순희	2023. 01. 01. ~ 현재	17

### 17. 서원남성의용소방대



대장 김종길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9	1	1	3	6	18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서원면 서원로 164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30
2대	서명식	1963 ~ 1972	30
3대	이찬영	1991 ~ 1993	30
5대	김학춘	1993 ~ 1994	30
6대	이정윤	1994 ~ 1997	30
7대	이정윤	1997 ~ 2001	30
8대	원남식	2001 ~ 2003	30
9대	원남식	2003 ~ 2006	30
10대	원용석	2006. 12. 1. ~ 2009. 12. 31.	31
11대	원용석	2010. 1. 2. ~ 2012. 12. 31.	33
10대	한승달	2013. 1. 2. ~ 2016. 12. 31.	32
11대	한승달	2017. 1. 2. ~ 2019. 12. 31.	30
12대	정대용	2020. 1. 2. ~ 2022. 12. 31.	32
13대	정대용	2023. 1. 2. ~ 2024. 12. 31.	33
14대	김종길	2025. 1. 1. ~ 현재	29

### 18. 서원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김현주

####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18	1	1	3	5	7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서원면 서원로 164	
	○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윤은숙	2009. 01. 02 ~ 2015. 12. 31.	20
2대	원신자	2016. 01. 02. ~ 2018. 12. 31.	20
3대	권선녀	2019. 01. 02. ~ 2024. 12. 31.	20
4대	김현주	2025. 01. 02. ~ 현재	18

19. 유현지대의용소방대



대장 조기현

조직 구성 현황 >>

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
20	1	0	3	6	10
사무실	관설	사설	주소	황성군 서원면 유현리 572-2	
		○			

역대 대장 현황 >>

구분	성명	재임기간	대인원
초대	권기원	1992 ~ 1998	20
2대	허진규	1999 ~ 2004	20
3대	김정수	2005 ~ 2010	20
4대	한상태	2011. 01. 02. ~ 2017. 12. 31.	20
5대	최광석	2018. 01. 02. ~ 2023. 12. 31.	20
6대	조기현	2024. 1. 1. ~ 현재	20

# 재난 속 든든한 동행(현장활동 지원)

2011.03.03.  
주택 화재 지원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2011.03.13.  
주택 화재 지원  
(황성군 청일면)

2011.06.17.  
실종자 수색 지원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



2012.01.25.  
공장 화재 지원

# 재난 속 든든한 동행(현장활동 지원)

2012.03.03.  
주택 화재 지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2012.06.08.  
주택 화재 지원



# 재난 속 든든한 동행(현장활동 지원)



2012.03.08.  
주택 화재 지원  
(횡성군 청일면 유평리)



2016.04.06.  
비닐하우스 화재 초기진압

2012.03.14.  
실종자 수색 지원



2020.08.20.  
춘천 의암댐 수색 지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



2012.04.19.  
산불 화재 지원  
(횡성군 강림면)



2020.04.07.  
주택 화재 출동 지원

# 한 걸음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훈련 및 캠페인 등)

2010.07.20.  
행복드림 릴레이



2010.08.17.  
화재와의 전쟁  
캠페인



# 한 걸음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훈련 및 캠페인 등)

2010.06.10.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2010.08.16.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



2011.11.29.  
산불 예방 합동훈련

2010.01.19.  
소방대상물 화재진압  
합동훈련



2011.11.29.  
산불 예방 합동훈련



2011.03.18.  
문화재보호  
화재진압훈련



2012.04.06.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 한 걸음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훈련 및 캠페인 등)

2012.05.28.  
산불예방 캠페인



2012.09.19.  
길터주기 등  
정기 캠페인



# 한 걸음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훈련 및 캠페인 등)



2012.06.01.  
제3회 횡성군의용소방대  
연합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2015.02.26.  
심폐소생술 캠페인

2012.06.06.  
제25회 강원소방기술  
경연대회(우승)



2015.03.11.  
산불조심 캠페인



2012.08.03.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2018.02.10.  
산불 예방 캠페인

# 한 걸음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훈련 및 캠페인 등)

2020.07.09.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  
정기교육



# 한 걸음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훈련 및 캠페인 등)

2023.06.09.  
제12회 횡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2022.08.09.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 전 교육



2022.10.12.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외상처치 훈련



2025.03.11.  
산불조심 캠페인



2023.03.17.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10.07.20.  
환경정리 봉사



2010.09.19.  
볼우어르신  
떡 배달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12.05.08.  
어린이날 행사 지원



2021.06.08.  
농번기 비닐씹우기 봉사



2012.05.08.  
어버이날 행사 지원

2011.12.01.  
연탄배달 봉사



2012.05.24.  
모내기 봉사활동



2012.04.27.  
섬강변 청소봉사



2012.09.15.  
집수리 봉사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12.11.16.  
불우이웃 김장 나눔 봉사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16.01.25.  
동절기 저소득  
층 난방연료지  
원 봉사



2016.03.17.  
다문화 가정 김  
장 봉사



2012.12.24.  
청일면 동계 불조심 캠페인



2016.03.17.  
취약계층  
만두 나눔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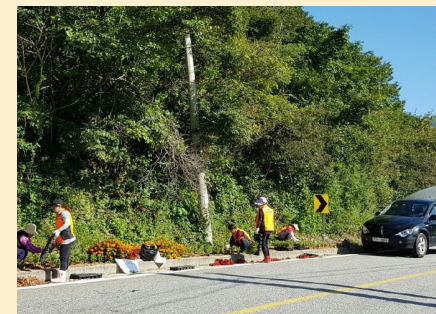
2013.02.26.  
달맞이행사 지원



2016.10.13.  
어르신 목욕봉사



2014.05.15.  
은빛대학  
노인 식사 제공  
봉사활동



2017.09.13.  
도로 화단조성 봉사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17.12.19.  
독거노인 이미용봉사



2018.09.14.  
화재발생 가구 피해복구



2018.03.26.  
독거노인 주택 청소 봉사



2018.10.05.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2018.03.30.  
횡성 관내 시가지 물청소



2019.03.27.  
도로 및 하천  
쓰레기 수거



2018.08.12.  
지역 축제장  
홍보버스 운영



2020.08.04.  
버스 미운행에 따른  
지역 희망버스 운행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20.08.06.  
산사태 피해 가정 봉사활동



2020.08.25.  
코로나19 공공장소  
방역 활동

2020.11.17.  
이웃주민 김장봉사



2022.09.20.  
자연환경 보전  
캠페인

# 나눔으로 피어나는 안전한 공동체(봉사활동)

2023.01.14.  
독거노인가구 반찬나눔



2023.03.17.  
시가지 환경정리 활동

2023.04.18.  
독거노인가구  
행복나눔 세탁 봉사



2023.08.25.  
지역 축제 의료지원 봉사활동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2024.01.18.  
2024년 1분기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2024.01.26.  
횡성수난전문의용소방대  
이취임식

2024.02.03.  
독거노인 행복나눔 반찬  
봉사활동



2024.02.17.  
2024년 상반기  
횡성의용소방대연합회  
문화탐방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2024.02.28.  
마을주민 대상 교육봉사



2024.03.21.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2024.04.17.  
안흥의용소방대  
시가지 물청소



2024.04.25.  
강림면민 체육대회  
체험부스 운영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2024.04.25.  
서원여자의용소방대  
어르신 세탁봉사



2024.05.30.  
제13회 횡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2024.04.26.  
청일면민 체육대회  
체험부스 운영



2024.06.27.  
청일면 어르신  
행복 나들이 봉사

2024.04.28.  
정금리 회가지소리  
체험부스 운영



2024.07.08.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



2024.05.07.  
어버이날 행사  
교통약자 차량지원  
봉사활동



2024.07.09.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2024.07.16.  
취약계층  
노후기름보일러 교체



2024.09.29.  
제32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봉사활동



2024.07.26.  
투데이 부모데이  
봉사활동



2024.10.11.  
안흥찐빵축제  
체험부스 운영

2024.07.31.  
제9회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시연회



2024.10.16.  
황성읍  
남녀의용소방대  
특별교육



2024.08.06.  
주택화재 현장지원



2024.10.23.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2025.01.25.  
갑천 산림 화재



2025.02.14.  
산림인접  
피난약자시설 대상  
대피훈련



2025.01.25.  
독거노인  
설 명절 위문 방문



2025.03.19.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2025.02.11.  
의용소방대연합회  
정월대보름 행사  
봉사활동



2025.03.22.  
이웃과 함께하는  
도란도란 말벗봉사



2025.02.12.  
둔내산악전문의용소방대  
소방안전 봉사활동



2025.03.24.  
우천면 환경정화활동

# 멈추지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안전의 동반자(2024~현재 활동)

2025.03.24.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활동



2025.04.01.  
106주년  
4.1 황성군민 만세운동  
기념 행사

소방청 심볼



주위를 예방·경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새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는 소방청을 상징

새매	방수모	무궁화	햇불	리본	육각수	관창
우리나라 전통 깃새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방과 경계, 용맹 상징	안전한 안전상징	소방청의 대표성 상징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소방활동 상징	소방청의 단합 상징	많은 소방용수와 투명한 신념의 소방청 의미	소방본부의 대표장비로 소방청의 정체성 상징

소방 계급

계급장				
소방사 消防士 Firefighter	소방교 消防校 Senior Firefighter	소방장 消防長 Fire Sergeant		
업무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구조·구급대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			
의미	육각수는 많은 소방용수와 투명한 신념을 의미관창과 소방호스가 육각수를 받들고 있는 형태			
계급장				
소방위 消防尉 Fire Lieutenant	소방경 消防警 Fire Captain	소방령 消防領 Deputy Fire Chief	소방정 消防正 Fire Chief	
업무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서 내근 실무자	119안전센터장소방서 계장	소방청 계장급소방서 과장	소방청 과장급소방서장
의미	6개의 육각수가 국가와 국민을 의미하는 태극문양을 둘러싼 형태			
계급장				
소방준감 消防准監 Chief Superintendent	소방감 消防監 Assistant Fire Commissioner	소방정감 消防正監 Deputy Fire Commissioner	소방총감 消防總監 Fire Commissioner	
업무	시·도 소방본부장소방청 과장	시·도 소방본부장소방청 국장	서울/부산/경기 소방본부장소방청 차장	소방공무원의 수장소방청장
의미	6개의 물방울을 모아 희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별로 형상화한 형태국민 생활안전의 길잡이라는 소명의식과 소방가족에게 희망의 빛이라는 의미			



## 읽을거리

### 횡성소방서의 과거

# 불의 기원

#### 가. 불은 문명의 시작이자, 재난의 시작이었다

손에 쥘 불꽃 하나가 긴 밤을 물리치고, 생고기를 익혔으며, 집단을 하나로 모이게 했다. 불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최초의 착각이자, 문명이 시작된 첫 불씨였다. 그러나 야수는 언제나 야수였다 불은 늘 인간의 곁을 맴돌며, 감탄과 공포를 함께 안겨주었다. 어제의 온기였던 불은 오늘의 재앙이 될 수 있었고, 작은 불씨 하나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난으로 변모했다. 우리는 불을 통해 문명을 쌓았고, 불을 통해 그것을 잃기도 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을 사랑하면서도, 늘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 나. 고대의 불: 경의와 통제의 시작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한 시점은 약 100만 년 전. 하지만 그 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얻은 자연의 파편이었다. 벼락이 나무를 태운 자리에서, 웅암이 지나간 황폐한 땅에서, 인간은 불씨를 주워 들었다.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불을 옮긴 것이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

불을 피우는 기술이 생기고, 인간은 처음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감각은 곧 두려움과 함께였다.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불은 언제나 제멋대로였다. 한 번 튀 불씨는 움막을, 마을을, 때론 문명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불을 신성시했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주었고, 그 대가로 끝없는 고통을 받았다. 그 상징은 명확하다. 불은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신의 권한이었다.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불과 일종의 계약을 맺었다. 편의를 얻는 대신, 절제를 지킬 것. 따뜻함을 누리는데 대신, 경계를 잊지 말 것. 그 오래된 계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 다. 조선, 불을 다스리는 나라

조선은 불과 공존하는 법을 행정으로 정리한 나라였다. 그 중심에는 '금화(禁火)'라는 개념이 있었다. 말 그대로 불을 금지하고, 불을 관리한다는 뜻. 도시 전체가 목재로 지어진 조선의 수도 한양은 단 하나의 불씨만으로도 성곽 안을 모두 태울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도시 설계부터 불을 고려했다. 우물의 배치, 풍향에 따른 거리 배분,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밤 9시가 되면 온 도시의 불을 끄는 제도 - '파루(罷漏)'였다. 종을 28번 울려 저녁을 알리고, 불씨를 꺼야 할 시간임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불씨를 끄는지 확인하는 '화장(火長)'이라는 역할도 있었다. 말단 행정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도시의 안녕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였다. 조선은 또 다른 제도로 '금화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오늘날로 치면 소방서 겸

소방청과 같은 조직으로, 화재 예방과 진압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기록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나면 '멸화군'이라 불리는 소방대가 동원되었고, 주변 주민들도 동원되어 집단으로 불을 끄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조선은 단순한 소방 활동을 넘어서, 불을 '문화'와 '제도'로 통제하려 했던 나라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방 소방'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불조심 계몽'이 이뤄지던 이 모습은 오늘날의 '불조심 강조의 달'과도 맞닿아 있다.

#### 라. 한국 소방의 태동:

##### 민간 자율에서 공공 조직으로

##### 불을 막는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을의 일'이었다

소방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불을 끄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본능적인 의무였다. 집집마다 모래주머니를 두었고, 물동이와 삽은 마당 한켠에 늘 준비되어 있었다. 불이 나면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서로의 지붕 위에서 물을 뿌리고 불길을 막았다. 이것이 소방의 시작이었다.

##### 형식적 제도의 등장, 일제강점기의 소방

20세기 초, 일제는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방대'를 조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인 소방 활동은 억제되었고, 주로 일본인 거주지 중심의 형식적인 조직만 유지되었다. 그 시기에도 각 지역의 마을에서는 비공식적인 '화재 진압반'이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강원도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전신이라 할 만한, 마을 어른들과 청년들 중심의 '자율 진화 조직'이 실제로는 더

큰 역할을 했다.

##### 산업화와 함께 달린다:

##### 1970~80년대 소방의 전환기

진정한 의미의 '공공 소방'은 해방 이후 다시 태동했다. 하지만 초기에는 경찰 조직의 한 부서에 불과했다. 소방관은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 장비도, 인력도, 법도 부족했다. 그저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정도였다.

전환점은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왔다. 공장이 늘고, 고층 건물이 생기며, 도시가 밀집되자 화재의 피해도 커졌고, 이에 따라 전국에 '소방서'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소방공무원 제도가 정비되면서 비로소 '전문직으로서의 소방관'이 제도 안에 자리 잡았다. 그전까지는 생업을 병행하던 자원봉사자 수준이 많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직업'이자, 훈련되고 조직된 재난 대응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 시행착오와 발전, 그리고 오늘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장비 부족, 출동 지연, 열악한 처우 등 숏한 문제가 이어졌고, 그 속에서도 소방관들은 '되는 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켰다. 90년대 이후,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지역 소방 조직이 강화되었고, 각 시군 단위의 소방서가 생겨나며 '지역 밀착형 소방'이 가능해졌다. 강원도의 산불 대응 체계도 이때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현장 경험이 많은 베테랑 소방관들이 있었다. 오늘날의 소방은 단순히 불을 끄는 기관이 아니다. 구조, 구급, 예방, 교육, 재난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 재난 대응 기관'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은 모두,

누군가의 작은 '불 끄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저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정도였다.

#### 마. 강원도의 불, 그리고 횡성의 기억

강원도는 매년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로 많은 피해를 겪어온 지역이다. 척박한 산악 지형과 건조한 기후, 그리고 봄철 강풍은 불길의 속도를 배가시킨다. 이로 인해 화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위험하는 재난으로 다가온다.

특히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축사와 계사처럼 가연성 물질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곳들이 모여 있는 강원도 특성상, 특별한 화재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횡성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횡성에서도 산업단지와 축사시설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왔으며, 그때마다 지역 소방의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단순한 진압을 넘어, 사전 예방과 구조, 복구까지 이어지는 소방의 역할은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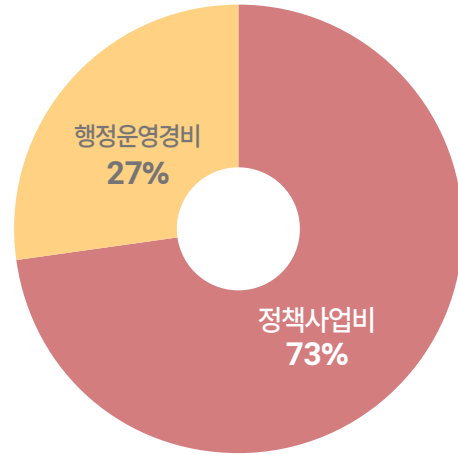
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따뜻함이 될지, 위협이 될지는 그 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소방의 역할은 바로 그 경계에서, 인간을 지켜내는 것이다.

<sup>1</sup>화장 : 밤에 순찰을 돌며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sup>2</sup>금화도감 : 조선시대의 화재 예방과 진압을 담당했던 관청으로, 세종 8년(1426년)에 설립

### 03. 일반 현황

#### 예산

##### ■ 예산



구분	총예산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금액(천원)	958,929	697,608	261,321
비율(%)	100	73	27

#### 관할

##### ■ 관할

■ 1읍 8면 176리

구분	계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면적 (km <sup>2</sup> )	998	72.42	94.8	96.44	127.95	123.57	133.9	129.21	123.37	96.34
인구 (명)	46,247	20,673	4,372	3,162	5,959	2,472	2,386	3,430	2,038	1,755
가구 (세대)	24,095	9,686	2,439	1,589	3,275	1,496	1,444	1,967	1,135	1,064

☞ 소방공무원(1인당) 담당관할 : 면적(4.6km<sup>2</sup>), 인구(216명), 가구(112세대)

#### 안전센터별 관할 구역

##### ■ 안전센터별 관할 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구	면적
횡성센터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57	횡성읍, 갑천면	23,145명	195.99km <sup>2</sup>
둔내센터	횡성군 둔내면 고원남로 42	둔내면, 청일면	8,345명	261.85km <sup>2</sup>
우천센터	횡성군 우천면 서동로 199	우천면, 안흥면, 강림면	9,289명	287.58km <sup>2</sup>
공근센터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30-5	공근면, 서원면	5,468명	252.58km <sup>2</sup>

주요 장비  
및 시설  
(황성)

소방장비

총계	펌프		구급차			굴절	화학	고가차	경형	배연·조명	물탱크	행정차	구조차	산악·수난	지휘차	진단차	순찰차	기타					
	소형	중형	대형	일반	특수	중환자	28M												일반	고성능			
43		9				9		1	1			1	1	1	1	3	3	1	2	1	4	1	5

소방정보통신장비

통신장비(대)			전산장비(대)		
무선통신	유선통신	통신회선	행정용	긴급구조용	PC
			L3,2스위치	L2스위치	
356 (재난망 포함)	183 (전화, 방송, 지령, CCTV)	53 (행정, 일반, 전용)	29	20	97

무선통신장비

합계		중계국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		원격국		휴대폰	위성전화
무선국수	장비대수	무선국수	장치수	무선국수	장치수	무선국수	장치수	무선국수	장치수	무선국수	장치수	장비대수	장비대수
152	173	2	2	3	3	42	42	101	101	3	6	16	2

중계소

호출부호	설치장소	주소	무선국수	장치수	설치연도	기기모델명
소방태기산	태기산	황성군 둔내면 태기산 (평창군 경강로 산2-7)	1	1	2019	MD-788
소방국사중계	국사봉	황성군 황성읍 옥동리 국사봉	1	1	2018	MD-788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분	합계 (144대)	행정과 (10대)	총괄과 (12대)	대응단 (15대)	황성 (26대)	둔내 (22대)	우천 (29대)	공군 (21대)	구조대 (9대)
스마트폰형	58	11	10	1	9	8	11	8	
무전기형	59	1	2	8	12	8	11	10	7
복합단말형	66	1		8	15	11	15	8	8
탁상형	1			1					

소방용수시설

구분	총계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 소화전함	비상 소화기함
		지하식	지상식				
계	315	0	274	0	0	37	4
황성읍	143	0	114	0	0	25	4
갑천면	13	0	10	0	0	3	0
공근면	23	0	22	0	0	1	0
서원면	12	0	11	0	0	1	0
둔내면	29	0	29	0	0	0	0
청일면	12	0	12	0	0	0	0
우천면	52	0	48	0	0	4	0
안흥면	22	0	20	0	0	2	0
강림면	9	0	8	0	0	1	0

소방대상물

구분	전체	황성			갑천			둔내			청일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5,730	2,057	1,658	399	1,001	648	353						
공동주택	28	23	23	0	5	5	0						
근린생활	1,836	820	707	113	353	256	97						
문화집회	36	12	10	2	4	3	1						
종교시설	63	22	15	7	13	11	2						
판매시설	4	3	3	0	0	0	0						
운수시설	8	3	3	0	4	4	0						
의료시설	4	3	3	0	0	0	0						
교육연구	89	24	15	9	24	12	12						
노유자	186	80	60	20	33	23	10						
운동시설	31	12	12	0	8	5	3						
업무시설	232	83	65	18	49	32	17						
숙박시설	76	27	21	6	32	32	0						
공장	277	54	52	2	30	14	16						
창고시설	777	215	160	55	170	101	69						
위험물저장	66	25	22	3	15	12	3						
항공기자동차	24	20	19	1	2	2	0						
동식물관련	1,804	528	368	160	226	110	116						
분뇨및쓰레기	32	17	16	1	2	2	0						
교정및군사	4	3	3	0	0	0	0						
방송통신	8	3	3	0	3	2	1						
발전시설	2	0	0	0	1	1	0						
장례식장	2	2	2	0	0	0	0						
지하가	16	4	4	0	3	3	0						
문화재	7	3	3	0	1	0	1						
복합건축	81	57	57	0	11	10	1						
기타	37	14	14	2	12	8	4						

	우천	안흥	강림	공근	서원		
계	1,469	838	373	258	1,203	725	478
공동주택	0	0	0	0	0	0	0
근린생활	403	260	92	51	260	146	114
문화집회	11	4	4	3	9	6	3
종교시설	14	7	6	1	14	8	6
판매시설	1	1	0	0	0	0	0
운수시설	1	1	0	0	0	0	0
의료시설	1	0	0	1	0	0	0
교육연구	22	11	5	6	19	11	8
노유자	42	23	12	7	31	21	10
운동시설	2	2	0	0	9	4	5
업무시설	60	18	25	17	40	23	17
숙박시설	12	10	1	1	5	0	5
공장	121	105	14	2	147	100	47
창고시설	245	115	65	65	4	3	1
위험물저장	22	13	7	2	0	0	0
항공기자동차	2	2	0	0	573	337	236
동식물관련	477	249	130	98	573	337	236
분노및쓰레기	9	6	3	0	4	2	2
교정및군사	1	1	0	0	0	0	0
방송통신	1	0	1	0	1	0	1
발전시설	1	1	0	0	0	0	0
장례식장	0	0	0	0	0	0	0
지하가	4	0	3	1	5	5	0
문화재	1	0	0	1	2	1	1
복합건축	11	8	3	0	2	1	1
기타	5	1	2	2	6	0	6

■ 위험물 제조소 등 : 234개소

계	제조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기타
233	3	1	50	6	173

구분	전체	황성			갑천			공근		서원
		계	233	68	59	9	26	13	13	
제조소	제조소	3	0	0	0	0	0	0	0	
저장소	옥내저장소	18	5	5	0	1	1	0	0	
	옥외탱크	29	3	3	0	5	5	0	0	
	옥내탱크	25	15	13	2	4	4	0	0	
	지하탱크	36	6	6	0	11	11	0	0	
	옥외저장소	9	2	2	0	0	0	0	0	
	이동탱크	54	23	18	5	10	8	2	2	
	간이탱크	0	0	0	0	0	0	0	0	
	암반탱크	0	0	0	0	0	0	0	0	
취급소	주유취급소	50	10	8	2	13	12	1	1	
	판매취급소	2	2	2	0	0	0	0	0	
	이송취급소	1	0	0	0	0	0	0	0	
	일반취급소	6	2	2	0	0	0	0	0	

계	제조소	둔내			청일	우천				안흥	강림	군용
		44	41	3	83	56	24	3	12			
저장소	제조소	0	0	0	3	3	0	0	0	0	0	0
	옥내저장소	1	1	0	11	11	0	0	0	0	0	0
	옥외탱크	5	5	0	9	7	1	1	5			
	옥내탱크	4	4	0	3	2	1	0	0			
	지하탱크	11	11	0	16	5	11	0	0			
	옥외저장소	0	0	0	5	5	0	0	2			
	이동탱크	10	8	2	14	9	5	0	2			
	간이탱크	0	0	0	0	0	0	0	0			
취급소	암반탱크	0	0	0	0	0	0	0	0			
	주유취급소	13	12	1	18	11	6	1	2			
	판매취급소	0	0	0	0	0	0	0	0			
	이송취급소	0	0	0	0	0	0	0	0			
일반취급소	0	0	0	4	3	0	1	0				

■ 목조문화재 : 7개소

번호	지정별	대상명	소재지	관리자
1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5호	옥절러	황성군 공근면 매곡리 산11	황성군 문화관광과
2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9호	풍수원성당	황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	''
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6호	태종대	황성군 강림면 강림리 2116-3	''
4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7호	운암정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산7-2	''
5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황성향교	황성군 황성을 읍상리 128	''
6	전통사찰 14호	봉복사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 138	''
7	전통사찰 15호	보광사	황성군 황성을 남산리 산16-5	''

■ 중점관리대상 : 11개소

구분	지역	계	숙박시설		노유자	공장	복합건물	판매시설 (10,000㎡이상)			문화 및 집회	기타
			3층이상 객실 100실 이상	다중이용 업소이고 객실30실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15,000㎡ 이상	5층이상 15,000㎡ 이상		
		11	2		2	4		1			1	1
	황성읍	4			2			1			1	
	둔내면	2	1			1						
	우천면	5	1			3						1

순번	대상명	대표자 (연전 관리자)	위치	연면적 (㎡)	바닥면적 (㎡)	층수	동수	해당 층	소방시설	비고
1	웰리힐리파크	민영민 (윤영진, 함영주)	둔내면 고원로 451	170,882	13,588.64	17/1	29	전층	소, 자담, 옥소, 완, 유, 연결살수, 비상, S/P	숙박
2	황성시네마	황성군수 (민준식)	황성읍 입들서3로 6	2,253.25	1,080.88	2/1	1	전층	소, SP, 비상벨, 비상방송, 자담, 시각, 제연	다중 (문화협회)
3	골든 프레스트 요양원	임형민 (정인섭)	황성읍 태기로 153-10	2,999.9	1310.5	2/1	1	전층	소, 옥소, 자담, S/P, 비상벨, 속도, 유도등, 구조대	노유자
4	황성시장	황광열 (김남현)	황성읍 읍상서로5번길 34	7,557.2	7001	3/0	1	전층	소, 유, 연결살수, 비상소화 장치, 비상조명등, 자담	판매
5	(주)국순당	배중호 (곽호규)	둔내면 강변로 975	41,371.4	21,733.80	3/1	8	전층	자담, 옥소, 옥외소, S/P, 비상방송	공장
6	민족사관 고등학교	한민위 (최경중)	안흥면 봉화로 800	37,181.69	13,549.08	12/1	21	전층	자담, 비상방송, S/P, 옥소, 완강기, 연승, 연살	기타 (교육연구)
7	(주) 롯데푸드 파스타리유업	김상태 (신현대)	안흥면 봉화로 790	43,329	24,047.25	4/1	28	전층	옥소, 자담, 옥외소, 비상방송, 연승	공장
8	동원시스템즈	조점근 (이세현)	우천면 상하가리541 외14	23057.11	18,667.25	2/1	5	전층	소, 유, 자담, 옥내, 옥 외, SP, 청정소화약제, 상수도, 비상방송	공장
9	황성노인 전문요양원	김선심 (김선심)	황성읍 황성로 279	2,185.39	734.49	4/1	1	전층	옥내, SP, 자담, 비상벨, 자동화재속보, 유도등	노유자
10	코레스코 치약산공도	이범석 (성현정)	우천면 전재로 254	17311.84	2,054.18	11/1	2	전층	S/P, 자담, 비상방송, 제연, 비콘, 연승	숙박
11	(주) 에스제이테크	유정근 (변성욱)	우천면 우천산업단지 60-54	12442.9	10,300.82	4	4	전층	소, 옥내, 옥외, 자담, 자 속, 비방, 유도등, 완강 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공장

## 터널

구분	계	철도터널	고속도로 터널	국도 터널	지방도 터널	기타
계	18	0	7	9	2	0

구분	계	500m 미만	500m 이상~ 1,000m 미만	1,000m 이상 ~2,000m 미만	2,000m 이상
계	18	2	12	9	2
황성읍	4		4	2	
둔내면	3	1			2
우천면	4	1	3		
공근면	7		5	2	

##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현황

연번	읍·면	지정일자	마을명(주소)	가구수	지원현황
1	황성읍	2011.06.17.(금)	황성읍 내지리	59	감지기 59개, 소화기 59개
2	둔내면	2011.06.22.(수)	둔내면 화동1리	67	감지기 67개, 소화기 67개
3	우천면	2012.02.22.(수)	우천면 하궁1리	51	감지기 51개, 소화기 51개
4	서원면	2012.02.28.(화)	서원면 옥계1리 대산마을	51	감지기 51개, 소화기 51개
5	공근면	2013.02.22.(금)	공근면 공근리 봉화마을	100	감지기 100개, 소화기 100개
6	갑천면	2013.10.29.(화)	갑천면 병지방리 당거리마을	37	감지기 37개, 소화기 37개
7	청일면	2014.02.14.(금)	청일면 초현리 새우개마을	45	감지기 45개, 소화기 45개
8	안흥면	2014.11.04.(화)	안흥면 소사1리 삼성포마을	40	감지기 40개, 소화기 40개
9	강림면	2014.11.27.(목)	강림면 부곡2리 솔거리마을	67	감지기 69개, 소화기 69개
10	둔내면	2015.10.28.(수)	둔내면 삼교1리 산채마을	50	감지기 50개, 소화기 50개
11	황성읍	2015.11.26.(목)	황성읍 정암2리	40	감지기 40개, 소화기 40개
12	둔내면	2016.11.18.(금)	둔내면 현천2리	54	감지기 54개, 소화기 54개
13	서원면	2017.07.25.(화)	서원면 유현1리	55	감지기 110개, 소화기 55개
14	청일면	2018.06.27.(수)	청일면 춘당1리	67	감지기 130개, 소화기 53개
15	서원면	2019.09.27.(금)	서원면 유현3리	75	감지기 150개, 소화기 75개
16	공근면	2020.08.13.(목)	공근면 도곡리	71	감지기 71개, 소화기 53개
17	안흥면	2021.09.07.(화)	강림면 월현1리	80	감지기 80개, 소화기 160개
18	황성읍	2022.11.30.(수)	황성읍 궁천리	30	감지기 48개, 소화기 24개

## 황성군 시민안전관리협의회 회원 현황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장	최경중	황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	343-1115	회장(공공)
2	황성대성병원	관리부장	심재철	황성군 황성읍 황성로 275	343-0901	부회장(2급)
3	신안중합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주임	윤영진	황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342-4751	회원(1급)
4	대화제약(주)	과장	신종재	황성군 황성읍 한우로 495	340-3223	회원(2급)
5	(주)소모	차장	강석동	황성군 공근면 영서로 800	342-5140	위원(2급)
6	(주)황성방재	대표	채규혁	황성군 황성읍 화성로 14	343-6117	위원(2급)
7	황성시장	사무장	김남현	황성군 황성읍 삼일로 4-2	343-9111	위원(소방공사업)
8	(주)국순당	안전과장	곽호규	황성군 둔내면 강변로 975	342-2389	회원(2급)
9	롯데웰푸드(주)	대리	신현대	황성군 둔내면 봉화로 790	340-4300	총무(2급)
10	동원센밸리CC	주임	신용호	황성군 서원면 서원서로339번길	344-5316	회원(2급)
11	벨라스톤CC	차장	엄삼용	황성군 서원면 옥계9길 124	340-9000	회원(2급)
12	(주)하나코스	주임	정규화	황성군 둔내면 덕성로 160	345-6145	회원(2급)
13	서울F&B	과장	김용기	황성군 공근면 IT밸리길 35	345-9550	회원(2급)
14	동서산업	총괄부장	박준호	황성군 공근면 영서로 160	342-1288	회원(2급)
15	웰텍(주)	이사	윤석규	황성군 한우로 755	342-6224	회원(2급)
16	웰텍(주)	사원	조원희	황성군 한우로 755	342-6224	회원(2급)

주요 장비  
및 시설  
(소방청사)

소방청사 현황

청사현황					소유권현황			취득방법			
계	소방서	구조대	안전센터	지역대	계	도	시·군	계	신축	교환	무상대부
10	1	1	4	5	10	6	4	10	6		

순번	시설명	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준공일	소유자
1	횡성소방서	횡성읍 문예로 157	1,390.92	2,706.88	10.08.27	강원특별자치도
2	횡성소방서 구조대	횡성읍 문예로 157 (임시사용승인)	399.343	872.58	23.01.11.	강원특별자치도
3	갑천119지역대	갑천면 갑천로 41	273.22	391.2	21.12.06	횡성군
4	둔내119안전센터	둔내면 고원남로 42	284.69	560.53	99.04.22	강원특별자치도
5	청일119지역대	청일면 청정로 813	156.5	312.1	14.11.05	강원특별자치도
6	우천119안전센터	우천면 서동로 199	447.45	626.7	12.06.20	횡성군
7	안흥119지역대	안흥면 안흥로 33-1	157.59	210.62	97.12.12	횡성군
8	안흥119지역대 (신축사업)	안흥면 안흥리 79 외 1	253	471	'25년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9	강림119지역대	강림면 태종로 42	300.32	372.94	17.08.27	횡성군
10	공근119안전센터	공근면 영서로 130-5	483.83	735.41	19.11.18	강원특별자치도
11	서원119지역대	서원면 서원로 164	194.95	322.26	09.02.12	횡성군



소방차량



## 04. 횡성군 주요 사건/사고

소방활동(15-16년)



소방활동(17-20년)



소방활동(21-25년)



### 01. 횡성휴게소 버스 교통사고

**일시** 2007. 02. 12. 11:00경 **장소**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강릉방향) 주차장

**내용** 횡성휴게소(강릉방향) 주차장에서 교회 신도를 태운 버스가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1대와 승용차 3개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로변 1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사망1, 부상32  
- 재산피해: 버스1대, 대형트레일러 1대, 승용차 3대

관련 사진



### 02. 횡성 블랙이글스 훈련용 항공기 추락사고

**일시** 2012. 11. 15. 10:28 **장소** 횡성읍 내지리 인근 야산 8부 능선

**내용** 횡성군에 위치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80B 블랙이글 항공기 1대가 추락하여, 조종사 32살 김 모 대위가 사망하였다. 당시 항공기에는 조종사 김 대위 혼자 타고 있었으며, 추락 당시 김 대위는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기체는 완전파손이 되었고, 사고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30여분 만에 진화되며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사망 1  
- 재산피해: 항공기 T-80B 완전파손

관련 사진



### 03. 차량화재에서 주택화재로 확대

**일시** 2014. 09. 24. 03:00경 **장소**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주택

**내용** 최초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던 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곧이어 농가주택으로 번져 주택 20m<sup>2</sup>와 차량이 소실되었다. 이 사고로 주택에 있던 어머니 이모씨가 연기를 흡입하여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고, 차 안에 있던 아들 허모씨도 연기를 흡입하였으나, 스스로 탈출하여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부상2  
- 재산피해: 16,000천원(주택 20m<sup>2</sup>, 차량1대)

관련 사진



#### 04. 중앙고속도로 43중 추돌 사고

**일시** 2015. 01. 16. 10:17 **장소** 황성군 공근면 공근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지점

**내용** 굽은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다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입다고 정차한 것을 뒤따르던 차들이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중앙고속도로에 싸리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기온이 낮아 도로가 결빙되어 있으며, 자욱하게 쌓인 안개로 인하여 시야 또한 확보가 되지 않아 연이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임신부를 포함하여 총 2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총 23명(사망자 없음)  
- 재산피해: 차량 44대

관련 사진



#### 05. 황성군 우천면 톱밥제조공장 화재

**일시** 2015. 05. 10. 04:25 **장소** 황성군 우천면 톱밥제조공장

**내용**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황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톱밥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조립식 창고 1동과 목재 200t가량이 소실되었다. 인근 원주소방서에서 물탱크 차량 1대를 지원받았으며, 목재류의 특성상 빠른 속도로 연소가 확대되어 화재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약 2억원(369m<sup>2</sup> 규모 조립식창고, 목재 200t)

관련 사진



#### 06. 황성군 우천면 플라스틱 공장 화재

**일시** 2015. 07. 25.(토) 09:13경 **장소** 황성군 우천면 우천농공단지

**내용** 우천농공단지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2층 닥트 내부에서 시작된 화재로 당시 근무중이던 작업자에 의해 최초 신고되었다. 당시 관계인은 신고접수 후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였으며, 내부 작업중이던 근로자 21명은 지상으로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153,946천원(부동산 84,773원, 동산 69,173천원)

관련 사진



#### 07. 안흥면 건축자재 창고 화재

**일시** 2017. 05. 29. 14:25경 **장소** 황성군 안흥면 안흥리

**내용** 용접작업 중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시작되어 건축자재 창고 전체로 확대되었다. 불은 보온덮개 등을 쌓아둔 창고 1개 동을 모두 태우고 3개 동을 이부 태우며 40여분만에 진화되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423,550천원(부동산 77,724천원, 동산 345,826천원)

관련 사진



## 08.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연쇄 5중 추돌 사고

**일시** 2017. 06. 22. 11:35경 **장소** 황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내용**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터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보수 공사로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공사로 터널 내 차들이 서행하는 가운데,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버스운전사는 중상을 입고, 버스승객 3명과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중상 1명, 경상 5명  
- 재산피해: 차량 6대 파손

관련 사진



## 09. 둔내면 음식점 화재

**일시** 2018. 01. 13. 18:16 **장소** 황성군 둔내면 두원리

**내용** 둔내면 두원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이 불로 인근 스키대여점 일부로 연소가 확대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관계인은 건물 뒤편 창고에서 불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인명대피와 상수도를 통한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지만, 화세가 강하여 초기진압은 불가능하였다. 현장도착 시 최성기 상태였으며, 인근 건물(스키대여점)로의 연소확대가 우려되어 연소확대 저지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약 2시간만에 완진되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365,995천원(부동산 279,810천원, 동산 86,185천원)

관련 사진



## 10. 공장화재에서 산불로 확대

**일시** 2019. 05. 02. 16:13 **장소** 황성군 서원면 유현리

**내용** 서원면 유현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연소가 확대되었다. 당시 공장화재는 30분만에 주불이 진화되었지만, 이 불은 공장 뒤편 산으로 옮겨붙으며, 헬기 2대와 인력 70여명이 투입되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피해상황

관련 사진



## 11. 산사태로 인한 매몰자 2명 구조

**일시** 2020. 08. 02. 02:00경 **장소** 황성군 강림면 월현리 주택

**내용**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물이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당시 일가족 중 81세 할머니와 11살 손녀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토사물로 인해 고립되어 있던 가족은 구조작업 50여분 만에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중상, 손녀는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2명(중상 1, 경상 1)  
- 재산피해: 주택 일부 소실

관련 사진



## 12. 가스폭발에 의한 다세대 주택 화재

**일시** 2021. 03. 21. 10:28경 **장소**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그린빌라

**내용** 황성읍에 위치한 한 4층짜리 빌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인한 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다.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주민에 따르면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고, ‘핑’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두세 차례 들렸다”고 하였다. 당시 그린빌라는 1997년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자위소방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현장까지 진입로가 왕복 1차선으로 협소한 데에 더불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 진입 및 부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고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고, 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실시 등 소방인력 부족이라는 현 실정에 맞는 현장대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11명(사망 1, 응급 3, 비응급 7)  
- 재산피해: 부동산-1개실 전소, 2개실 반소, 5개실 부분소 / 동산-승용차 및 실내 집기류 등

**동원소방력** - 장비: 29대  
- 인원: 118명(소방 80, 경찰 8, 의소대 10, 군청 20)

**관련 사진**



## 13. 학곡리 쓰레기매립장 화재

**일시** 2021. 10. 19. 04:38 **장소** 황성군 황성읍 학곡리 야외 쓰레기매립장

**내용** 황성읍 학곡리에 위치한 야외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쓰레기매립장 1,500m<sup>2</sup>가 소실되었다. 겹겹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사이로 불이 옮겨붙으며 화재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 화재는 16시간 13분 만에 진화가 되었으며,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으로 덮는 방식의 안전조치를 하였고, 인근 예방경계 순찰을 강화하여 재발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해상황** 없음(단순 쓰레기로 피해추산 X)

**관련 사진**



## 14.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사고

**일시** 2022. 08. 09. 12:54 **장소** 황성군 둔내면 현천리 주택

**내용** 둔내면 현천리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도착 당시 주택 전체가 흙속에 매몰되어 주택의 위치조차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중장비를 동원하여 구조작업을 실시하였고, 4시간 만에 구조대상자를 발견하였지만 끝내 사망하였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11명(사망 1, 응급 3, 비응급 7)  
- 재산피해: 부동산-1개실 전소, 2개실 반소, 5개실 부분소 / 동산-승용차 및 실내 집기류 등

**관련 사진**



## 15. 황성 한우축제장 정미소 화재

**일시** 2022. 9. 30. 21:29 **장소**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소재 정미소

**내용** 2022년 황성의 대표적인 축제인 한우축제가 황성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축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한 불꽃놀이에서 불발탄에 의해 축제장 인근 정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많은 인파로 인해 교통상황이 좋지 않았을뿐더러, 당시 정미소에는 대량의 벼를 보관 중이었기에 화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많은 난관을 겪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1명(경상 1)  
- 재산피해: 금16,200천원(창고 2개동, 트럭 4대, 벼 14t, 부대시설 등)

**관련 사진**



## 16. 횡성휴게소 상가 차량 들진 사고

**일시** 2022. 9. 30. 21:29 **장소** 횡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강릉방향

**내용** 횡성휴게소(강릉방향) 상가로 승합차량이 들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상가 앞에 있는 초록색 헨스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2명이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중 1명이 병원으로 이동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당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을 포함하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8명(사망 1, 부상 7)

**관련 사진**



## 17. 공군 KA-1 경공격기 추락

**일시** 2022. 12. 26. 11:40 **장소** 횡성군 횡성읍 목계리

**내용**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탑승 중이던 조종사 2명은 자력탈출에 성공하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식이 명료하였다. 당시 추락한 경공격기는 목계리 일대 밭으로 추락하였으며, 민가와는 300m, 인근 초등학교와는 50m 거리에 불과하여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우려와 달리 다행히도 민가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전투기 1대

**관련 사진**



## 18. 우천면 양계장 화재

**일시** 2023. 01. 06. 18:13 **장소**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내용** 횡성군 우천면 소재의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닭 26,000여마리가 폐사하였으며, 약 3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 당시 겨울철 양계장 난방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금34,000천원(양계장 2동, 닭 26,000여 마리)

**관련 사진**



## 19. 우천농공단지 육가공 공장 화재

**일시** 2023. 02. 18. 04:40 **장소** 횡성군 우천면 우천제2농공단지

**내용** 우천제2농공단지에 위치한 한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횡성군에서 유망기업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최성기 상태였으며, 13t 규모의 LPG가스용기 및 액화산소 등 위험물에 대한 우선 이동조치 및 연소확대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거센 화세로 인해 05:00경 대응 1단계, 05:39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최초 신고부터 초진까지 약 4시간, 완전까지는 30여 시간이 소요되었다. 철골구조물로 지어진 공장의 특성상 구조물을 일일이 견어내며 작업을 해야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화재진화 후에 바라본 현장은 철근 골재와 철재가 화재로 인해 휘고 그물러 전정터를 방불케 했으며, 당시 공장직원 320여명에 대한 처우에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사고로 횡성소방서는 관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일정규모 이상 대상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화재 재발방지에 노력하였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약 300억원(8,000m²규모 생산시설 등)

**동원소방력** - 장비: 45대  
- 인원: 178명

**관련 사진**



## 20. 주택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12마리의 강아지

일시 2023. 06. 02. 09:13

장소 황성군 공근면 창봉리

내용

황성군 공근면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성기였다.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산 인근에 있던 주택이었기에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하였다. 화세가 조금 거치고, 주택 내부에서 킁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시 현장대응단장과 구급대원은 건물의 붕괴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주택 내부에 있던 강아지 12마리를 구조하였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중상 1명, 경상 5명  
- 재산피해: 차량 6대 파손

관련 사진



## 21. 목계농공단지 사료공장 화재

일시 2023. 08. 06. 19:41

장소 황성군 황성읍 목계농공단지

내용

목계농공단지에 위치한 한 사료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대응1단계가 발령되었고, 약 1시간 40분만에 진화되었다. 여름철 창고에 쌓여있던 사료와 기름에서 자연발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이후 공장 관계자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금160,000천원(창고 1개동, 부대시설 등)

관련 사진



## 22. 아파트 화재-1

일시 2024. 01. 18. 09:16

장소 황성군 황성읍 복천리

내용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최초 출동을 하였다. 당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한눈에 보기에 검은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아파트 주민 대피유도와 인명검색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19명이 대피하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진압에는 40분가량 소요되었다. 당시 아파트의 노후로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이 터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 화재를 계기로 관내 아파트 소방설비 점검을 강화하였다.

동원소방력

- 장비: 19대(소방 13, 유관기관 6)  
- 인원: 60명

관련 사진



## 23. 겨울철 저수지에 빠진 강아지 구조

일시 2024. 02. 13. 13:27

장소 황성군 공근면 오원저수지

내용

해빙기에 얼음이 녹기 시작한 우천면 오원저수지에 강아지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빙판 구멍에서 탈출하기 위해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 등을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였고, 이내 얼어있는 저수지에 몸을 던져 무사히 구조를 하였다. 이에 박순걸 서장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안전하게 구해 다행이며,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였다. 또한 언론보도로 이 사고를 접한 국민들이 칭찬의 글을 게재하는 등 응원의 글을 전하였다.

관련 사진



## 24. 아파트 화재-2

일시 2024. 02. 26. 01:30

장소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내용

모두가 잠에 든 시간.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상층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호실의 내부에는 다량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다소 시간이 걸려 약 1시간만에 진화되었다. 이 사고로 144세대 200여명이 대피하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순걸 서장님은 소방 활동 검토회의를 진행하며 “아파트 화재는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초동대처가 중요하며,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유사한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피해상황

- 장비: 20대(소방 13, 유관기관 6)  
- 인원: 81명

관련 사진



## 25. 황성휴게소 3중 추돌사고

일시 2024. 05. 18. 21:10

장소 황성군 안흥면 영동고속도로 황성휴게소 강릉방향

내용

한 승용차가 황성휴게소 출구에 정차해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사고이다. 해당 차량은 충돌 이후 임야로 돌진한 후 멈출 수 있었고,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피해상황

- 인명피해: 5명(사망 1, 경상 4)  
- 재산피해: 차량 4대 파손

관련 사진



## 26. 남산리 고물상 화재

일시 2024. 09. 03. 13:07

장소 황성군 황성읍 남산리

내용

황성읍 남산리에 위치한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이 고물상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었고, 원생들이 상주해있을 시간대였다. 당시 화재로 인해 인근으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원생 등 15명이 대피하였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약 2시간 가량의 사투 끝에 진화되었다.

동원소방력

- 장비: 18대  
- 인원: 38명

관련 사진



## 27. 청일면 실종자 수색

일시 2024. 11. 01. 23:08

장소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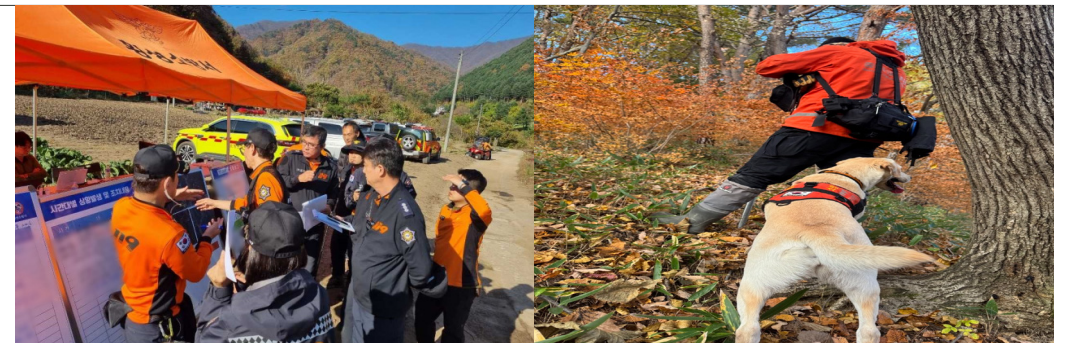
내용

2024. 11. 1. 23:08경 별통을 확인하려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1차로 별통이 위치한 산 일대와 자택 주변까지 수색범위를 점차 넓혀 나갔다. 1일차에는 시간이 늦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고 2일차 07:00경 소방 비상1단계를 가동하여,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수색반경을 넓혔고, 마침내 4일차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종자는 자택에서 3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태였다.

동원소방력

- 장비: 59대  
- 인원: 282명 (소방 81, 경찰 32, 군 35, 군청 78, 의소대 23, 마을주민 33)

관련 사진



## 05. 지역사회 공헌 활동

### 1.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저소득 가구 연탄 봉사(2014.12.29.)

횡성소방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1-1. 지속 가능한 나눔 실천

우리 소방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설과 추석 명절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대상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릴레이 헌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 자제와 헌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헌혈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횡성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릴레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응급환자와 혈액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 올려 한마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 1-2.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우리 소방서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17일, 개서 이래 최초로 공근면 초원리 저소득층 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연탄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층을 지원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과 협력하여 '독거노인 미용 봉사'와 명절 맞이 나눔봉사, 반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미용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미용 봉사 및 나눔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신체적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까지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따뜻한 횡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1-3.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반응과 사회적 가치 확산

횡성소방서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재난 대응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든든한 이웃으로서 소방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지원을 받은 주민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방관들이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명절 불우이웃 성금 전달(2013.2.6.)



헌혈 릴레이 참여(2020.10.12.)

#### 1-4. 미래지향적인 사회공헌 활동 방향

횡성소방서는 앞으로도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횡성소방서는 단순한 재난 대응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둔내 여성소대 미용봉사(2014.04.21.)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2011.5.21.)



저소득 가구 연탄 봉사(2014.12.29.)



횡성여성소대 김장봉사(2013.11.19.)

2-1. 지역축제 안전대책 수립 및 소방홍보부스 운영

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5월 횡성 호수길 축제, 8월 둔내 토마토축제, 9월 횡성 더덕축제, 10월 횡성한우축제 및 안흥 찜빵축제 등이 있으며,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소(牛)맥 축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횡성한우와 맥주를 접목한 이색적인 먹거리 축제를 선보이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횡성소방서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축제별 특성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장에는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차량을 전진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대, 가설 구조물,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성소방서는 축제장 내 소방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은 물론,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서장 한우축제 안전지도 방문(2024.9.30.)



횡성한우축제 안전체험부스 운영(2024.10.2.)

2-2. 체험과 참여를 통한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횡성소방서는 어린이 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9청소년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안전체험·봉사활동·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9청소년단은 학교 안팎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 가정 내 안전점검표 작성,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화재안전 점검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펼치며, 생활 속 안전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불조심 어린이마당 퀴즈 대회,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횡성소방서는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주 119안전체험마을, 태백 365 세이프타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화재 대피훈련, 지진 체험, 응급처치 실습 등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성소방서는 축제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119청소년단 발대식



119청소년단 안전체험마을 견학

2-3.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횡성소방서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장 운영을 통해 학교·요양원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대상 소방진로 체험 프로그램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소방관 직업체험,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 시뮬레이션, 응급처치 실습 등을 경험하며 소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성소방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교육



소방관 직업체험

2-4.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마을 안전문화 확산

횡성소방서는 원거리 농어촌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7일, 횡성을 내지리를 제1호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18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횡성소방서는 현재까지 1,252개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1,083개의 소화기를 기증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가구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4~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 이장님은 일일 안전강사'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을 지켜나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 스스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번	읍·면	지정일자	마을명(주소)	가구수	지원 현황
1	횡성읍	2011.06.17.(금)	횡성읍 내지리	59	감지기 59개, 소화기 59개
2	둔내면	2011.06.22.(수)	둔내면 화동1리	67	감지기 67개, 소화기 67개
3	우천면	2012.02.22.(수)	우천면 하궁1리	51	감지기 51개, 소화기 51개
4	서원면	2012.02.28.(화)	서원면 옥계1리 대산마을	51	감지기 51개, 소화기 51개
5	공근면	2013.02.22.(금)	공근면 공근리 봉화마을	100	감지기 100개, 소화기 100개
6	갑천면	2013.10.29.(화)	갑천면 병지방리 당거리마을	37	감지기 37개, 소화기 37개
7	청일면	2014.02.14.(금)	청일면 초현리 새우개마을	45	감지기 45개, 소화기 45개
8	안흥면	2014.11.04.(화)	안흥면 소사1리 삼성포마을	40	감지기 40개, 소화기 40개
9	강림면	2014.11.27.(목)	강림면 부곡2리 솔거리마을	67	감지기 69개, 소화기 69개
10	둔내면	2015.10.28.(수)	둔내면 삼교1리 산채마을	50	감지기 50개, 소화기 50개
11	횡성읍	2015.11.26.(목)	횡성읍 정암2리	40	감지기 40개, 소화기 40개
12	둔내면	2016.11.18.(금)	둔내면 현천2리	54	감지기 54개, 소화기 54개
13	서원면	2017.07.25.(화)	서원면 유현1리	55	감지기 110개, 소화기 55개
14	청일면	2018.06.27.(수)	청일면 춘당1리	67	감지기 130개, 소화기 53개
15	서원면	2019.09.27.(금)	서원면 유현3리	75	감지기 150개, 소화기 75개
16	공근면	2020.08.13.(목)	공근면 도곡리	71	감지기 71개, 소화기 53개
17	안흥면	2021.09.07.(화)	강림면 월현1리	80	감지기 80개, 소화기 160개
18	횡성읍	2022.11.30.(수)	횡성읍 궁천리	30	감지기 48개, 소화기 24개

### 3. 신속한 현장대응 기반 구축

#### 3-1.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모세의 기적'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재난 대응의 핵심 요소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는 발생 7분 이후부터 급격히 확산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는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에 따라 횡성소방서는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과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 등 자체적으로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주민 참여 훈련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소방차 양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소방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동주택단지 등 통행 장애 구간을 중심으로 소방차 긴급통행 훈련을 진행하며,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이 어려운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주차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성소방서는 '모세의 기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을 높이고, 긴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3-2. 마을주민의 안전지킴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 등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군 대형 산불 당시, 토성면 용촌리 주민 10명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하여 마을을 자체적으로 방어한 사례는 비상소화장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비상소화장치는 대형 화재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 인접 마을 내 소화전 설치 확대를 마을주민 초기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통해 총 10개소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비상소화장치가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점검 시 비상소화장치도 함께 점검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 및 실습 훈련을 진행하여,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3-3. 여름철 물놀이 사고 우려지역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4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여름철 황성의 아름다운 강과 계곡을 찾아오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은 매년 유동적이기는 하나 하계 휴가철이 집중되는 6월에서 8월까지 약 3개월간이며, 기상 상황과 피서객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1일 2시간(13:00~15:00) 동안 유동순찰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치 장소는 횡성군 읍하리 섬강둔치에서 감천면 병지방계곡 일원까지이며, 횡성수난전문응급소방대원 2명이 1일 2인 1조로 순환 배치됩니다. 이들은 수상·수중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익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물놀이 지역 순찰 및 피서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심폐소생술(CPR) 교육, 구명조끼 착용법 안내 등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피서객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현장 배치 전, 익수사고 안전조치, 물놀이 안전지도, 구조장비 활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로프를 활용한 수변 인명구조 기법 등 실전 중심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3-4. 산악사고 대비 안전지킴이 활동

봄·가을철은 등산하기 좋은 계절로, 횡성군을 방문하는 등산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악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일반 조난(43.4%, 10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실족·추락 사고(8건 34.7%)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악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관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청태산과 태기산을 산악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유동 순찰을 봄철(4.1~5.31.)과 가을철(9.10~10.31.)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조난·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산객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내 위치표지판 138개소, 위험경고표지판 2개소, 간이 구조·구급함 2개소에 대한 현지

#### ■ 횡성 관내 등산로 안전시설물 현황

1. 위치표지판 : 138개소(사자산 등산로 폐쇄6)

합계	어담	태기	병무	발교	봉북	운무	덕고	치악	사자	청태
138	18	31	19	20	24	4	8	8	-	6

2. 위험경고표지판 : 2개소(청태산)

3. 간이구조구급함 : 2개소(청태산)

확인 및 일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손상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구간이나 사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및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한 신고 방법을 등산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구조대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악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출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응급처치 교육 등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3-5. 펌블런스 운영을 통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향상을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전문 심폐소생술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펌블런스는 소방펌프차에 구급장비를 탑재하여, 구급차 도착 전 화재 진입대원이 신속히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급차의 부재로 인근 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될 상황을 대비해 펌블런스가 출동하여 초기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처치가 1분 지연될 때마다 생존율이 약 7~10% 씩 감소하며, 4~6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펌블런스를 활용하여 구급차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펌블런스 pump(소방펌프차)와 Ambulance(구급차)의 합성어로, 구급장비가 구비되고 구급 자격자가 배치된 펌프차를 의미하며, 구급차가 출동한 상태이거나 원거리의 경우 먼저 출동하여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실시하거나 구급차와 동시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 펌블런스를 통한 생명 구조 및 신속한 응급처치 시행 사례

- 횡성군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현장에서 펌블런스 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사례(2017.6.1.) / 펌블런스 대원 3명(정진화, 조영민, 조광희) 기사 전문 → p227
- 부처님오신날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전진배치 근무 중이던 소방대원이 심정지 환자를 신속히 응급처치하여 소방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례(2024.5.15.) / 펌블런스 대원 3명(오창훈, 김주용, 박민경) 기사 전문 → p231

#### 횡성서 심정지 40대 살린 1339직원과 펌블런스

2017.06.01 오후 2:36

1일 강원 횡성군 청태산도민체육대회가 열린 국민체육센터 경기장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산정지로 내려오는 김모씨(45)가 정진화, 조영민, 조광희(왼쪽부터) 대원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다. (횡성소방서 제공(2017.6.1)/뉴스1) © News1 박태순 기자

(횡성=뉴스1) 박태순 기자 = 강원도 횡성군 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산정지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산정지로 2017.06.01. 뉴스일보(박태순기자) 극적으로 살아났다.

#### 횡성소방서, 구급현장 초기대응 유공 소방공무원 표창

조작훈 기자 | 2024.05.21 13:29 | 5명 공감

횡성소방서는 21일 관내체육관에서 열린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명 오창훈 씨 2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횡성119안전센터 2024.05.21. 신아일보(조덕경기자)이다.

## 횡성소방서의 현재

### 배움과 감동이 함께하는 '노래로 배우는 심폐소생술 버스킹'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 몇 분. 심폐소생술(CPR)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하지만 CPR을 배우려면 어렵고 딱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익히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횡성소방서는 '노래를 통해 쉽게 배우는 심폐소생술 버스킹'을 기획했다. 시장,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방관들이 직접 나서서 음악과 퍼포먼스를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쉽게 전달한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음악과 함께하는 교육이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노래 가사에 심폐소생술의 리듬과 압박 속도를 맞추어 따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슴압박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며, 한 번 들은 노래가 머릿속에 남아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트·음악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된 심폐소생술 버스킹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모든 시민이 일상의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소방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생명을 살리는 120BPM의 기적!

### 산업현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화재 없는 우리 농공단지 #SAFE 챌린지'

공장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한 번의 화재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자재, 기계 설비, 화학 물질 등이 많아 불이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크고, 화재가 발생하면 생산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도 크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화재 없는 우리 농공단지 #SAFE 챌린지'를 추진했다. 관서장이 직접 농공단지 대표를 지목해 화재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했으며, 참여자들은 '오늘 화재예방 완료(오예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실천 내용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안전 문화 운동이다. 참여하는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가 강화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공단지 SAFE챌린지, #오늘 화재예방 완료(오예완)



#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안전만 APT 만들기' 프로젝트

아파트는 한 세대에서 불이 나면 연기와 화염이 빠르게 퍼져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층 건물에서는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횡성소방서는 '안전만 APT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주민들에게 '불이 나면 살피서 대피'라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SNS 숏폼 콘텐츠 제작 -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화재 시 올바른 대피 방법을 전달. 관계인 안전컨설팅 -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입주인 대표들과 협력하여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 지하주차장 안전 MAP 제작·배포 - 화재 발생 시 피난 경로와 소화기, 비상구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 제작.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횡성 지역의 공동주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입주인들의 화재 대응 능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앞서, 선제적 실천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됐다. 어물쩍 거릴 시간이 없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자동차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번져 차량 전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횡성소방서는 전 직원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선제적 대응을 펼쳤다. 소방관들이 “우리부터 실천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한 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이 쉽게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법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내 차 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방 소방 ‘우리 마을 이장님, 일일 안전강사’

화재 예방은 소방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더 효과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횡성소방서는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우리 마을 이장님, 일일 안전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장님들은 마을의 대표적인 리더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존재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장님들이 직접 ‘마을 안전강사’ 역할을 하면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다.

#우리동네 소방안전강사! 우리동네 소방관!



## 유관기관과 함께 만드는 안전 네트워크 ‘봄철 화재예방 SAFE 챌린지’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과 대형 화재의 위험이 크다. 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산림을 태우고, 마을과 도시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들어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적 변화와 맞물려 2025년에는 경북 의성 산불을 시작으로 안동, 영양, 영덕, 청송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불길은 넓은 지역을 태우며 산림과 농가,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와 건조한 환경 속에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횡성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 SAFE 챌린지’를 실시했다.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직접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각 기관이 함께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민들에게도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봄철 화재예방 SAFE챌린지



# II

## II . 출동, 사람들



1. 인터뷰	인터뷰1 -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인터뷰2 - 횡성소방서 소방교 전상희
2. 나도,한마디	
3. 기고문	김민혁 <화재 예방,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려로부터> 김수영 <소방관을 살리는 소방관> 김창민 <생명과의 사투, 그리고 구급대원의 사명> 설경수 <혼자가 아니다> 오명준 <2021년 봄, 나의 첫걸음> 이상훈 <감사합니다> 이수정 <횡성소방서, 군민의 곁에서> 장현우 <소방관 되는 중> 지성진 <불꽃 속에서도 지켜야 할 이름>
4. 칭찬합니다	
5. 자랑합니다	
6. 횡성소방서 이모저모	
7. 사랑하는 우리 가족	
8. 편집후기	

# 열정으로 지키고 철학으로 이끄는 리더십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횡성은 자연환경이 삶의 터전과 조화를 이루는 고장이다. 동시에 농지, 주거지, 관광지, 산업단지 등이 함께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지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공간이 한 영역에 공존하다 보니, 때때로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물론 모든 사고를 막을 수야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다.

이처럼 유연하고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횡성소방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박순걸 소방서장은 2024년 1월 부임 이후,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면밀히 살피며 그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속력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은 이제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안전 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넓혀가고 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횡성소방서장 박순걸입니다. 저는 1993년에 처음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군 제대 후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저는 단순히 자아 실현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길이 바로 소방이었습니다. 소방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화재 진압뿐 아니라 구조·구급, 예방, 행정 등 모든 활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약 31년간 화재 진압, 구조·구급, 예방 등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를 오래 맡았고, 횡성소방서장이 되기 전에는 원주소방서, 정선소방서, 강릉소방서 등 여러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하셨던 곳은 어디인가요?  
전체 경력 중 약 절반, 즉 15년 이상은 강원소방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강원도청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각 지역 소방서들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와 행정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림이 많고, 관광지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참 빼어난 곳이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강원도 홍보대사'라고 생각해요. 전국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강원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소방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으니 아까 올해로 어느덧 31년 차가 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듯해요.  
31년 가까이 소방에 몸담다 보니 이제는 뉴스에서 '소방'이라는 단어도 귀가 쫑긋할 정도로 애

정이 깊어졌습니다. 소방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조직입니다. 두 자녀와 아내를 둔 가정으로서 소방은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직장이고, 돌이켜보면 소방서장이라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큰 자부심이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방을 제 인생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방서에 계시다보니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봄철에는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왕소군이 말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처럼, 봄이 왔지만 봄답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봄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함께하는 계절입니다. 올해 3월 21일에는 경남·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과거에는 대형 산불이 영동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산불이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시 저희 횡성소방서에서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지원을 나갔습니다. 차량 2대, 인원 6명을 파견했는데, 횡성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전체 펌프차 9대 중 2대가 출동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큰 지원이었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처럼 전국의 소방서들이 서로 연대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편인가요?

전국의 소방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연대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데, 이



때 전국 각지의 소방서에서 일정 비율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움직이는 체계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서, 전국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긴장감이 따르지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책임감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재 유형이 다양해지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더욱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우선 목표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전술'이라고 불리는 현장 대응 전략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화재처럼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거나, 질식 소화포를 사용하는 등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화재 진압 전술은 현장대응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술 연구 후 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많은 편인데, 특히 5개 농공단지엔 110개 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공장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 구조 건물에 특화된 화재 진압 전술도 따로 연구해 역시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반복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소방업무라고 하면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출동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훈련과 교육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업무라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접수 후 출동하는 현장 활동만을 소방의 핵심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전문 교육입니다. 횡성 지역에서는 연간 약 1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즉, 3일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마냥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비해 계속해서 훈련과 교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횡성소방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두 개의 고속도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훈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2차 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수습 작업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응을 넘어서, 현장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 교육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나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횡성소방서에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인원 22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 5년 사이에 채용된 인원입니다. 신입 직원들은 지식이나 학력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현장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중심의 훈련을 통해 현장 감각을 키우고, 실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현장에서 전기차 화재를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거나, 에어매트를 설치해 추락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대응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소방 업무는 일반인들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상황을 우리 직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일상입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은 교통사고 현장 등 매우 참혹한 장면을 직접 보고 대응해야 할 때가 많고, 이런 환경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 차원에서 정신 건강 관리와 심리 지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심리 상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상담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병원 치료나 입원, 필요시 휴직까지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원 본인이 원해서 심리 상담을 신청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상황실 근무자들도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19 신고 전화는 대부분 극한의 긴급 상황에서 걸려오기 때문에 전화 응대를 맡는 직원들은 매 순간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상황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겪은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결국 소방이라는 직업은 눈에 보이는 현장 대응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과 정신적 충격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단순히 개인의 인내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돌보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조직운영 철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4년 1월 2일 부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직장에서만 열정을 발휘하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상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삶의 태도 자체가 활기차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삶과 업무에 대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

다. 현장 활동 중의 안전은 물론이고, 출퇴근길, 가정에서의 일상생활까지 포함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수직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수평적이고 유연한 소통 문화도 중요합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열정과 철학, 안전, 소통이 잘 실천된다면 우리 횡성소방서가 행복한 조직이 될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지역 군민들도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철'을 목표로, 횡성의 여러 기관장들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소방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장 모임에서 직접 나서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먼저 챌린지를 시작했고, 군수님, 군의장님 등 각 기관 수장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전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순회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횡성소방서의 주도로 캠페인이나 예방 활동 역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세이프 챌린지'를 진행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주자로 참여했고, 다음 주자로는 군수님을 지목했으며, 군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군 지부장님, 대성병원장님까지 여섯 분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챌린지를 이어가면서,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이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 참여하시면 각급 학교까지도 안전 메시지가 전달되는 식이죠. 그 결과 올해 봄에는 횡성 지역에서 다행히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다. 봄철에는 농가에서 부산물을 태우다가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몰래 태우는 게 습관처럼 이어졌지만, 요즘은 군청에서 파쇄 작업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태워야 할 경우엔 6월 이후처럼 건조하지 않은 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농기계 사고입니다. 경운기 등 농기계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고 없는 봄

횡성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안전대응이나 예방 활동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횡성은 고령친화도시로 선포된 지역이고, 실제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많은 것도 특징인데, 이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는 대피입니다. 입소자 대부분이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자들을 소집해 화재 대피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해당 시설을 찾아가 대피 중심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시설은 주간에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야간에는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대응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지역 내 대대급 근무대와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화재 발생 시 군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횡성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계곡이 많아서 펜션 밀집 지역도 많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도 다섯 곳이나 있고, 그 안에 110개 이상의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맞춤형 안전 대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요양시설, 펜션, 농공단지를 횡성 지역의 3대 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이곳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한 조직인데, 서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때는 정말 단합이 대단했다' 싶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소방서는 말 그대로 '한 솥밥을 먹는 사이'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함께 밥을 먹고, 밤을 같이 지새우고, 같은 공간에서 고생을 나누다 보니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팀워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직장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평소 근무 상황에서 '원팀'으로 움직이며 단합하듯, 체육대회 역시 모든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단체 줄넘기였습니다. 저도 운동 신경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기에 참여했죠. 그런데 줄넘기에 들어가지만 하면 제가 줄을 끊는 겁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네 명이 들어가 있을 때까지 잘 넘어가다가, 제가 들어가면 꼭 걸리더라고요. '혹시 내가 구멍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웃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더 웃음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뛰고, 다 함께 웃었던 그날이 저에게는 팀워크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소방서의 진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장님께 횡성은 어떤 의미의 고장인가요?

저는 횡성 청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된 후에는 강원도 전역을 두루 다녔지요. 춘천, 원주, 강릉에서도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횡성에 돌아와 근무하면서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고향, 고향 하는구나" 하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실제로 마흔 가지가 넘는 안전대책을 직접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청남아파트 화재 사례를 계기로, 횡성 내 아파트의 화재 예방 대책도 즉시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이런 열정을 지역 기관에서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군수님, 군의장님, 교육장님 등 많은 분들이 저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셔서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게는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횡성군민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고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성소방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횡성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나 구급 출동 시, 대부분 기꺼이 협조에 응해주시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급차는 4분 이내, 화재차는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작은 배려로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현장도, 교육도 결국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상희 소방교(횡성소방서)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구급차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출동하는 대원들이 있다. 현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고, 때로는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위험을 현장에서만 막을 수는 없다.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줄이는 일, 다시 말해 ‘예방’ 역시 소방의 중요한 역할이다.

전상희 소방교는 오랜 기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응급 현장을 경험했다. 현재는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에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처치 교육과 생활 안전 예방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구급 활동과 예방 교육이 결국 모두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은 교육의 현실성을 높이고, 교육에서 얻은 피드백은 다시 현장 대응에 반영된다. 이렇게 두 영역은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소방의 역할을 확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횡성소방서 대응총괄과 전상희 소방교입니다. 저는 횡성군민 여러분께 안전 교육과 생활 속 예방 정보를 전해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7년 전, 소방에 입직한 이후 오랜 기간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는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처치 교육은 물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도 공감이 되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주된 내용은 심폐소생술과 실습 위주지만,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기안전매트나 완강기 사용법 같은 대피 기구 사용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대원이지만 화재 현장에도 함께 출동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할 때는 현장 경험을 살려 설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피난층으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건물 내부보다는 야외로, 가능한 화재 현장에서 멀리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이렇듯 단순히 기술적인 사용법뿐 아니라, 실제적인 대피 방법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을 하시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판단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급 업무는 저에게 무겁지만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소방서로 실습을 나갔을 때, 심정지 환자 분을 처치하는

상황을 겪었는데, 반장님들과 함께 응급 처치를 한 끝에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감정, 그리고 그 때의 짜릿함이 소방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많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 환자는 특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중에서도 초산 산모를 이송했던 현장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산모는 이미 진통이 진행 중이었고 상태도 긴박했습니다.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려던 순간부터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산모도 초산이라 많이 불안해했고, 아기의 상태도 예측할 수 없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대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눈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환자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저 역시 엄청난 긴장 속에 처치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구급 출동 시에는 보통 구급차 한 대당 3명이 탑승합니다. 횡성센터 기준으로 보면, 세 명 모두가 응급처치 자격자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주처치자, 보조처치자로 나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에 따라 모든 인원이 함께 처치에 참여해야 할 만큼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경력이 차츰 쌓이면서 긴급한 상황도 보다 더 유연하게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부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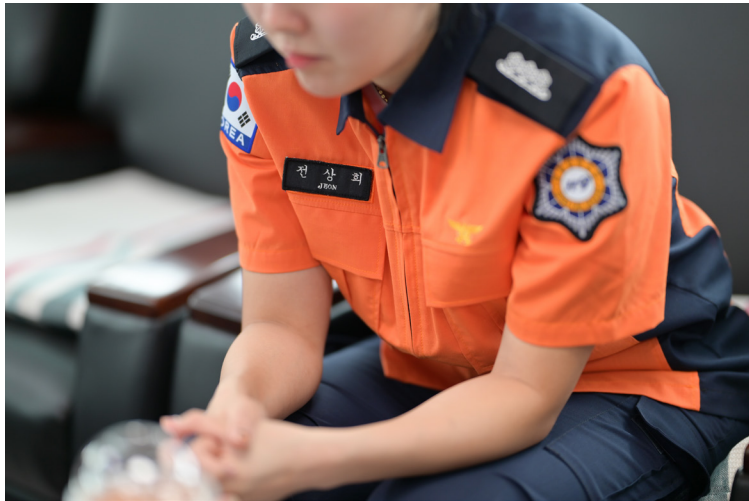
주변 상황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감에 집중이 어려웠던 것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좀 더 여유를 갖고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입 시절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하나씩 더 챙기고, 그만큼 환자에게 더 나은 처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병원 간 이송 거리가 긴 편이라,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기 처치를 마친 뒤, 구급차 안에서 추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의료진과 직접 연락하며 상의를 해요.

“이런 처치를 추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고 말씀드리면 현장 상황에 맞게 조언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응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전문 구급대원이 오시기 전에 원활한 처치를 위해 보호자 혹은 환자 본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경련이 왔을 때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예요. 경련은 갑자기 ‘스르륵’ 쓰러지는 게 아니라, 보통 몸이 뻣뻣하게 긴장되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을 경우 2차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빛이 멍해진다거나, 몸의 긴장이 느껴진다면 미리 폭신한 물건을 준비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 분들께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련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를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



주셔도, 현장 도착 후에 저희가 더 정확하게 처치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셨던 시절에 만들어진 인생의 큰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은 언제나 긴박하지만 그 안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제 삶의 기준이자, 업무를 대하는 제 자세에 깊이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만 6년을 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간이었고, 이를 레면 기력이 약해진 할머니 환자에게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시간도 저에겐 분명히 작지만 필요한 업무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처치는 무조건 한다’는 원칙이 생겼죠. 될 거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한다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방업무를 하며 군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현장과는 또 다른 보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줄 때예요. 그냥 이 복장만 입고 가도 아이들이 막 손 흔들고 인사를 해줘요. 아직 형성

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뉴스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쓰러진 엄마를 보고 119에 신고해 구조한 이야기처럼 아이들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상기하게 됩니다. 처음엔 ‘이 어린 친구들이 과연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해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정확하게 따라오기도 해요. 교육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마네킹만 봐도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 심폐소생술 할 줄 알아요!” 그럴 때마다 ‘반복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뿌듯해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교육을 할 때 예방만 강조하지는 않아요. 현장 전반을 고려해서 그 시기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있었던 모 지역 호텔 화재 사고 이후로 공기안전매트와 완강기 사용법 교육이 강조되고 있어요. 당시 이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심폐소생술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중점 내용도 조금씩 달라져요. 여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나 뱀물림, 벌 쏘임 사고, 가을철에는 농기계 사고 등 농촌지역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요양원, 군청,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



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해당 환경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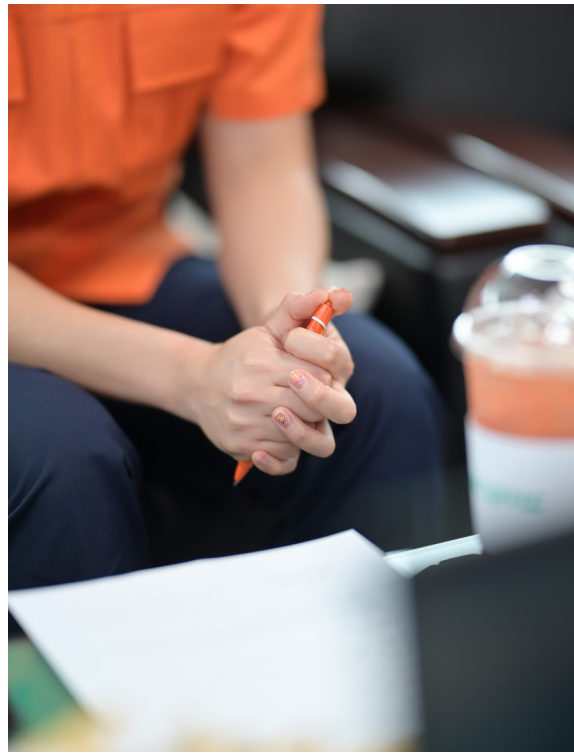
현장의 구급 경험이 지금 예방교육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히 매뉴얼이나 이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

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험이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교육 때도 그 부분을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하게 됩니다. 군민들도 ‘현장에서 봤던 분이 말하니 더 와 닿는다’고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을 TV나 뉴스로만 접하게 되잖아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달리 ‘사실은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뉴스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순간만 부각되다 보니, 구급대원이 늘 생명을 구하는 장면에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곤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복통에서부터 만성질환 관리, 고독사 우려 사례까지 훨씬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을 설득해 병원으로 모시고, 말뱀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급이 단지 응급처치만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함께 보고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시민 분

들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급대원을 '사람'이 아니라 '슈퍼맨'으로 보시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물론 부르시는 분들도 급하고 절박하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급차가 먼저 출동하더라도 탑재된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하는 일도 있거든요. 환자나 보호자도 감정이 격앙되어 있으시니



모진 말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럴 땐 정말 속상하죠.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신다면, 서로가 더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 대원들 혹은 구급대원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제가 소방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힘이 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 돌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짬'에서 나오는 여유, 감각, 판단력은 어느 순간부터 몸에 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의 몸을 잘 관리하고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일을 오래 잘 해나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생각해요.

현재는 내근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구급 현장 활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보람은 어느 쪽이 더 큰 편인가요? 현장에서 처치한 환자가 병원에서 잘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직접 소방서에 걸어 들어오셔서 '덕분에 잘 나왔다고 감사 인사'를 건네실 때면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교육 정말 유익했다", "재밌게 잘 들었다"는 말을 해주실 때 저 역시 큰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은 단 한 순간의 판단과 조치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즉각적 대응'의 영역이라면, 예방교육은 그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구급 활동은 그 자체로 막중한 사명감이 따르는 반면, 예방교육은 군민들과 마주 앉아 생활 속 안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죠. 보람의 크고 작음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현장도, 교육도 결국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방향은 달라도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소방서의 팀워크라든지, 분위기는 어떤 편인가요? 횡성소방서는 조직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입니다. 현장과 내근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도 구분 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고, 실제로도 '우리는 횡성소방서 원팀이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늘 강조하시고요. 특히 현장처럼 긴박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생길 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빈자리를 채우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조용히 제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일할 맛이 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에서 보내온 시간은 소방고민께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횡성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성장'이자 '책임'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급대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예방교육을 담당하면서, 한 지역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만큼 더 깊은 애정도 생겼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을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내 이웃'이라 생각하게 된 것도 이곳에서의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입니다. 횡성은 저를 소방인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준 곳이자, 앞으로도 늘 마음을 두고 있을 특별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당부하고 싶은 안전 수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늘 힘을 얻습니다. 지역적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친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딜 가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과하게 칭찬해주시기도 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 마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응원 해주시는 만큼, 내근이든 외근이든 어떤 자리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특히 '건강 잘 챙기세요'라는 말씀을 더 자주 드리게 되죠. 소방이라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라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도 '안전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에게 소방관이란?

횡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생각하는 소방관이란?



	소방 행정과	소방교	김도현	<b>나에게 소방관이란 “국민을 지키는 수호천사”이다.</b> 누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떠올리는 번호는 바로 119	30대
	대응 총괄과	소방교	전상희	<b>나에게 소방관이란 “화재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화재를 막는 사람”이다.</b> 예방 교육과 점검으로 화재를 막는게 더 중요하다.	20대
	대응 총괄과	소방장	이수정	<b>나에게 소방관이란 “보람과 희생이 공존하는 직업”이다.</b> 누군가를 돕기 위해 희생할 때, 그 결과가 보람이 된다.	30대
	대응 총괄과	소방장	조하나	<b>나에게 소방관이란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가족”이다.</b>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의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	40대
	현장 대응단	소방장	전경훈	<b>나에게 소방관이란 “대한민국 어벤저스”이다.</b>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30대
	현장 대응단	소방위	진두용	<b>나에게 소방관이란 “삶의 일부이자 항상 감사함의 대상”이다.</b> 내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나의 삶을 함께하고 또한 나의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50대
	현장 대응단	소방장	지창영	<b>나에게 소방관이란 “불타는 열정”이다.</b> 언제나 불타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차가운 마음으로 군민을 구하자.	40대
	현장 대응단	소방경	김대겸	<b>나에게 소방관이란 “출동과 귀소는 종이 한장 차이”이다.</b> 가정과 직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50대

	현장 대응단	소방경	엄순열	<b>나에게 소방관이란 “안전의 시작”이다.</b> 안전이 시작과 끝이다.	50대
	현장 대응단	소방장	엄선미	<b>나에게 소방관이란 “성취감을 이뤄주는 직업”이다.</b>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30대
	현장 대응단	소방교	이효신	<b>나에게 소방관이란 “신뢰”이다.</b> 위험한 현장에서 의지가 되는 동료들과의 신뢰, 국민들과의 신뢰, 사명감을 잃지 않기 위한 자신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대
	횡성센터	소방장	유지혜	<b>나에게 소방관이란 “방파제”이다.</b> 파도처럼 다가오는 재난과 재해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40대
	횡성센터	소방사	김민혁	<b>나에게 소방관이란 “등대”이다.</b>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길을 밝히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30대
	횡성센터	소방교	홍지영	<b>나에게 소방관이란 “별뿔뿔”이다.</b>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20대
	횡성센터	소방장	서경원	<b>나에게 소방관이란 “난로”이다.</b> 추위로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30대
	횡성센터	소방사	김관호	<b>나에게 소방관이란 “오아시스”이다.</b> 사람들이 갈증으로 정말 힘이 들 때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30대
	횡성센터	소방사	서동휘	<b>나에게 소방관이란 “강아지”이다.</b> 따뜻한 햇살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30대
	횡성센터	소방사	허인영	<b>나에게 소방관이란 “집”이다.</b> 존재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20대
	횡성센터	소방사	김민기	<b>나에게 소방관이란 “친구”이다.</b> 항상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0대

	황성센터	소방사	황경구	<b>나에게 소방관이란 “치어로”이다.</b> 묵묵히 맡은바 할 일을 해내기 때문이다.	40대
	둔내센터	소방사	강민호	<b>나에게 소방관이란 “열정”이다.</b>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을 열정이라 부른다	30대
	둔내센터	소방교	노원호	<b>나에게 소방관이란 “새작인형”이다.</b> 떠려야 될 수 없는 귀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30대
	둔내센터	소방사	권진한	<b>나에게 소방관이란 “가장의 무게”이다.</b> 우리 가족을 책임질 자리이기 때문이다.	30대
	둔내센터	소방사	장현우	<b>나에게 소방관이란 “분수경”이다.</b> 나의 많은 것을 바꿔준 계기이기 때문이다.	20대
	둔내센터	소방교	김단	<b>나에게 소방관이란 “가족”이다.</b> 항상 걱정되지만 믿어줘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30대
	둔내센터	소방장	김영준	<b>나에게 소방관이란 “용기”이다.</b> 공기 용기를 채우듯 우리도 용기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30대
	둔내센터	소방사	설경수	<b>나에게 소방관이란 “안심”이다.</b> 위험한 순간에도 소방관이 있기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
	둔내센터	소방장	최종윤	<b>나에게 소방관이란 “안심”이다.</b>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30대
	둔내센터	소방장	이선영	<b>나에게 소방관이란 “운명”이다.</b>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40대
	우천센터	소방장	김찬희	<b>나에게 소방관이란 “용기의 상징”이다.</b> 소방관이 보여주는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20대

	우천센터	소방사	장유진	<b>나에게 소방관이란 “훈장”이다.</b> 직업 자체가 국가에 큰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대
	우천센터	소방사	이찬울	<b>나에게 소방관이란 “길”이다.</b>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의미이다.	30대
	우천센터	소방사	진용호	<b>나에게 소방관이란 “발걸음”이다.</b>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의미이다.	30대
	우천센터	소방위	지성진	<b>나에게 소방관이란 “삶의 타전”이다.</b> 현실을 살아가는 생활의 바탕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50대
	우천센터	소방사	탁세호	<b>나에게 소방관이란 “빛”이다.</b> 구조가 절실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0대
	우천센터	소방교	진현준	<b>나에게 소방관이란 “소금”이다.</b> 국가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30대
	공근센터	소방경	이태희	<b>나에게 소방관이란 “행복”이다.</b> 시민의 어려운 일을 들어주고 해결함으로써 소방관의 존재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50대
	공근센터	소방장	조태훈	<b>나에게 소방관이란 “위험에 앞장서는 용기”이다.</b> 위험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40대
	공근센터	소방장	김소라	<b>나에게 소방관이란 “시민의 내일을 지켜주는 일”이다.</b> 오늘 내가 구한 생명이 더 많은 내일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30대
	공근센터	소방교	임재욱	<b>나에게 소방관이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이다.</b> 불씨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듯,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30대
	공근센터	소방교	최민수	<b>나에게 소방관이란 “팀워크”이다.</b> 나 혼자만 아니라 팀원과 함께할 때 더 많은 생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대

	공근 센터	소방교	김승현	<b>나에게 소방관이란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삶”이다.</b> 나의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30대
	공근 센터	소방사	이윤배	<b>나에게 소방관이란 “누군가의 희망”이다.</b> 생명, 재산을 위협받는 재난 현장에서 시민이 기댈 수 있는 희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30대
	구조대	소방장	이충희	<b>나에게 소방관이란 “자아실현의 현장”이다.</b>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30대
	구조대	소방장	이호성	<b>나에게 소방관이란 “Team”이다.</b> 혼자서는 불가능한것도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30대
	구조대	소방사	이인표	<b>나에게 소방관이란 “볼록거울”이다.</b> 시민에게 사각지대를 밝혀 주고,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30대
	구조대	소방교	민경록	<b>나에게 소방관이란 “동반자”이다.</b> 동료와 일선에서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항상 곁에 있는 든든한 동반자이다.	30대
	구조대	소방장	엄익태	<b>나에게 소방관이란 “파수꾼”이다.</b>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대
	구조대	소방장	김성욱	<b>나에게 소방관이란 “강인함”이다.</b> 언제 어디서든 안전을 지키는 강인한 소방관이다.	40대
	구조대	소방장	윤석경	<b>나에게 소방관이란 “희생”이다.</b> 소방관은 희생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30대
	구조대	소방교	김학열	<b>나에게 소방관이란 “촉기사”이다.</b> 힘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다.	30대
	구조대	소방교	유병윤	<b>나에게 소방관이란 “LIFE”이다.</b> 누군가의 생명, 삶을 지켜주기도, 주위에 동료들이 나의 생명, 삶을 지켜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30대

### 소방청 캐릭터&슬로건

#### 캐릭터 소개



안전은 책임지는 안전 지킴이로 인간형 캐릭터는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영웅 (Hero)을 의미하며, 통합 캐릭터는 '영웅이'로 여자 캐릭터는 '영이', 남자 캐릭터는 '웅이'로 불린다. 또한 동물형 캐릭터는 119(일일구)와 119구조견이 합쳐진 단어로 '일구'로 불린다.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출동하여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팀으로 전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준다. 또한 다재다능한 면모를 가졌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동료들과의 화합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귀여운 얼굴에 순한 성격이지만 뛰어난 민첩성과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 특히 구조작전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

**119** Always  
With you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대한민국 소방

#### 슬로건

국민안전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청책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청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국민 중심의 안전이 당연 시 되고, 당연 시 되는 안전에 일상의 안심(국민의 마음) 까지 배려하는 소방청 정책의지의 표현

# 소방관이 쓴 소방관 이야기



기  
기  
기

## 화재 예방,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배려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서, 이 글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위험 지역에 출동하며, 심지어 시민의 작은 어려움에도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위험에 맞서야 하지만, 시민 한 명 한 명을 구할 때 느끼는 보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소방관이라도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없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비하며, 비상시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작은 실천이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배려도 중요합니다.



횡성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민혁

소방관으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관들은 국민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지체없이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관을 살리는 소방관

소방관이란 직업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다. 국민이 요구할 때 언제나 응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구조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불길이나 물속으로 혹은 높은 곳으로 뛰어들어 임무를 수행한다.

과거 중앙소방학교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던 슬로건은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의“First in last out”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로 바뀌었다. 구조 대상자의 성공적인 구조도 중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내하고 들어간 소방관의 생환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강원소방본부에서 “구조특채 전문 분야 특별채용”에 대한 의견수렴 문서가 시달된 당시 “RIT\* 구조 특화 인력”의 채용에 대한 의견을 낸 바가 있다. 군 경력을 포함한 각종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인원을 선발하여 각 소방서에 배치, RIT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유사시에 RIT 구성원을 현장 지휘하여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구출하는 팀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본 의견을 낼 당시에 국내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한 일선 소방관들의 RIT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였다. 2023년에야 비로소 청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으며 많은 교육들이 생기고 2024년에는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의 소방관들이 시각적으로 RIT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경연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소방서의 구조대와 진압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학교에서는 실제화재 훈련과 접목시킨 RIT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외국 소방의 RIT 교재 기반으로 각종 문화적(건축양식, 진압방식 등)의 차이로 국내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실증자료와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더 많은 소방관들이 교육받고 일선에 돌아가서도 숙달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화성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수영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만약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 준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원팀이 있다면, 소방관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RIT(Rapid Intervention Team) : 신속동료구조팀의 영문표기

### 소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022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화성소방서 최우수작품)

2024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화성소방서 최우수작품)

## 생명과 사투, 그리고 구급대원의 사명

### 구급활동: 생명과의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사명

구급대원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친구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구급대원이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 첫 출동, 그리고 긴장 속에서 배운 교훈

저의 첫 구급 출동은 정말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심각한 상태였고,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분히 훈련받은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료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처음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다잡으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구급대원으로서의 첫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제 직업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구급활동에서는 매 순간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하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 특별한 구급활동,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느 노인의 심장 마비 사건을 처리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이미 심박수가 거의 멈춰 있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동료와 함께 CPR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며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환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환자가 의식을 찾고 나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급대원으로서 느끼는 보람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눈물과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천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창민

### 위기 상황 속에서의 협력, 그리고 극복

구급활동에서는 종종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종종 겪게 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날, 대형 사고 현장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있었고, 각각의 부상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급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료들과 함께 각자 맡은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분담하며,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각 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동료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사고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진정한 힘은 팀워크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 구급대원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직업적 소명의식

구급대원으로서의 가장 큰 사명은, 단순히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응급처치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매번 출동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긴장하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구급대원으로서 제가 느끼는 소명의식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매일매일의 출동에서, 저는 생명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구급활동은 언제나 긴박하고, 때로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겪는 도전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한 저의 길을 더욱 확고히 다져줍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여정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매일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속에서 얻는 보람과 감동을 제 삶의 큰 가치로 삼아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 혼자가 아니다

짧은 소방관 생활동안 많은 화재현장을 출동 하면서 느끼는 점은 화재는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화재는 예측 불가하며, 어느정도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그 예측 불가함은 정답이 없다.

이런 다양한 화재현장은 예측불가한 위험한 일들이 많으며 현장조치를 위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장에 출동해서도 한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은 존재한다. 현장에서는 혼자가 아니라는점. 어떤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상황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나에게서는 팀원들과 조직, 그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는 많은 시민이 있다는 점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서는 든든한 횡성소방서 동료와 있고 둔내119안전센터 팀원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다. 나는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화재 현장이 두렵지 않다.



둔내119안전센터  
소방사 설경수

## 2021년 봄, 나의 첫걸음

2021년 봄, 그날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갑자기 출동벨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펌프차를 타고 화재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소방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으로서, 실전에서 맞이한 첫 화재현장은 상상보다 더 긴박하고 혼란스러웠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외진 곳에 있는 낡은 한옥 주택이었다.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선배 직원들은 능숙하게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나는 처음 맞이한 화재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보던 팀장님이 다가오셨다.

팀장님은 나를 다독이며 자신의 보조 역할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다. 팀장님의 지시를 받고, 나는 뒤에서 관창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길은 여전히 거셌지만, 팀장님을 따라 집중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십 분이 지나 불길은 점차 약해졌고, 우리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화재진압을 마친 후 펌프차를 타고 귀소하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내가 첫 화재현장에서 맡은 역할은 직접 불을 끄는 관창수가 아닌 보조 역할이었지만, 화재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팀장님이 나를 보조 역할로 이끌어 주시며, 내가 화재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한 덕분에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방관으로서 한 발짝 성장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동료들과 함께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리 신입 소방대원이더라도,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면, 팀 전체가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그날, 나는 소방대원으로서 성장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공군119안전센터  
소방사 오명준

## II 감사합니다

2009년 겨울 늦은 저녁. 폰 벨소리가 울리고 폰에서 아들! 불났어! 빨리 가게로 와! 라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가게로 정신없이 뛰어갔다. 가게 내부로 진입하자 주방에서 타닥타닥 전기 합선 소리가 나며 화염이 발생하고 있었고 119에 신고해야 돼!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19를 눌러 가게에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여기는 횡성시장 근처예요! 라고 통화를 종료했다. 계속 울리는 전화벨소리를 무시하고 소화기 방사하고 수도물 뿌리며 가게 내부와 외부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어느 순간 가게 내부로 많은 진압대원들이 뛰어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이 어머니와 나를 건물 외부로 대피시켰다. 진압대원들이 주방에 소화호스 전개 후 방수를 시작하자마자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고 주방 일부만을 태우고 완진되었다.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진압대원과 안 다치셔서 다행이라는 구급대원의 말을 여러 차례 듣고 나서야 화재가 진압되었음에 안도하였다. 가게 외부 도로에 앉아 주위를 돌아보니 10명가량의 소방관들과 여러 대의 소방차량이 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소방관들은 부모님을 도와 화재 정리 잘 하라는 말을 정하고 한순간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부모님과 함께 음료수 과자를 사들고 횡성소방서를 찾았다. 소방서를 찾았을 때 넓은 부지에 횡성소방서 신축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고, 신축 중인 건물이 보였다. 공사장 부지 한편의 컨테이너에 횡성119안전센터라는 표지판이 보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좁은 실내에 10명 가량의 소방관들이 분주히 일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와 부모님은 음료수와 과자를 드리며 감사하다고 허리굽혀 인사하고 서둘러 나왔다.

나는 횡성소방서 구급대원이다. 구급대원의 따뜻한 말 때문인지, 무서운 화염을 순식간에 꺼버리던 진압대원의 모습 때문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09년 겨울 늦은 저녁 화재에서 소방관은 나에게 영웅이었고 그 경험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부모님 가게를 돕던 대학생을 2015년 소방관으로 만들었고 어느덧 10년차 소방관이 되었다.



공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훈

오늘도 화재출동 벨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다급한 요구조자의 목소리, 구급출동 중 폰에서 들려오는 환자의 통증소리를 들으면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활동 중 2009년 겨울 늦은 저녁 그날의 화재를 가끔씩 떠올려보곤 한다. 119신고 중 갑자기 전화를 끊어서 119상황실 대원들은 당황하셨을 것이고, 주소도 부정확 상태에서 화재발생 장소를 찾아 출동하였을 현장대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님 가게에 어떻게 도착해서 불을 끄셨는지의 문이 들 때가 많다.

2009년 겨울 컨테이너에서 근무하며 현장활동을 하셨을 횡성소방서 선임소방관의 노고에 감사하다. 나는 기고문을 통해 지금까지 전하지 못한 선임소방관들에게 2009년 화재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의 요구조자는 후임소방관이 되어 선임소방관들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와 현장에서 의지하며 활동하셨을 선임, 팀장님, 센터장님, 서장님.. 감사했습니다.

나는 선임소방관들에게 요구조자로서 느꼈던 안도감을, 내가 출동한 현장의 요구조자와 환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임소방관처럼 누군가에게 영웅되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횡성소방서, 군민의 곁에서

횡성소방서는 단순히 화재를 진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 군민들의 곁에서 함께하며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안전은 예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화재와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횡성소방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훈련을 통해 군민들이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활동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횡성소방서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는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성소방서는 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횡성소방서는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응총괄과  
소방장 이수정

## 소방관 되는 중

저는 21살의 나이에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소방관이 되기에 어린 나이지만 소방관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조금은 이른 나이에 또래와는 다를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도에 임용이 되어, 긴장되는 첫 발령지에서의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화재현장의 기억은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창고 옆 식품 건조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으며, 옆에는 장작과 비료들이 쌓여있어 캠프파이어 때나 말아보던 귀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더운 7월 밤 처음 겪은 화마의 열기는 생각보다 뜨거웠고, 제가 입고 있던 장비들은 훈련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온화하던 팀장님의 목소리는 크고 무거워지고, 선배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민폐가 되고싶지 않아 팀장님의 지시를 따르고 선배들의 움직임을 쫓고, 배웠던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화재는 금방 진압되나 싶었지만 옆에 쌓여있던 장작에서 재발화가 일어나 약 1시간 화재진압 활동 후 겨우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화재를 겪은 제가 모르던 화재진압의 힘듦은 바로 '잔불' 이란 놈이었습니다. 불길은 다 잡혀 이제 상황이 종료되나 했던 체계이게 다가 아니라는 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잔해들을 다 뒤집어엎으며 조그마한 불씨들을 마치 보물찾기하듯이 찾아내고 그 작은 불씨들까지 끝내 자취를 감추었을 때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화재를 겪고 나서도 솔직히 완전한 소방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출동을 나가면서 출동에는 정말 끝도 없이 많은 유형의 출동이 있다는 것 혹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상황보다, 앞으로 겪을 일들이 훨씬 많을 것을 알기에 나는 아직 '소방관 되는 중'입니다.



둔내119안전센터  
소방사 장현우

## 불꽃 속에서도 지켜야 할 이름

“모두가 나를 기다린다.” 이 한마디는 소방관인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사명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둠을 가르며 울리는 사이렌 소리,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혼란에 휩싸인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도 제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그 순간, 저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으로 몸을 던집니다.

소방관의 하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벽녘에 울린 출동 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방화복을 입고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위험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 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일이기에 소방관의 사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삶의 목적과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화재 현장이 있습니다. 새벽 3시, 깊은 어둠 속을 뚫고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잠이 채 덜 깬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거운 방화복을 걸치고, 헬멧과 등지계를 착용하며 머릿속에는 이미 수없이 되뇌던 절차들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소방차에 올라타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로 말은 없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하나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불길은 주택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불꽃과 치솟는 검은 연기가 주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밀려와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그 안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몸을 낮춰 빠르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 근처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연기에 휩싸여 시야는 흐릿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천119안전센터  
소방경 지성진

아이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을 때, 뜨거운 공기 대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며 현실감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부모님께 안겨주자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얼굴에 그늘음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상도, 어떤 칭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길이 늘 영광스럽고 보람찬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켜주지 못한 생명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못했던 사람의 눈빛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 새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실패가 두렵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방관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사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거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동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언제든 울릴 수 있는 호출음에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삶입니다. 불길 속에서도, 혼돈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방관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저는 출동 준비를 하며 다짐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고. 저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수 있기에, 두려움 대신 용기로 나아가겠다고. 그 이름이 바로 소방관입니다.

# 칭찬합니다!



## 소방대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

2024/09/16

여행 중에  
도와고 따뜻한 손길 주신  
소방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은하

강원특별자치도 여행 중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함께한 일행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체로 힘들어했지만, 풍수원 근처를 비롯해 주변 약국과 편의점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문이 닫혀 있어 소화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초조함이 커지는 순간, 마침 보인 119 지역대를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서원 119지역대의 송용현 대원님. 사무실에는 의약품이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소화제를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한밤중 약을 구하지 못해 애타던 저희에게 그 작은 약 한 봉지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커다란 위로와 감동이었습니다.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구하느라 헤매는 사이, 차량의 주유 경고등까지 들어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송용현 대원님께서주유소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 만난 따뜻한 배려와 친절 덕분에 강원도의 아름다움이 더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힘든 순간에 주신 도움,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09/10

역시 119!  
당신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경민수

집 외벽 높은 곳에 농구공보다도 큰 말벌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크기도 크지만 위치가 너무 높아 혼자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분의 119 대원님께서 즉시 출동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님들은 별집을 보자마자 “올해 본 것 중 제일 크다”라고 하시면서도, 당황하거나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거 작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단번에 별집을 제거하고, 남은 벌들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까지 완벽히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긴급한 일들이 많은 와중에도, 단 한 마디의 불평 없이 묵묵히 해결해 주신 세 분의 119 대원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그 헌신과 책임감 덕분에 다시 한 번 119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09/06

**추락사고..  
119의 빠른 출동 덕분에  
친구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전원구

지난 8월 31일,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과의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님들께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게 출동해 주셨고, 친절하고 따뜻한 손길로 응급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친구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다행히 큰 이상 없이 다음 날인 9월 1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대원님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황성 119 대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구조와 구급 활동에 힘써 주신 대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황성 119 대원님들, 언제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2024/07/27

**구급대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김미정

평소처럼 혼자서 토마토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토마토 전지용 가위가 허벅지를 스치면서 깊은 상처를 입었고, 피가 멈추지 않고 철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입고 있던 바지는 얇아서 지혈이 쉽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졌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이 가까이에 있어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신고 전화를 받으신 여직원분께서는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고, 혹시 수건이 있으면 지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가까스로 집까지 기어가 수건을 찾아 지혈을 시도하며 구급대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님들께서 신속하게 도착하셨습니다. 당황한 저를 다정한 말로 진정시켜 주셨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독을 해주신 후 압박봉대로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과 친절함 응대 덕분에 극심한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저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시술을 받는 동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누가 소독을 해주었다고 물으셨습니다. 119 구급대원님들이 해주셨다고 하니, 소독이 매우 잘 되었고 지혈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시술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사히 4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만약 119 구급대원님들이 없었다면 그 긴박한 상황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구급대원님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생명을 위해 발나없이 애써주시는 119 구급대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출동, 세심한 응급처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안정시키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까지—모든 순간이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님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힘내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05/30

**처음 겪는 고속도로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윤두한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지난 5월 17일 밤 11시경,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횡성휴게소를 지나 둔내IC 전에 갑작스럽게 차량이 제어되지 않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여행 중이었고,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운전 경력 25년 동안 사고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처음이었기에 극도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아이와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었고, 그 순간 느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격자분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님들께서 신속하게 출동해주셨습니다. 대원님들께서는 저와 가족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주셨고, 경찰분들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며 저에게 필요한 조언과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관계자분들께서도 보험사 견인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직접 차량을 인근 IC로 옮겨 주셨습니다.

물론,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정해진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와 저희 가족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119 구급대원님들은 저와 아이들, 아내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해 주셨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짜 위기의 순간에 주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사회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119 구급대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와 저희 가족은 큰 사고 속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119 소방대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05/15

**최일순 교수(대원)님처럼  
멋진 구급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박지현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대원대학교 3학년 박지현입니다.

교수(대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외과진료보조학 수업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들려주시는 다양한 현장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무에 대한 생생한 이해를 돕고,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대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에 몰입하게 되고, 배우는 과정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외상이 저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교수(대원)님께서 실제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영상 자료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외상이 단순한 글 속의 개념이 아니라, 저에게 더 가깝고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이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님처럼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는 열정과 세심한 가르침이 저에게 큰 자극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시고,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5/07

**불법유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용록

지난 5월 6일, 둔내역 근방에서 저의 와이프가 불법 유턴 차량과의 사고를 당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많이 당황하고 걱정스러웠지만, 둔내 119 구급대원님께서 신속하게 출동해 주시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 주신 덕분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끝까지 신경 써 주신 대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인 저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둔내119 구급대원 및 소방관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맑은 바 소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07/04

**본네트 속 아기 고양이를 구조해주신 구조대원님께...**

공윤정

지난주 목요일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준비중이던 바로 그 때 내 차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화를 한 통 받고 내려가 보니 아기 고양이가 본네트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꺼내 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119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미 퇴근시간이 지났고 공업사도 끝날 시간이라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하신 소방대원 두 분이 비를 맞아가며 40분이 다 되어가도록 애를 쓰셨지만 쉽게 잡히지 않아 포기 하려고 했으나 한 번 만 더 해보자고 하시며 이것 저것 해보시다가 결국 50분이 다 될 때 쯤 가까스로 고양이를 차 내부에서 꺼냈습니다.

늘 훈련과 출동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소방대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시게 해서 너무 죄송했고 고마워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 인사를 남겨 봅니다.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비를 맞으며 애써 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2023/06/13

**작은 생명도 지나치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진태훈

주택 화재 현장에서 강아지 10마리를 구조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화재 현장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대원님들께서는 작은 생명들까지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구조해 주셨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아닌 열 마리를 모두 안전하게 구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대원님들의 헌신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는 없지만, 항상 대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것도 모자라, 작은 생명까지 소중히 지켜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계실지 감히 상상도 못 하겠지만, 부디 대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이 언제나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2023/05/06

**새로운 시간을 주신 소방관님 감사드립니다**

유명희

지난 5월 2일, 저희 가족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산나물 채취를 겸해 산행을 나가신 후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희 가족은 큰 충격과 불안 속에 휩싸였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갑천에서 화재까지 발생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미 화재 현장에서 힘든 진압 작업을 마치고 오신 둔내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네 분께서, 지친 몸을 이끌고 한밤중까지 저희 가족과 동네 주민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서 주셨습니다. 밤 11시, 깊은 산속에서 조난당하신 아버지를 무사히 구조해 주셨고, 대성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해 주셨습니다.

처음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컸지만, 대원님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오늘 아버지가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날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했고, 눈물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산을 올라 수색해 주신 둔내119안전센터 소방대원님들 외에도 이후 도착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겪으며,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힘을 모을 때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3/01/04

제 아내에게 새 삶을 선물해주신  
소방대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준영

지난 12월4일 일요일 오후 5시경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처음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전화를 연결하여 제가 할 응급조치 상황을 계속 알려주셨고, 당시 공근면 119안전센터 조하나 소방관님을 비롯한 세분의 소방관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응급조치 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을 해 주시고 말없이 되돌아 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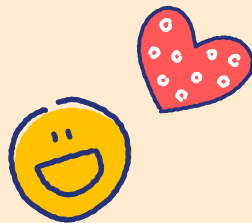
제 내내는 의사 응급진료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빠르게 치료에 들어가 3주 입원 후 호전된 상태로 퇴원을 하고 지금은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망하여 소방관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드리고 해서 글 올립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고, 걸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제가 부끄럽지만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제 삶의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

2022/11/10

소방관 선생님들 감사해요!

큰빛어린이집 어린이들



2022/09/16

초보엄마가 소방대원님들께  
드리는 감사 편지

한보람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반경, 동해에서 원주로 돌아오던 길에 저희 아기가 차 안에서 열성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에서야 열성경련이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며 점점 경직되는 모습에 공포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국도 위라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분들께서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고, 위치 조회를 통해 신속히 출동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신 대원님들께서는 아기의 가슴에 여러 장치를 부착하고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안전하게 원주 기독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안심시켜 주셨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며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지금은 집에서 잘 웃고,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구급대원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명절도, 연휴도 없이 365일 헌신하시는 대원님들 덕분에 수많은 가정의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2022/08/20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실 소방관님께

이수연

요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방관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께서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아 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출동해 주신 소방관님들께서 신속하게 아버지를 대성병원으로 이송해 주셨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원주의료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상보다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소방관님들께서 아버지를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옮겨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갑자기 많아져 대기 시간이 길어졌음에도, 소방관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걸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아버지를 돌봐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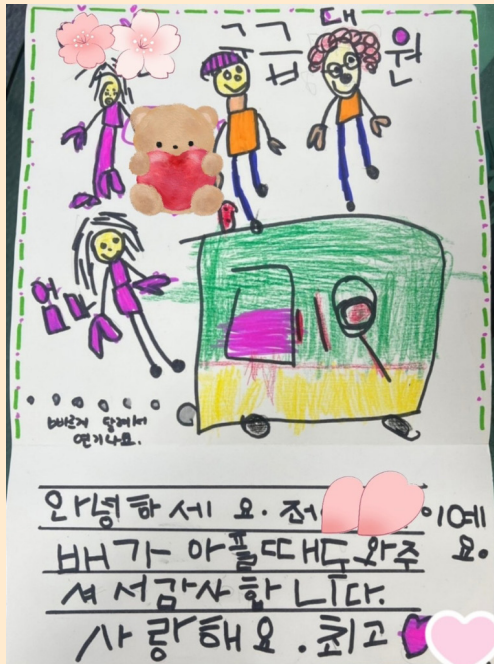
결국 오후 2시경, 아버지는 응급실에 입원하실 수 있었고, 격리 병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8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도 거르신 채 아버지를 위해 애써 주신 소방대원님들께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04/13

119구급대원 아저씨!  
배 아플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5세)



2022/02/11

번개처럼 빠르고 침착하며  
용감한 대원님들을 칭찬합니다.

전현우

안녕하세요.  
작년 어머니 환갑 잔치를 위해 횡성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준비한 대가족 모임에서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구토를 연달아 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119가 생각 나 전화를 걸었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님들께서는 정말 번개처럼 빠르게 출동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받았고, 빠른 조치 덕분에 아내는 지금 건강하게 새해를 잘 맞이하고 설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이때 당황스러워 성함도 모른 채, 방역복을 입고 오신 소방대원님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나와 방역과 격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소방대원님들의 고생과 헌신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늦었지만 그때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07/07

횡성의 희망, 구조의 미래  
- 김다연 대원과  
횡성소방서를 칭찬합니다.

강도현

재해와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언제나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횡성소방서 일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여름 역시 유난히 긴 장마와 불규칙한 강우 패턴으로 인해 토사 매몰이나 누전 감전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는 더욱 든든한 방패가 필요하고, 시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엄홍림 소방서장님께서 보여주시는 탁월한 리더십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안목은 지역사회에 큰 신뢰와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운영 아래 횡성소방서는 점점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횡성소방서 구조대 여러분들과 함께 막 소명의 첫발을 내디딘 김다연 대원이 힘을 합쳐,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멋진 팀워크를 발휘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 대원은 뛰어난 수상 경력을 갖춘 인재일 뿐만 아니라, 젊은 열정과 책임감을 겸비한 구조대원으로서, 향후 횡성의 구조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각 구조팀에 김다연 대원과 같이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조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이번 최초 여성 구조대원 탄생을 계기로, 횡성소방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범 소방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형 소방조직으로 성장해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횡성. 이곳에서 김다연 대원은 소방관의 꿈을 키워가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며, 횡성소방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상이변 속에서도 늘 군민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장마철 감기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군민 모두가 안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07/26

응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지원해주신 구급대원에게...

박광해

지난 7월 11일, 장애를 가진 우리 딸이 원주 불노병원에서 재활 중에 외출 허가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지원센터에 차량 지원을 요청했으나, 횡성군 지역이 아니라 원주 지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날 오후 4시경, 119에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차량 지원을 부탁드렸고, 구급대원님들께서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주셨습니다.

원래 119는 응급환자만 지원하는 서비스라, 우리 딸에게 차량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딸아이를 위해 본인의 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이고 친절한 지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신 소방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 자랑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자랑스러운  
119 소방관

인물일반 | 2012.04.11 | 강원일보 | 유학렬 기자

## 소방대원신속한초기대응으로 참사 막아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돼지농장 정화조에서 작업을 하다 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인부들의 생명을 구한 119소방대원들이 화제다.

지난 9일 낮 12시15분께 횡성소방서(서장:조근희) 119상황실에는 강림의 한 돼지농장 정화조 맨홀에서 분뇨처리작업을 하던 중국 연변 출신 인부 황모(60)씨와 여모(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구조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접한 상황실은 즉시 오전 119안전센터 강림지역대와 안흥지역대에 현장출동 명령을 내렸고 김학중 소방장, 엄경열 소방장, 송유신 소방교 등 3명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대원들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 보조마스크를 황씨와 여씨에게 번갈아 씌워주며 호흡과 의식회복을 위한 응급조치를 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전영환 소방위, 박민재 소방교, 박재형 소방교, 안형선 소방사 등도 크레인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정화조 밖으로 옮겨 위기를 넘겼다. 구조자들은 119구급차로 원주 기독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의식 회복과 함께 간단한 대화도 할 정도로 호전됐다. 대원들은 “맨홀 작업은 밀폐된 공간 특성상 산소결핍으로 질식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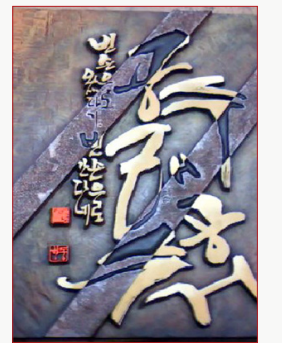


횡성 | 2013.11.25 | 강원일보 | 유학렬 기자

## 횡성소방서 서영석 팀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횡성】횡성의 한 소방관이 서각작품으로 제3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해 화제다.

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 구조진압대 서영석(47·사진·소방위) 구조3팀장은 지난 16일 발표된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 부문 입상작 발표에서 서각 작품 '공수래 공수거'로 당당히 입선했다. (사)한국미술협회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문 운영위원회가 마련하는 대전에서 서 팀장은 원목에 한글로 '공수래 공수거'를 새겨 넣은 작품을 출품했다. 4년 여전 배드민턴 동호회원의 소개로 우연히 서각을 접한 서 팀장은 “서각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고 예찬론을 폈다.



횡성 | 2014.03.15 | 강원일보 | 유학렬 기자

## 이상호 소방위 논문 최우수

【횡성】횡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이상호(45·사진) 안전관리주임이 제3회 강원소방 연구논집 우수논문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상호 소방위는 현장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분야를 다룬 '소방공무원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 연구' 논문으로 제출된 8편 가운데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강원 소방연구논집은 소방공무원 연구문화 확산과 과학적인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강원도 소방학교가 해마다 발행하는 논문집으로 응모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뽑아 강원도지사상과 부상품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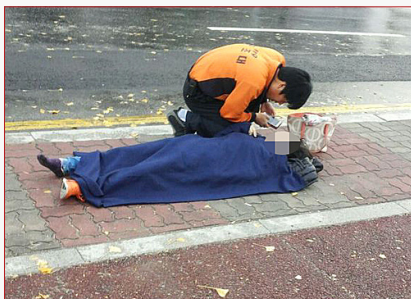


황성 | 2014.07.03 | 강원일보 | 유학렬 기자

### 휴일에 오토바이 추락 목격 끝까지 구조

【황성】비번으로 휴일을 보내던 소방관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 화제다.

황성소방서 이규석(52·소방경·사진) 소방예방담당은 지난달 29일 승용차를 운전해 국도 42호선 안흥터널 인근을 지나던 중 우연히 원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 소방경은 신속하게 119에 긴급출동 신고를 한 후 추락 장소로 달려가 의식이 혼미한 오토바이 운전자 고모(58)씨를 응급처치하고 119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했다. 이 소방경은 “휴일이긴 했지만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소방경은 정선 민동산 하산길 등산객 차량 전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3명을 구했고 서울 북부간선도로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복귀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쓰러지면서 문 밖으로 떨어진 운전자 1명을 응급구조하는 등 휴일이나 휴가 중에 긴급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묘한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인물일반 | 2014.11.13 | 강원일보 | 유학렬 기자

### 사고 목격 소방관 출근길 인명 구조

황성소방서 안효근 구조대장(사진)이 출근길 교통사고 부상자를 신속하게 구조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안 대장은 지난 12일 오전 8시5분께 원주시 판부면사무소 인근 도로를 지나다 빗길 승용차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출근차량을 갖길에 세우고 부상자 응급처치 및 담요로 체온 유지 등 보호 조치를 했다. 안 대장은 부상자인 30대 여성 A씨의 의식을 확인하고 부상 정도를 파악한 후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원주소방서 직원에게 119 신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1995년 8월 임용된 안 대장은 화재, 구조, 구급 현장을 두루 거친 멀티소방관으로 선배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황성 | 2016.05.13 | 강원일보 | 허남윤 기자

### 황성소방서 정상진 소방장 급성 심정지 시민 구해 눈길

【황성】소방관이 운동 중 심정지를 일으킨 시민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황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정상진 소방장(사진). 정 소방장은 지난 7일 원주 치악종합운동장에서 테니스를 치던 중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시민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10일 의식을 회복했다.



정 소방장은 “일반인도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물일반 | 2017.02.12 | 소방방재신문 | 안효원 객원 기자

### 황성소방서 정진화 소방위, 깎지 낀 두손으로 소중한 생명 구해

황성소방서는 지난 12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복원실험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모(남, 62)씨의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경기 후 잠시 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남성을 목격한 황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소속 정진화 소방위가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고 원주의용소방대 최봉섭 대원이 가져다 준 자동제세동기(AED)를 활용해 1회 전기충격을 가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이에 어 씨는 다행히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호흡을 되찾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회복 중이다. 정진화 소방위는 “동료들과 소방관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뿐인데 주변에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며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여러분도 깎지 낀 두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익히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성 | 2017.06.01 | 뉴스일보 | 박태순 기자

### 황성서 심정지 40대 살린 1339 직원과 펌블런스

(황성=뉴스1) 박태순 기자 = 강원도 황성군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린 국민체육센터 경기장에서 물을 마시다 심정지로 쓰러진 김모씨(45)가 1339직원과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다.



1일 황성소방서에 따르면 전직 배드민턴 선수였던 김씨는 경기 관람중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기장에 있었던 1339직원 김침배씨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구급출동 신고를 받은 황성소방서 펌블런스 대원 3명(정진화, 조영민, 조광희)과 배드민턴 경기장에 있던 영월소방서 김광년 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생체리듬을 확인했다. 쓰러졌던 김씨는 대원들의 도움으로 의식이 회복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성소방서는 지난해부터 수확여행이나 관내 운동경기장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다.

황성 | 2018.09.06 | 강원일보 | 허남윤 기자

### 김유동 황성소방서 소방장 소방안전봉사상 본상 수상

김유동(41·사진) 황성소방서 소방장이 5일 제45회 소방안전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소방안전봉사상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시상식은 이날 서울 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 소방장은 이번 수상으로 1계급 특별승진한다. 2005년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장은 2012년 헬멧부착형 연기투시렌터를 창안하는 등 오랜 기간 현장부서에 근무하며 화재 대응 능력 개발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성 | 2018.09.18 | 소방방재신문 | 119 뉴스티

## 황성소방서,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메달 획득

황성소방서(서장 유종근)는 18일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서 탁구, 농구·인라인스케이트 종목에서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복귀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제13회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50개국의 전·현직 소방관, 의용소방대원, 소방 관련 종사자와 그 가족 등이 참가해 각종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다. 소방서는 탁구에서 최봉식 행정과장이 단식에서 은메달, 혼합복식에서 동메달, 둔내119안전센터의 강성진, 배진우 소방교는 농구에서 동메달, 구조대 김광호 소방장은 인라인스케이트 500m, 1000m, 3000m와 계주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성 | 2019.04.24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 황성소방서, 심범석 소방교 '최강 소방관' 선발

강원 황성소방서는 지난 23일 원주소방서에서 열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119구조대 소속 심범석 소방교가 종합2위를 차지해 오는 6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최강 소방관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발전은 오는 6월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를 대비해 구조(최강)분야 강원도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해 열렸다.

대회 코스는 △ (1코스) 소방차량 양옆에 연결된 65mm소방 호스 및 관창(양쪽 4분씩)을 끌어 전개 △ (2코스) 해머(6kg)를 이용하여 상하왕복 50회 타격 △ (3코스) 구조물(높이 약7m)로 이동하여 마닐라로프로 연결된 지상의 중량물(18kg)을 인양 △ (4코스) 마네킹(약 50kg)을 뒤로 끌기 운반법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약23m) △ (5코스) 계단 81개를 올라 Finish Line 종료 종을 타격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심범석 소방교는 2분 13초의 기록으로 종합 1위(특수구조단 소방교 이영진)와는 5초 차이로 종합 2위를 하여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대표로 2명만 출전할 수 있는 구조(최강)분야에 선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심범석은 소방교는 "좋은 성과를 위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6월에 있을 전국소방경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위해 맹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황성 | 2019.08.06 | 소방방재신문

## 황성소방서, '뺨속까지 소방관' 퇴근길 사람 구해

황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권선양·장성수 소방관이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께 퇴근길 중앙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주저 없이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요구조자는 머리에 15cm 정도 열상이 있었으며 한쪽 다리가 개방성 골절이 관찰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했다. 이에 소방관들은 외상환자평가 후 차에 구비된 수건과 생수를 이용해 상처를 세척하고 지혈했다. 또 환자의 안정을 도모하며 출동한 우산 구급대에 인계했다.

권선양 소방관은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의 임무는 퇴근길에도 끝나지 않는다"며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했을 일이고 환자 상태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물일반 | 2021.03.22 | 소방방재신문 | 안효원 객원 기자

## 황성소방서, 제7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장려상'

황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2021년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안효영 소방장이 장려상을 차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정부세종 제2청사에서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향상과 우수 강사 발굴·육성을 위해 개최됐으며 대한소방공제회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후원했다. 2020년 지역 예선을 거친 시·도별 최우수자 19명 중 1차 교안심사를 거쳐 선발된 10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안효영 소방장은 '소방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발표를 위해 알아듣기 쉽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해 발표했다. 또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참석한 심사위원과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번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로 교육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안전의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기법을 개발해 소방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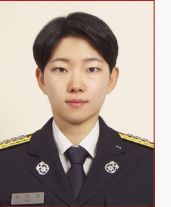


인물일반 | 2021.07.07 | 소방방재신문 | 안효원 객원 기자

## 강원소방 최초 여성 119구조대원 배출...황성 김다연 소방교

강원지역 최초로 여성 소방관 119 구조대원이 배출됐다.

황성소방서는 김다연 소방교에게 119 구조대원 소명을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소방교는 지난 2019년 개최된 제32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여성 최강 소방관 1회 경기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난 4월 14일 강원도소방학교에서 치러진 제3기 인명 구조사 2급 시험에도 강원지역 최초 여성 대원으로 합격했다. 김다연 소방교는 "119 구조대원 소명을 부여받은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최초 여성 대원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며 "남성 소방관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구조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염홍림 황성소방서장은 "최초라는 타이틀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김 소방교의 성실성과 끈기를 알기에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며 "황성소방서에서 최초 여성 119 구조대원을 배출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황성 | 2019.04.24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 황성 박관우 소방사, 혈액암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

신참 소방관이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혈액암 환자에게 선뜻 조혈모세포를 기증해 귀중한 생명을 살린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황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박관우(24·사진) 소방사는 지난 연말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20대 여성을 위해 5시간여 동안 자신의 혈액에 포함된 조혈모세포를 채취했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종류의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줄기세포의 일종으로, 환자와 혈연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기증자와 환자의 세포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2만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사례로 알려졌다. 경기 고양 출신으로 지난 해 2월 소방관으로 특별채용된 박 소방사는 두달전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항원과 일치하다는 연락을 받고 까다로운 유전자 확인검사와 건강검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박 소방사는 소방관 채용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던 중 지난 2020년 9월 조혈모세포 은행협회에 기증 희망서를 등록했다. 박 소방사는 "지금까지 환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지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얻게 돼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더욱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성 | 2022.06.10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 횡성소방서,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드론부분 1위 수상

횡성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드론부분에서 강원지역 1위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소방기술경연대회 드론부분 경기는 태백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2인1조(주조종사 및 부조종사)가 팀워크를 이루며 경기하고 종목 배점은 항공기 수색 70점, 시뮬레이터가 30점이다. 이번 대회에서 1위의 영광을 얻은 주인공 박상범, 이주형 소방장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대회를 준비해 왔다. 박상범·이주형 소방장은 "드론대회는 처음 시행된 거라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최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홍림 횡성소방서장은 "찾아진 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1위라는 최고의 결과를 내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박상범·이주형 소방장이 부담감 없이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횡성 | 2024.03.16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 횡성소방서, 강원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분야 1위 수상

횡성소방서는 지난 14일 강원소방학교에서 열린 강원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분야에서 소방장 심범석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원소방기술경연대회에는 소방기술 개발과 연마를 통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회로, 화재·구조·구급뿐만 아니라 최강소방관 분야 등 9개의 종목으로 나뉜다. 이 중 최강소방관 분야는 ▲호스말이 ▲포스 빔 타격, 터널 및 장애물 통과 ▲중량물 들고 타워 오르기 ▲15층 계단오르기 등 4단계를 빠른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는 경기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된다. 이번 대회에는 횡성소방서 구조대 소속 소방장 이태환, 심범석, 김준현이 참가하였으며, 소방장 심범석은 작년 2위에 이어 올해는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강원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박순걸 서장은 "현장활동과 대회준비를 병행하며, 매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둔 심범석 소방장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국대회에서도 개인안전을 잘 챙기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횡성 | 2022.09.29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 횡성소방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서 몸짱소방관 '전국 3위' 입상

횡성소방서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몸짱소방관 분야에서 횡성소방서 횡성119안전센터 강우혁 소방교가 전국 3위를 차지했다. 27일 경연대회는 오전 10시부터 몸짱소방관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진행했으며, 몸짱소방관 분야에서 강우혁 소방교는 결승에 진출해 최종 3위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횡성 | 2024.04.18 | 뉴스1 | 한귀섭 기자

### 강원 소방관 1호 나눔리더, 횡성소방서 최일순 소방위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일순 소방관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소방관은 도내 소방관으로 처음 나눔리더 가입해 100만원을 강원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나눔리더는 개인 기부자 중 1년 안에 100만원 이상 일시 기부 또는 약정한 사람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119구급대원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는 생각을 평소 해왔다"며 "작은 나눔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계식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께서 기부에 함께해주셔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우리 이웃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횡성 | 2022.12.06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 횡성소방서 지창영 소방장, '2022년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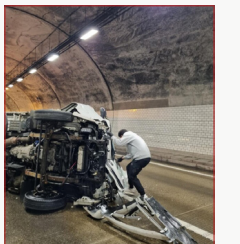
강원도 횡성소방서 지창영 소방장이 2022년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2022 국민안전발명챌린지'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총 8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현장 활용 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24건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창영 소방장은 '중증 두부 외상 처치 헤드캡'으로 은상인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창영 소방장은 급박한 중증 두부 외상 환자의 현장처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소생률을 향상시키고자 해당 기술을 발명했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본 기술은 외상환자의 머리에 헤드캡을 씌우는 것으로 처치가 가능하고 경추고정 및 손실된 혈액의 양을 수치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병원 의료진의 빠른 처치를 도와준다. 지창영 소방장은 "항상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잘해야만 하는 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횡성 | 2023.09.18 | LG헬로비전 | 전소연 기자

### 횡성소방서 소방관, 휴일날 트럭 전복사고 운전자 구조

휴일 비번인 소방관이 쓰러진 트럭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쯤 제2중부고속도로 터널에서 1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행을 떠나던 횡성소방서 소방관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 유리창을 뜯어내 트럭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사고에서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횡성 | 2024.05.21 | 신아일보 | 조덕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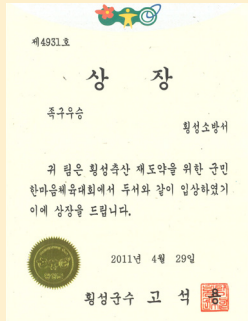
### 횡성소방서, 구급현장 초기대응 유공 소방공무원 표창

횡성소방서는 21일 전략회의실에서 횡성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경 오창훈 외 2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횡성119안전센터 소속 1팀 펌블런스대원 소방경 오창훈, 소방장 김주용, 소방장 광민겸이다. 펌블런스란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장비와 구급 자격자가 배치된 펌프차량을 의미하며, 관할 구급차 부재 또는 출동 지연 시 먼저 출동하여 초기응급처치를 하거나 구급차량과 함께 출동하여 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출동시스템을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 특별경계근무 기간에 소방력 전진배치 근무 중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에 소방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순걸 서장은 "중증환자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 등 펌블런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방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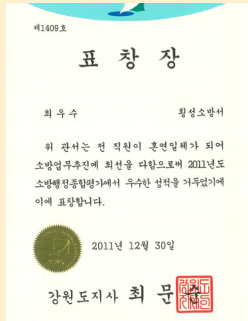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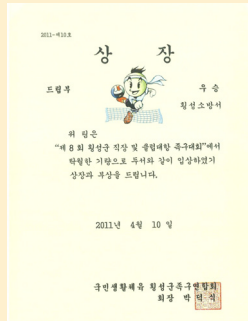
2010 제9회 화성군수배축구대회 드림부 준우승(화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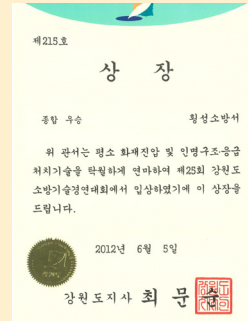
2011 군민한마을체육대회 축구우승(화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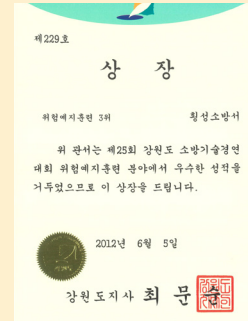
2011 소방업무추진 소방행정종합평가 최우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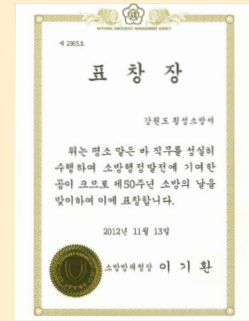
2011 제8회 화성군 클럽대항 축구대회 드림부 우승(화성군축구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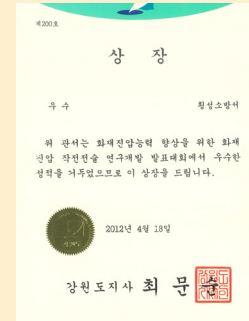
2012 제25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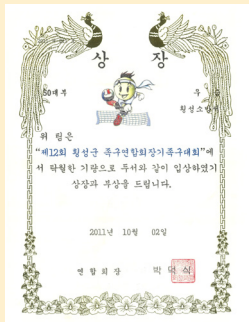
2012 제25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위험예지훈련 3위(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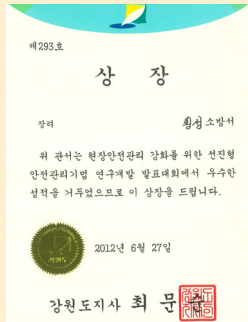
2012 제50주년 소방의 날 소방행정발전 표창장(소방장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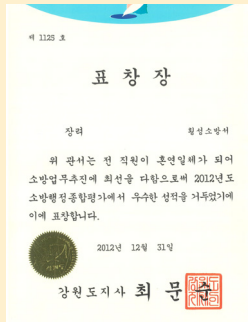
2012 화재진압 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 우수(도지사)



2011 제12회 화성군 축구연합회장 축구대회 50대부 우승(화성군축구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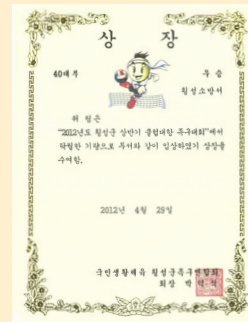
2011 선진형안전관리기법 연구개발 발표대회 장려(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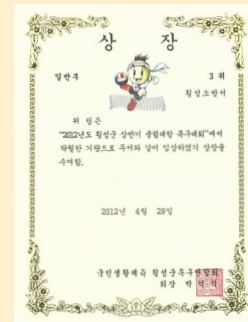
2012 소방행정평가 장려(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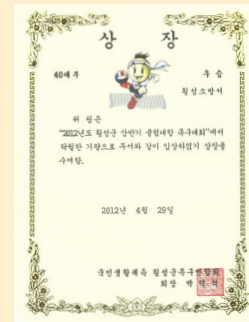
2012 제10회 화성군수배 축구대회 새내기부 우승(화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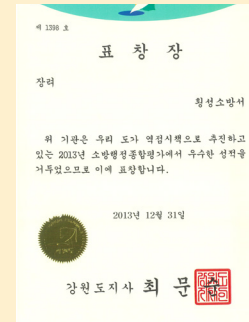
2012 화성군 상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40대부 우승(화성군축구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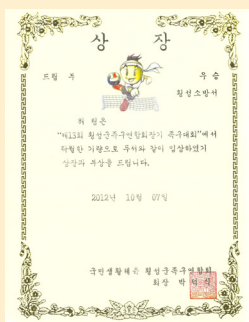
2012 화성군 상반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일반부 3위(화성군축구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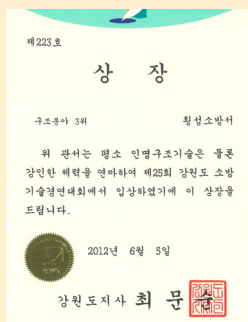
2012 화성군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40대부 우승(화성군축구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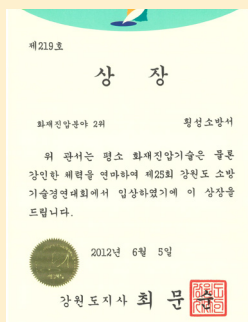
2013 소방행정종합평가 장려(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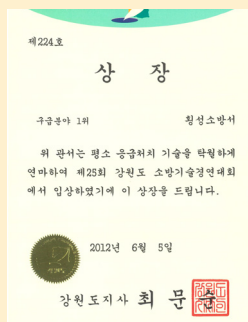
2012 제13회 화성군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드림부 우승(화성군축구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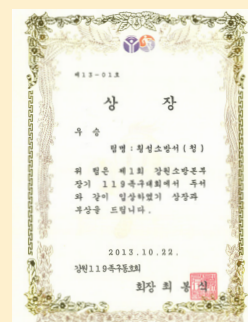
2012 제25회 강원도 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3위(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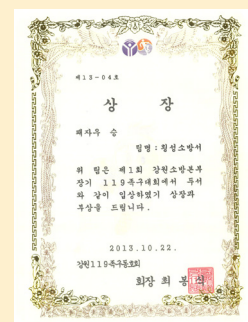
2012 제25회 강원도 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2위(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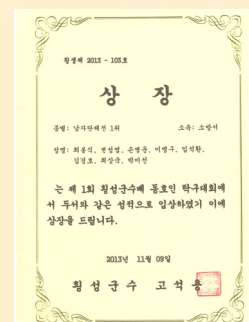
2012 소방기술경연대회 규급분야 1위(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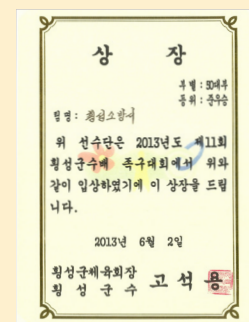
2013 제1회 강원소방본부장기 119축구대회 우승(강원119축구동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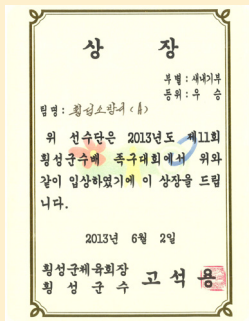
2013 제1회 강원소방본부장기 119축구대회 패자우승(강원119축구동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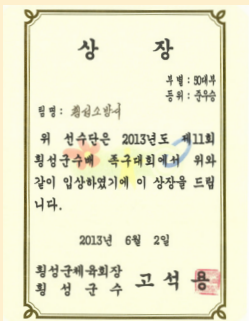
2013 화성군수배 동호인 탁구대회 남자단체전 1위(화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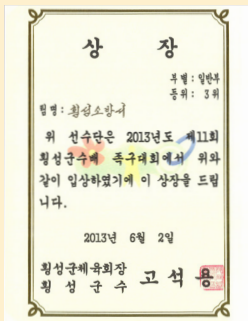
2013 제11회 화성군수배 축구대회 50대부 준우승(화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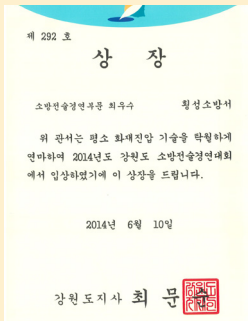
2013 제11회 황성군수배 족구대회 새내기부 우승 (황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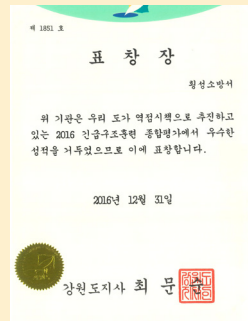
2013 제11회 황성군수배 족구대회 50대부 준우승 (황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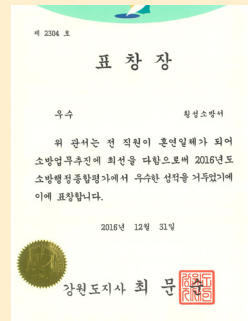
2013 제11회 황성군수배 족구대회 일반부 3위 (황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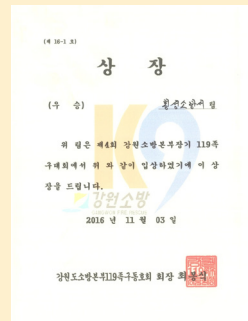
2014 강원도 소방전술경연대회 소방전술경연부문 최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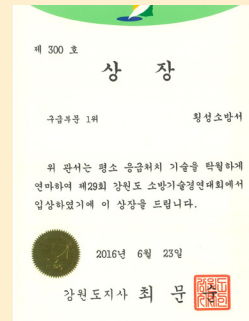
2016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 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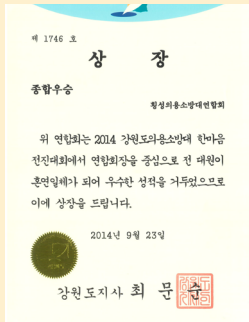
2016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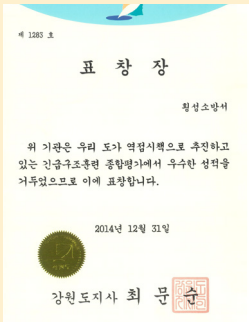
2016 제4회 강원소방본부장기 119족구대회 우승 (강원119족구동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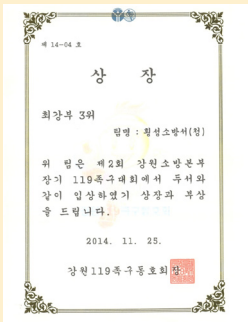
2016 제29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1위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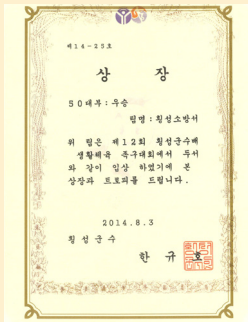
2014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종합우승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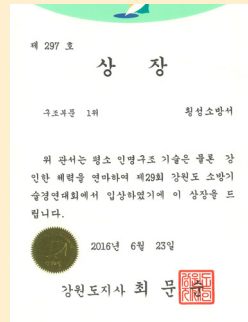
2014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 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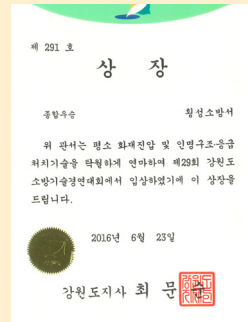
2014 제2회 강원소방본부장기 119족구대회 최강부 3위 (강원119족구동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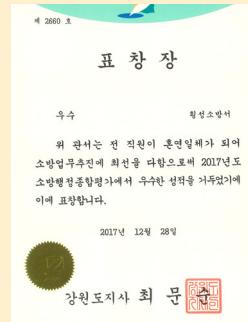
2014 제12회 황성군수배 생활체육 족구대회 50대부 우승 (황성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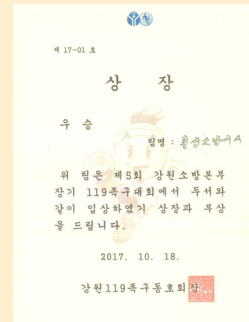
2016 제29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부문 1위 (도지사)



2016 제29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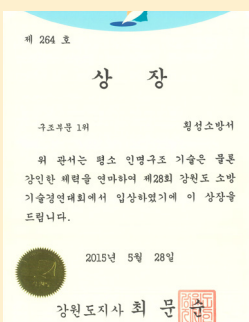
2017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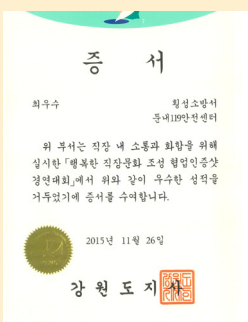
2017 제5회 강원소방본부장기 119족구대회 우승 (강원119족구동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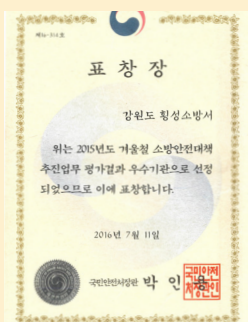
2014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연구발표대회 최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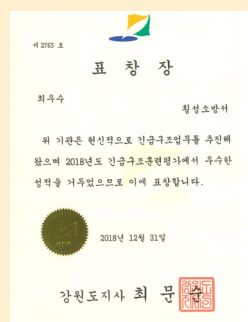
2015 제28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부문 1위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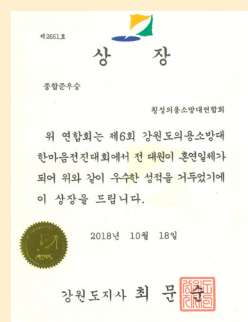
2015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협업인증사 경연대회 최우수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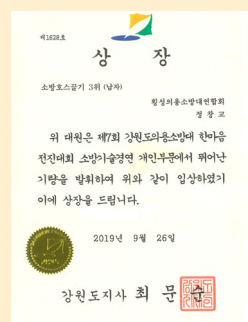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업무 우수기관 표창장 (국민안전처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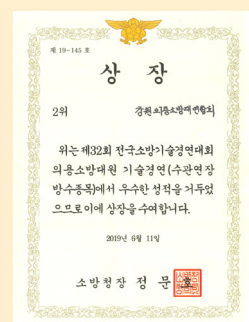
2018 긴급구조훈련평가 최우수 (도지사)



2018 제6회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종합준우승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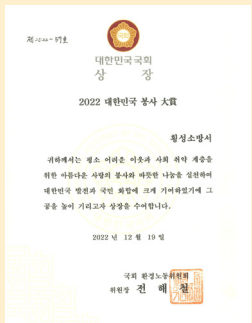


2019 제7회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소방호스플기 3위 (남자)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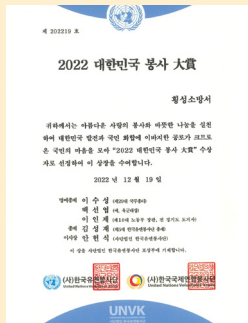


2019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 수관연장 방수종목 2위(소방청장)

영광의 순간(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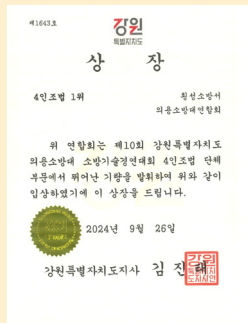
2022 대한민국 봉사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



2022 대한민국 봉사 대상 (한국유엔봉사단장, 한국국제연합봉사단장)



2024 긴급구조종합훈련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2024 제10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4인조법 1위 (특별자치도지사)

영광의 순간(트로피)



2013 제11회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50대부 준우승 (횡성군수)



2013 제11회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새내기부 우승 (횡성군수)



2013 제11회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새내기부 준우승 (횡성군수)



2013 제11회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일반부 3위 (횡성군수)

영광의 순간(트로피)



2011 강원도 소방전술경연대회 우수



2011 반부패 청렴기관 장려(도지사)



2011 제9회 횡성군수배 족구 대회 3위 (횡성군수)



2012 제10회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우승 (횡성군수)



2014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소방호스플기 3위 (도지사)



2014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수관연장 부문 3위 (도지사)



2014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한마음전진대회 종합우승 (도지사)



2014 소방전술경연대회 최우수 (도지사)



2012 제25회 강원도소방기술경연대회 위험예지훈련 3위 (도지사)



2012 제25회 강원도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도지사)



2013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종합 준우승



2013 소방력현장대응체계 연구발표대회 최우수 (도지사)



2014 제10회 중앙행정기관 족구대회 3위 (경찰청장)



2014 제12회 횡성군수배 족구대회 50대부 우승 (횡성군수)



2015 제14회 강원도119어울 한마당 우승 (도지사)



2015 제28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부문 1위 (도지사)

영광의 순간(트로피)



2016 소방전술경연대회 장려 (도지사)



2016 제14회 횡성군수배 강원도 오픈 족구대회 3위 (횡성군수)



2016 제29회 강원도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부문 (도지사)



2016 제29회 강원도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부문 1위 (도지사)



2018 제6회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종합준우승 (강원도지사)



2019 제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우관연장방수종목 준우승 (소방청장)



2022 제8회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종합장려 (도지사)



2023 제9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장려 (도지사)



2024 제10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도지사)



2024 제10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4인조법 1위 (도지사)



2013 제13회 횡성군족구연합회장기대회 (횡성군수)

MOU 체결

번호	기관·단체명	대표자	내용	체결연도
1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지사장 염진근	전기안전문화 정착	2011.05.26.
2	음식업중앙회 횡성군지부	지부장 김응열	화재와의 전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협정	2011.06.09.
3	상지영서대학교	총장 최석식	지역소방방재를 위한 관·학 협약 체결	2011.07.29.
4	횡성우체국		화재 사망자 줄이기	2011.08.24.
5	108연대 2대대	대대장 박성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을 위한 협약	2011.10.26.
6	횡성 의소대-횡성읍 송전리	이장 김학영		2012.04.30.
7	송호대학교	총장 이기평	지역소방방재 및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한 관·학 협약	2014.09.17.
8	횡성읍 의소대-횡성읍 송전리	이장 김학영		2015.04.29.
9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전덕중	지역안전문화 구축	2015.04.30.
10	횡성우체국	국장 이영준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	2015.11.24.
11	CJ헬로비전 영서방송	대표 이동성	생생한 현장활동 전달을 위한 업무 협약	2016.01.26.
12	송호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한국소방안전원	정창덕 송호대 총장 김진열 상지영서대 총장 오근용 한국소방안전원 지부장	미래지향적 소방행정 발전 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2018.06.26.
13	횡성군청, 횡성경찰서, 제8375부대 2대대	군수 김명기 경찰서장 이동권 대장 임희봉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정	2020.01.30.
14	한전 횡성지사		안정적 전력공급 확보 및 긴급출동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2020.03.25.
15	원주의료원	원장 권태형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	2020.09.17.
16	둔내의용소방대-둔내역		둔내역 철도 재해 시 연락출동체계 확립	2021.08.26.
17	관·경·군·소 통합방위 협약		국민보호 및 공공안전	2022.03.03.
18	횡성군 13개 유관기관		안전1번지 횡성군 구축을 위한 협약	2022.03.28.
19	제8375부대 2대대	대대장 이상탁	드론 운영 협약	2022.08.17.
20	서울F&B	대표 오덕근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기술개발	2024.07.25.
21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	지부장 최종웅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협약	2024.09.12.
22	횡성군	군수 김명기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이동식 수조 및 질식 소화포 지원	2025.02.10.

두 아들 소방관에게 전하는 선배의 편지

선배자 이야기

김대겸

조영규

소방관 아들에서 소방관이 되기까지

퇴직소방관의 아들



우리네 인생은 세월이 흘러가며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다 보니 머리카락은 빠져 반짝거리는 대머리로 변하고, 탱탱하던 나의 얼굴엔 어느새 잔주름과 하얀 수염이 자라고 있는데 20대 청춘은 온데 간데 없고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에 다가와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아~ 내일 모레면 정년이구나...

어린시절 뛰어놀고 물장구 치던 섬강은 아직도 변함없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건만 소방에 몸담은 나의 인생은 어느덧 32년 이란 세월을 빠르게만 지내왔구나.

젖은 방수복을 인수인계하며 물불가지지 않고 활동하던 그 시절부터, 개인보호장비가 지급되는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 너희들이 몸담은 이곳에도 별이 뜨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소방관 30여년. 행복한

순간, 가슴이 메이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글로 다 표현할 순 없겠지만 몇 자 적어볼까 한다.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영동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를 만났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톨게이트에 멈춘 SUV차량을 관광버스가 추돌했는데, 가족 다섯이 타고있어 더 끔찍했다. 100일된 아기를 구조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송하던 그때를 잊을 수 없구나. 대원들과 눈물을 흘리며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힘든 일이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이 다치고 아플 때가 제일로 가슴 아프고 슬펐단다.

너희들도 소방생활을 선택하였으니, 삶의 코너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마음의 동요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지혜롭게 잘 해내리라 믿지만, 부모마음엔 늘 걱정이 앞선다.

너희들이 엘리트 축구를 그만 둔다는 말을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온 가족이 축구에 바쳤던 열정과 인생이 허무해서였는지 모르겠다. 전화위복이라 했던가, 소방관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하고,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부둥켜 안으며 눈물흘렸던 기억이 생생하구나

우린 이제 소방가족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며, 멋진 소방관으로 의미있는 인생을 누렸으면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횡성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올해로 2년차 소방관 조영규입니다. 제 첫 근무지인 횡성소방서가 개서 15주년이 되었다는 것에 남다른 애정을 느낍니다.

기회를 빌어, 소방관이 되기까지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얼마전까지 저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비번 날 소방서에 데려가 소방차도 태워주시고 방화복도 입혀주시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싹트던 듯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 하던 시기에 출동을 마치고 귀소하시는 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소방차를 타고 창문 사이로 “아들”이라는 말과 함께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 같은 소방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진 소방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어 할 때 마다 출동 나가셨던 얘기를 해주시며 지치지 않게 멘토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듯 합니다.

소방관이 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를 포함한 선배님들이 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 티도 안 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저와 놀아주고 여행 다니던 그 시간이 아버지의 희생이었다는 걸 지금 깨닫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충실하고 또한 퇴근 후에는 가정에 충실한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소방 생활에 모토로 삼는 문구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방관은 제2의 가족이다!” 즐거운 일은 함께 웃고, 슬픈 일은 나누며, 혹여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동료니까요.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며 그동안 잊었던 열정을 되새기고, 오늘 하루 근무하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선배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이 만드신 길을 잘 다져, 후배에게 물려주는 좋은 선배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 소방관이자 엄마를 신나는 것

오유경

김민기

아들아, 조심해!  
엄마가 바리바리  
소방관 아들

새벽 공장 화재로, 갑작스런 폭설로, 며칠간 이어지는 산불로, 엄마가 너와의 시간을 온전히 함께 나누지 못해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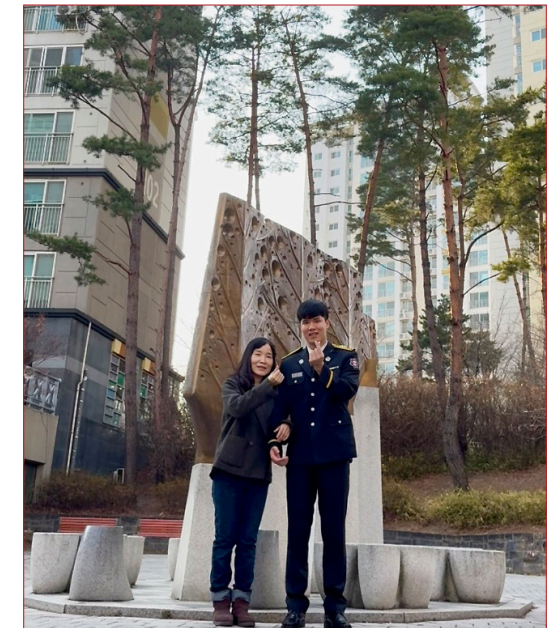
1분 1초의 시간에 민감해진 엄마의 직업병 때문에, 너의 시간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안해.

업무 싸들고 가서 너의 숙제는 안 봐주고 엄마 일만 하느라 미안해. 너와의 사진은 제쳐두고 업무 영상 집에서 만들어서 미안해. 방학 때 혼자 밥 먹게 해서 미안해...

계속 미안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너와 소방차를 타고, 물소화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엄마를 기억해줘.

너의 추억 속에 소방관 삼촌과 언니들이 있다는 것에 뿌듯해줘 ^^



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소방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대견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두어 번 만류하면서도 밤낮으로 정진하는 아들이 멋져 보였고 응원하게 됐지. 보람도 느껴지고 여전히 재미있다고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안심이 된다.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리는 아들을 포함한 모든 소방관분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조심하세요.

어느새 근무 7개월,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살피주신 센터분들에게 감사하고 잘 적응하는 아들도 고맙다.

- 영원한 아들 편인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민기에게♡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여름, 말벌 집 제거 출동을 열 번 정도 하는 날도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소방관의 노고를, 아들을 통해 더 잘 알게 되었어. 오늘도 사건 사고 없이, 다치는 사람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게 되네.



### 읽을거리3

## 횡성소방서의 미래

# 2050 소방의 미래비전

### 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소방이 단지 불을 끄는 조직이었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소방은 '예방-대응-회복'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종합 재난 대응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기술의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불을 향한 인간의 경계는, 이제 AI와 드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의해 이어진다.



### 나. 기술로 앞서간다: 드론, AI, 로봇 소방관

불길보다 먼저 하늘을 나는 드론,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AI 분석 시스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고온의 공간에 대신 투입되는 로봇 소방관.

이 모든 기술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실험 중이며, 2050년에는

표준 대응 체계의 일부가 될 것이다.

### 드론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

2025년의 드론은 정찰용이었지만, 2050년의 드론은 작전의 핵심이다.

20년 후의 산불 신고접수를 가정하자. 5

초 내로 근처

드론포터에서 무인 드론이 출동한다.

드론은 연기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열감지 AI 카메라로 화점과 바람 방향, 지형 굴곡을 실시간 분석한다.

지상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의 헬멧에는 드론이 보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R(증강현실) 화재 지도가 뜬다. 화점, 잔불 예상 위치, 바람 변화까지 자동으로 갱신된다.

### AI가 지휘하고, 인간은 판단한다

AI 통합지휘 시스템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구조, 구급, 대피 동선까지 동시에 분석한다. 건물 내부의 구조는 미리 등록된 디지털 3D가상 모델로 복원된다.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IoT센서 데이터가 자동 연동되고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 소방차 이동 경로

최적화시킨다.

하지만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AI는 제안하지만, 선택은 현장 지휘관이 할 것이다.

### 로봇 소방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대신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 공장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고층 건물에선 4족 보행 로봇, 소형 진입형 로봇, 탐지 드론이 먼저 들어간다.

이 로봇들은 고온·저산소·유독가스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기 때문이다.

생체신호 감지 센서로 고립된 인명 탐색하고, 소형 방수 로봇은 내부 진화도 가능할 것이다. 로봇이 먼저 길을 열면, 소방관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입할 수 있다.

### 나. 소방관,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이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공감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현장을 지키는 건 여전히 사람이다. 소방관은 이제 단순히 화재를



# 불을 넘어서,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기술과 철학

진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를 읽고 현장을 분석하는 판단력,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공감력을 갖춘 사람이다.

기술은 그들을 '위험에서 지켜주는 방패'이고, 그 방패를 든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구하는 검'이다.

### 다. 횡성소방서의 미래, 지역을 지키는 가장 정교한 시스템

### 횡성은 고층 빌딩도 없고, 화려한 대도시도 아니다

그러나 복잡한 화재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산불, 축사화재, 산업단지, 노인 가구의 부주의 화재까지. 예측이 어렵고, 대응이 까다로운 지역형 재난들이 곳곳에 있다. 따라서 횡성소방서의 미래는 '기술의 총집합'이기는 지역에 맞춤형, 작지만 정밀한 소방시스템으로 진화될

것이다.

초소형 드론 비행대가 산림이나 취약지구를 자동 순찰하고, 모든 축사·공장에 IoT 열감지 센서가 설치될 것이다. 온도, 습도, 전기 부하를 실시간 측정하여 위험 수치 초과 시 소방관제시스템에서 경고와 소방순찰차를 자동 배치할 수 있다.

이제 화재 예방은 벽에 붙은 경고문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스며드는 기술이다.

### 소방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 기술과 시스템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사람'에서 시작된다. 횡성소방서는 지역과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그 변화의 중심에 두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을 배우고, 소방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일은 곧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화재예방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들은 직접 몸으로 안전을 배우며, 때론 영상 속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에게 소방의 중요함을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어린이집의 한 칸에서, 학교 교실 안에서, 또는 마을의 작은 공터에서... 소방관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배우고, 공감하는 순간들이 쌓이며, 지역은 점점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마무리 : '최신'이 아니라 '최적'의 소방

횡성소방서의 미래는 가장 빠르거나, 가장 멋진 기술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가장 필요한 기술, 가장 따뜻한 방식, 가장 가까운 시선으로 진화할 것이다.

기술은 도구고, 사람은 주체다. 횡성의 소방은 그 중심을 잃지 않은 채 2050년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조직으로 남을 것이다.



## 편집후기

횡성소방서 『횡성소방사 이야기를 담다』는 횡성소방서의 개서 이후 15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수많은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편집 작업을 넘어,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과 지역사회와의 깊은 연결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백서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소방 가족의 땀과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순간순간들을 오롯이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인터뷰와 수기, 현장 사진 등을 통해 각 기록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듯 독자에게 감동을 전하며, 소방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이번 백서에서는 단순한 텍스트와 사진을 넘어, 곳곳에 QR코드를 활용하여 영상 자료와 쇼츠 콘텐츠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QR코드를 통해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으며, 책 속에 미처 담지 못한 순간들의 뒷이야기와 의미도 보다 입체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QR 영상과 쇼츠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즐거움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며, 이 백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는 공감의 기록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횡성소방사 이야기를 담다』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취재와 자료 제공, 사진 협조, 내용 검토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바쁜 업무 중에도 집필과 편집에 함께해주신 소방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작업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횡성소방서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내는 ‘공감의 기록’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이 후배 소방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자료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소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정리되어, 다음 백서에서는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담기기를 기대하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 편집위원 일동 -



기획총괄 |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기획지원 | 소방행정과장 원동표  
 편집총괄 | 행정지원팀장 김동열 편집위원 기록물제작TF 강희석 외 3명(위 박태웅, 교 정민서, 교 윤효식)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엠블럼&캐릭터



### 엠블럼 소개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 캐릭터인 강원이&특별이를 바탕으로 'Gangwon'의 이니셜 'G'와 소방의 대표 브랜드 '119'를 결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G)를 119가 구(9)한다는 뜻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강원소방의 굳건한 의지와 역할을 표현했다

### 캐릭터 소개

사랑스러운 외모와는 다르게 험난한 산속에서 자란 호랑이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충만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기세를 가진 **강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초록색이 된 반달가슴곰은 청정 자연의 기를 받고 자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태백산 골짜기에서 낮잠 자는 것을 좋아하는 **특별이**



---

발행일 | 2025.06

발행처 | 횡성소방서

발행인 | 횡성소방서장

디자인·취재(인터뷰) |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